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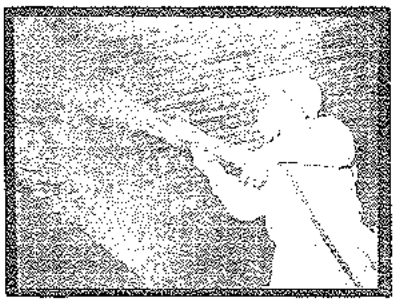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会誌

登錄日字 : 1962年 3月 23日 登錄番号 제 라 - 1251 月刊「建築士」
發行日字 : 1975年 5月 26日 每月 1回發行 通巻 第76号

'75 5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韓國建業
특수사업부 영업안내



스프레이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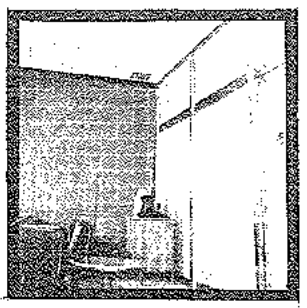
스프레이코트는 石綿을 주원료로 無機質 結着材를 배합하여 耐火被覆用과 內裝用에 사용되는 吹付材입니다.

- 철골 콘크리트 煉瓦, 목재등 吹付가 잘됩니다.
- 평면, 管, 앵글, 곡면 및 특이형에도 吹付가 됩니다.
- 가볍고 접착력이 강해 진동에 의한 脫落이 없읍니다.
- 시공기간을 단축하며 두께를 자유로히 조절합니다.

경량철골천정

조립이 간편하여 시공이 빠르고 아름다우며, 화재예방과 방음 및 단열효과에 최적이며, 또한 용도가 광범위하여 각종 천정재를 부착할 수 있읍니다.

철재이동칸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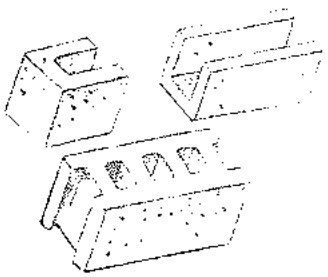


- 필요에 따라 자유로히 원하는 장소로 이동설치 할 수 있읍니다
- 귀중한 공간이 종래의 칸막이 벽보다 최소 1/3이상 절약됩니다
- 工期를 수배이상 단축시키며 경제적입니다
- 화재 예방은 물론 방음효과가 큽니다

스틸 샷시·도아

백화점, 학교, 병원등 현대식 건물의 창호 및 출입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읍니다.

스텐레스 창호



日本 다지마와 기술제휴하여
한국건업에서만 제작시공합니다.

또 건축의 중요자재인 콘크리트 부로크와 적연와 제품 생산은 물론 알미늄도아·샷시, 철골(트라스), 전기내외선 공사 및 위생설비를 시공합니다.

한국건업주식회사특수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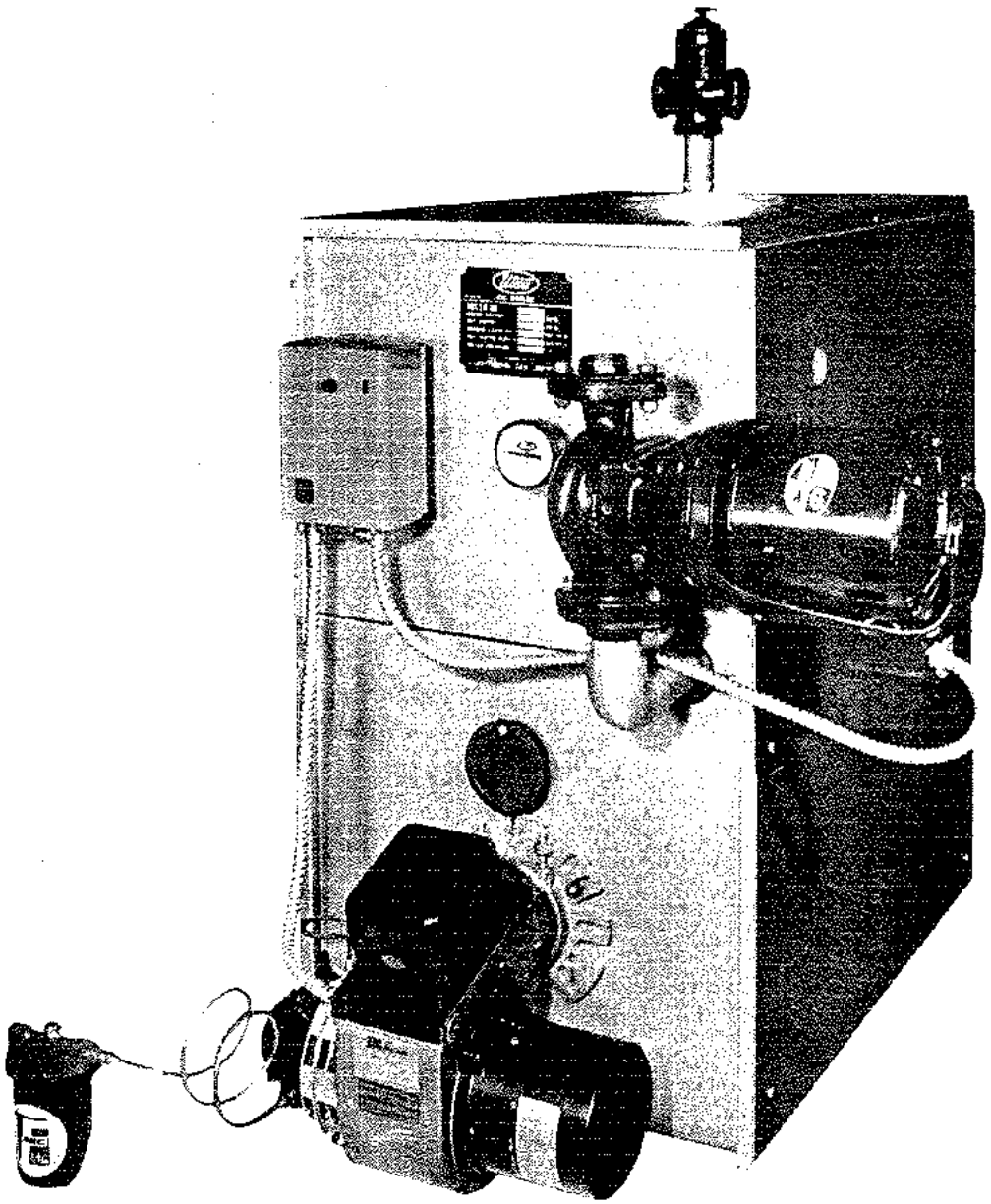
서울·중구저동 1가48 (22) 2141－5 (28) 8565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난방 / 급탕겸용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유 티 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 街 126의 1 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建築・土木

技術士(施工・構造)
技士①②級

建築士①②級
土木職·建築職 公務員昇進

測地技士①②級

年中無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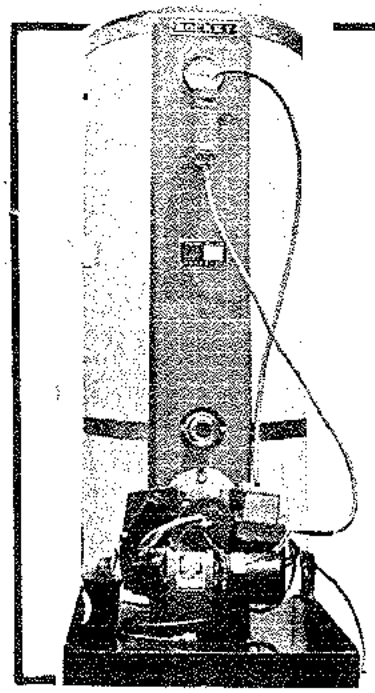
伝統있는　責任講義

서울市庁뒤 建設協会옆 新星빌딩 5 層

現代建設技術学院

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 1 가31의20　☎ 72-3166

Rocket Boiler
로켓트보일러



✳ 로켓트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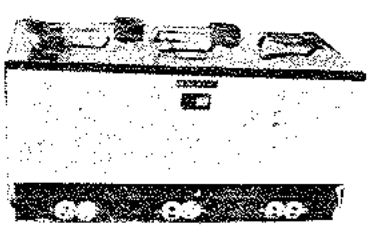
상공부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 제 1 —1002— 1 호부터
제 조 허 가 제 2 호 형식승인 제 1 —1002— 6 호까지

열 효율 87.2%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시험결과)

＊건축사를 위한 공업진흥청 형식승인 로켓트보일러특성표＊

ITEM / TYPE	단 위	KR-40	KR-60	KR-80	KR-150	KR-200	KR-300	KR-350	KR-400	KR-500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85,000	320,000	410,000
형식승인번호	Number	1-1002-2	1-1002-1	1-1002-6	1-1002-5	1-1002-4	1-1002-3			
난방가능평수	Heating Area	20-30 평	30-50 평	60-80 평	100-150 평	150-200 평	200-300평	300-350평	350-400평	400-500평
관 수 용 량	ℓ	82.5	122.9	166.6	300	396	624	72.4	920.9	1.400
연 료 소 비 량	L/HR	3.[illegible]	5.4	8.8	18.4	21	35	38	44.8	56.2
수압시험압력	Kg/cm²	5.25	5.25	5.25	5.25	3.5	3.5	3	3	3
배 관 구 경	m/m	50	50	65	75	75	100	100	100	100
연 통 구 경	m/m	150	150	200	200	250	300	300	350	400
바 나	HP	⅛	⅛	⅛	¼	¼	½	½	¾	¾
외 형 치 수		A 470	A 540	A 610	A 610	A 780	A 1,000	A 1,200	A 1,400	A 1,800
외 형 치 수		B 800	B 1,150	B 1,280	B 1,600	B 1,750	B 1,850	B 1,850	B 2,000	B 2,250
중 량	kg	300	340	420	480	520	620	660	720	900
제 작 방 법		OIL PRESS 성형제작								
로켓트보일러 이 달 가 격	5월 1일 5월 31일	151,000	189,200	245,150	391,200	458,800	636,000	781,200	952,100	1,057,000

＊로켓트 연탄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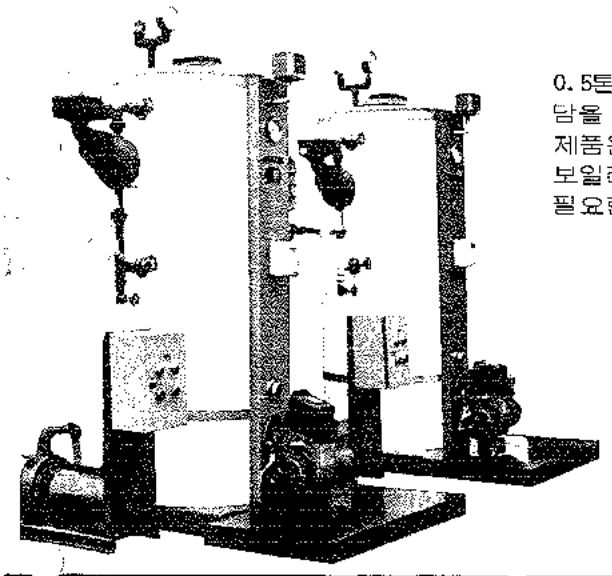
＊ 특 징
- 온수사용
- 난방급탕취사겸용
- 긴 수명 (13년 사용)

＊ 용 도
- 주택 - 아파트
- 여관 - 병원 등

＊ 실 적
- 마포 아파트, 450세대
- 정동, 외인, 옥인 Apt.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연탄보일러 특성표＊

규 격	단 위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3,110	6,220	9,330	12,440
사용연탄	SIZE	19	19	19	19
연 통	INCH	4"	4"	4"×2	4"×3
배관구경	mm	32	40	40	50
난방가능면적	평	3~4	6~9	12~15	18~20
가 격	5월 1일 5월 31일	41,800	68,200	90,200	123,200



＊로켓트 전 자동증기 발생기

0.5톤 미만의 증기보일러는 1톤이상의 과다한 시설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였읍니다. 관리자가 필요없고 안전도가 높은 폐사 제품은 소량 (1톤) 미만의 증기가 필요한 공장등에 적합한 전 자동증기 보일러입니다. 수출직물공장, 전자제품공장, 세탁공장, 건조시설에 필요한 공장 등

＊건축사를 위한 증기발생기특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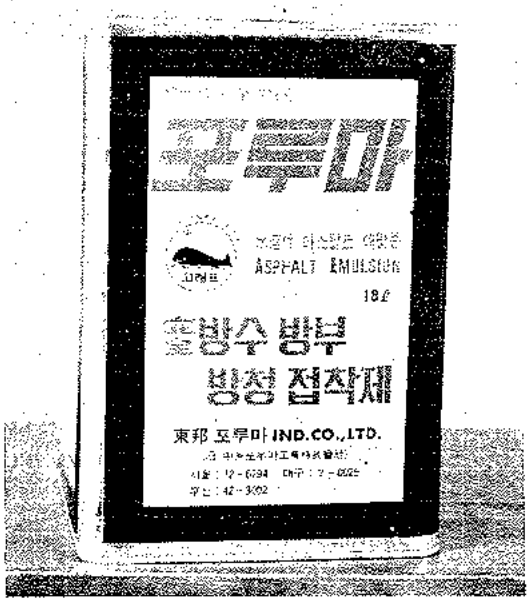
규 격	단위(UNIT)	URS - 150	URS - 200	URS-250
발 열 량 CAPACITY	Kcal / H	90,000	120,000	150,000
전열면적 HEATING SURFICE	cm²	520	715	910
압력시험 TEST PRESS	Kg / m²	5.25	5.25	5.25
급수시설 WATER SUPPLY SYSTEM	Motor / Power	1 HP	1 HP	1 HP
자동시설 AUTO CONTROL SYSTEM	#	Mc 150#	Mc 150#.	Mc 150#
운전방법 OPERATED	ALL AUTO CONTROL SYSTEM			

열 기술의 종합메이커

고려강철주식회사

서울사무소 영업부 : 26 -1135~6, 27 -9358, 66 -1363
아프터서비스부 : 27 -9358
세운상가전시장 : 27 -8370
영 동 전 시 장 : 57 -2434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ASPHALT·EMULSION)시대로 !



完全 방수제
동방 포루마

■ 동방 포루마란? ■

수성페인트처럼 물에 용해하여 사용하는 수용성 아스팔트입니다. 일반액체 방수는 균열이 발생하고 모체와 방수층이 잘 떨뿐만 아니라 모세관이 많아 완전방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아스팔트 멘부렌 공법은 작업과정이 복잡하여 시공단가가 고액이며 루핑과 아스팔트의 불완전부착, 부라운 아스팔트 그 자체가 겨울에 갈라지고 여름에 녹으며 접착력이 부족한 탓으로 일어나는 제반결점 때문에 장기간 수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선진제국에서는 끓일 필요가 없고 또한 아스팔트의 모든 단점을 제거한 수용성 아스팔트를 개발하여 일반 방수, 방청(녹방지)뿐 아니라 도로포장 및 선박도료 등 각종 건축분야에 널리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 폐사에서는 아스팔트 수지원료에 특수 화학 약품과 안정제를 응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71년 부터 포루마를 생산하여 그간 수입되고 있던 外製(美·日製) 아스팔트 에말존을 품질과 가격면에서 능가하여 완전 국산화로 대체하였으며, 한편 방수, 방부 방청 밀착제등 에 사용되어온 결과 그 우수한 성능으로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균열 방지용으로 루핑 대신 나이롱망을 사용하며 물에 타쓰는 아스팔트임으로 세멘트를 혼합 할 수 있어 방수 효능이 더욱 완전합니다.

■ 용 도 ■

1. 방수 : 옥상스라브, 벽면, 지하실, 실내곰팡이 및 습기제거, 온돌방습 및 연탄 깨스 방지, 목욕탕, 물탱크, 연못, 턴낼.
2. 쪼인트(질석빠데), 스치로폴 밀착, 균열개소 수리, 함석 지붕 등 일반 방수 방부 방청용.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LTD.

서울 : 29-1718 대전 : 3 -5733

부산 : 43 -4558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76 호
구입년월일	
대한건축사협회 도지부	

U. D. C. 69 /72 (054—2) : 0612 (519)

月刊「建築士」 (通卷 76 号)

'75 5

目 次

論 壇……(2)
安東水没地区의 感傷 ……金 浩……(3)
大学캠퍼스의 屋外環境 ……恒 岡 範……(7)
住居機能에 対한 考察……李 文 燮……(16)
우리들의 옛建築과 그 現代化 (完)……朴 容 淑……(23)
風水—古代景観建築学 ……孫 鵬 程 / 朴 一 成 역……(28)
都市計劃과 建築家 ……최 집 부 역……(35)
(紀行文)
台湾・방콕・싱가폴紀行 (1)……李 康 範……(39)

〈会員作品〉
① 펜티하우스……(曺亀鉉 建築)……曺 亀 鉉……(44)
② 李氏住宅……(韓国建築技術) ……李 鍾 寧……(46)
〈海外作品〉
① 六角形 住宅 (마레이지아)……(48)
② House for Khun Suebcrni Chainuwat (泰 國)……(50)
③ Panabhandhu School (泰 國)……(51)

西洋建築様式比較 (5) (Towers 편) ……54

規格資材 使用指針書 ……건 설 부……(58)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 설 부……(61)
建築界 뉴—스 ……(65)
大韓建築士協会 寄稿内規 ……(67)
建築許可統計……(68)
協 会 記 事……(72)
会 員 動 静……(76)
月 間 協会 動 静……(79)
編 輯 後 記……(80)

編纂委員会
委員長 李 丞 雨
委 員 金 仁 錫
金 昌 瑞
馬 春 景
恒 岡 範
俞 景 哲
尹 道 根
李 文 輔
李 廷 鎬
韓 鍾 燮

表紙：西洋建築의 様式比較

発行人兼 編輯人・韓昌鍾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5年 5月 28日 / 通巻 第76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 電話・73—9491—2
〈非売品〉

論 壇

建築士法의 改善

建築物에 확보하여야 할 最低基準을 제시하는 建築法規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 해도, 神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한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法規로 규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良識"과 "能力"을 갖춘 者로 하여금 建築物을 만드는 일을 하게하여 法規上의 補完을 기대하게 된다.

建築士免許制度를 두어 設計·工事監理의 業務를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設計 이후에 施工의 適正을 위하여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制度를 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다.

建築物의 質을 확보하는데는 經濟·社会的인 여건도 큰 문제이지마는, 建築士의 役割도 못지않게 막중함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이 막중한 役割을 담당하는 建築士의 免許를 과연 "良識"과 "能力"을 갖춘 者에게 적정하게 부여할 수 있는 制度가 되어 있는가. 建築士法 施行 10余年이 경과된 오늘날에 와서 거론하게 되는것은 늦었으나 앞날을 위하여 反省해볼 필요가 있다.

現行 建築士制度는 "良識"과 "能力"을 実務経歴 年数의 審査와 学科試験의 결과로 判定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외에 現行法制度 아래서는 다른 方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먼저 "能力"을 判定하는 建築士法試験制度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1級建築士의 경우 建築設計·建築計劃·建築構造·建築施工·建築法規의 5科目에 대하여 試験을 실시하여 각각 100점 滿点에 平均 60점 이상을 合格으로 하며, 每科目 100점을 滿点으로 하여 每 科目 40점 이상, 全科目 平均成績 60점 이상의 得点을 合格으로 하고 있다. 得点條件은 다른 考試의 例와 공통이므로 論外로 해 둔다. 문제는 그 5科目이 어찌하여 하나같이 100점 滿点인가 하는데 있다.

設計와 工事監理를 業務로 하는 建築士의 試験에서 主力科目일 建築設計에 대하여 어찌하여 総滿点의 1/5의 評価만을 하여야 하는가. 日本의 建築士制度가 바로 그와같은데, 그 制度를 비판없이 안일하게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建築士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科目이며, 다른 支援科目의 綜合이기도 한 建築設計 科目에 대한 配点은 상대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今年부터 施行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技術分野에도 建築構造·建築設備·建築施工의 세가지 種目의 技術資格이 있으므로 이 技術資格試験에서 主力科目(建築士에게는 主力科目이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이 되는것에 대하여는 建築士試験에서는 덜 評価하는것이 타당하다는 理由가 뚜렷하여졌다.

둘째로 科目免除制度이다. 建築士制度 初期부터 "試験科目 중 60점 이상을 得点한 科目에 대하여는 本人의 願에 의하여 3回에 한하여 그 科目의 試験을 免除" 하였는데 도중 이 規定이 削除되었다. 즉 現行制度는 1科目이라도 科目落第가 있으면 不合格이고, 再次 応試時에도 全科目 모두 応試하여야 한다.

建築技術文化의 내용이 革新되어 어제와 오늘이 相反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科目合格制度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応試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各科目에 대하여 깊이있는 研究를 자주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各科目마다 깊이있는 出題도 가능하고 能力의 向上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出題한 問題는 事後 公開할 필요가 있다. 이의 효과는 出題에 대한 研究를 더욱 強要할 수 있으며, 応試者에게는 建築修業의 方向을 제시해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問題水準이 곧 応試者의 水準을 끌어 올리고 있는 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問題의 事後公開는 次後 試験問題의 内容을 暗示한다거나, 錯誤된 問題로 인해 物議를 惹起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겠으나, 次元을 높혀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問題内容은 單純暗記를 요구하는 문제보다 実務的으로 필요한 応用問題 위주로 力点을 둔것이 바람직하다. 設計와 工事監理는 関係事項의 暗記로 되는 業務가 아니고 判断能力을 요구하는 業務이다. 応試者의 年令層도 벌써 그러하다. 한 예로서 建築法規는 모두 暗記할 수 없으므로 応試場에서 法令集을 任意로 參照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出題内容도 이에 대비하여 충분히 研究된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은 "能力"을 判定하는 하나의 手段에 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良識"의 評価는 어떻게 할것인가. "能力"은 있어도 "良識"이 없는 者가 물을 흐리며, 脱法的인 害毒을 끼치는 것은 黙過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事前評価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없는 重要하고도 基本的인 研究課題의 하나이다.

安東 水没地区의 感傷

金 洹

安東에 「多目的」댐이 完工되는 것은 1976年 9月이다.

댐은 73m높이, 542m길이의 土石重力式으로 洪水 調節量 1억4천만 M^3, 用水供給量 年間 9억2천6백만 M^3, 생활 및 工業用水 年間 7억4천만 m^3, 灌漑用水 공급량 年間 1억8천만 M^3, 発電力 9만kw 의 이른바 다목적 댐이다.

이 댐이 完工되면 安東郡内 여섯개의 面이 (4300戶840平方킬로미타) 물속에 잠기게 된다.

洛東江 流域의 住民들은 年例的인 홍수와 旱害의 악순환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UNDP에 의하면 낙동강 本流에 3개, 支流에 15個 댐 건설예정지 중에서 안동댐의 妥当性이 가장 높다.

西紀 1976年에는 물에 잠겨 영원히 못 보게 될 안동마을의 먼지 이는 황량한 길을 걸으며 나는 다분히 感傷的인 생각에 젖어든다.

交通이 不便하기 이를데 없는 이곳은 可謂 한국 近代史의 奥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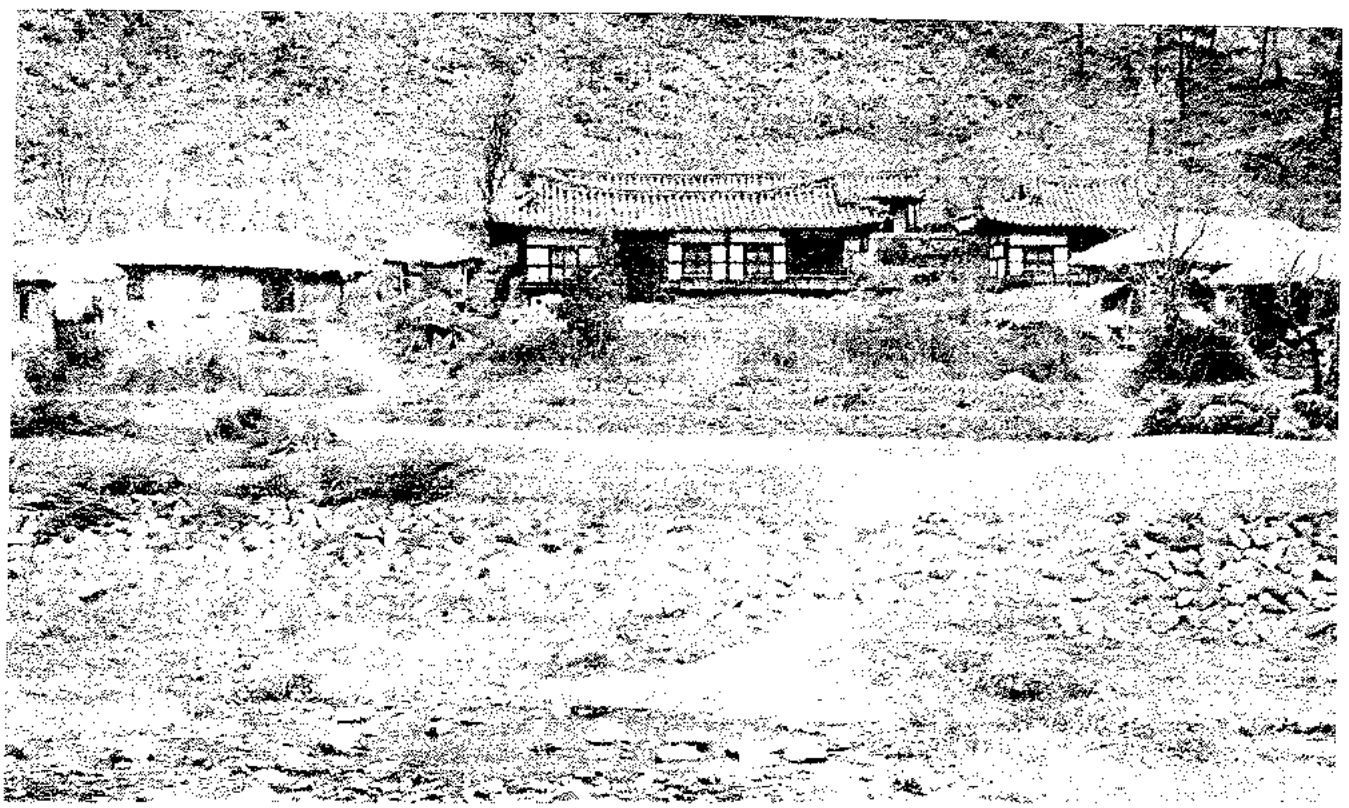
이 경상북도 땅이 全国에서 遺跡保存率 第一位라는 것은 경주와 이 안동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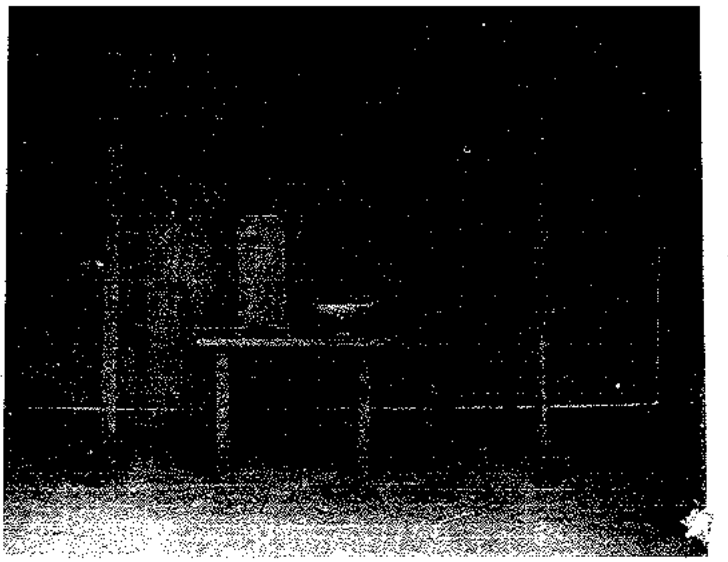
이미 충분한 讚歎을 받아 그 声価가 人口에 膾炙하는 국보와 보물들이 안동 여러곳에 널려있다. 그 위에 댐 건설로 水没이 확정된 이후에 国立박물관과 各大学 조사반이 발굴해 낸 先史時代의 유적들도 그 考古学의 가치들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런것들 보다도 내게 더 마음 끌리게 하는 것은 이곳 士溪, 宜村洞, 禮安 等에 散在한 작은 마을들이다. 그리고 그 마을에 오랫동안 깃들여온 生活과, 그 생활을 가꾸어온 그들 삶에의 姿勢같은것 들이다.

그들 뛰어난 立地의 精神과, 自然을 보는 叡智와, 意図的일듯 아닐듯 感覚的인 進入의 테크니크와, 위엄있는 Clustering과, 그리고 또 400년 해묵은 — 아니 200년 이래도, 20년이래도 좋을 — 정겨운 생활의 찌들림과,

그 이끼낀 기왓장과 그을은 부뚜막과…… 그 검잖은 몸짓의 노인네와, 나그네를 향한 그 温柔한 미소의 아낙과…





옛날의 洛東江은 文化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 강은 物質을 만든다. 댐工事는 그래서 「해야할 일」로 받아 들여진다. 경작지와 공장과 도시에 물을 댄다.

지금은 모든 강이 그렇다. 그리고 現代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物質的 으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인간, 한 民族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가난」이었느냐.

우리는 經濟開発計劃이 세워진 이래 「생각하기」를 잊었다. 그것은 한국역사가 있어온 이래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우리 생활의 버릇이었음에도,

그 「생각하는 民族」의 요즘 子孫들은 돈을 벌어서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자가용을 사고, 그리고는 그 골치아픈 생각하기를 그친다. 다음에는 住宅을 사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서는 저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이 生産해 내는 것이 많이 創造하는 것이라는 錯覚이 우리들을 휩쓴 것이다. 그들 価値観은 모든것이 換金性에 歸一하였다.

그것은 얼마이냐, 그것을 하면 얼마가 생기느냐.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든것은 일단 無価値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것, 사랑하는것, 누구를 믿는것, 그 모든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돈이 있어야 孝道도 하고, 民族中興은 GNP 頭当 1,000딸라인 것으로 알게끔 되었다.

그 좋아하는 所謂「伝統」부르짖는 建築家들도 어디서 研究費라도 후짐해 나오지 않는 限, 이 교통불편한 곳에 가는 일에조차 그들 黄金같은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悲劇일런지 모른다.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것은 国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国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富裕한 者가 곧 힘이 있다는 사상은 타락이다.

詩를 읊는 者, 그림을 그리는 者에게 주어지던 栄光의 月桂冠은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詩를 지어서 御使도 되고 글을 써서 宰相도 되던 민족적 예지의 시절이 있었다. 그 詩는 생각하는 方法이며, 삶을 보는 눈이며, 그 能力의 表現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包容하였다.

나는 이곳 물에 잠길 마을에서 그들 마음의 풍부하였음을 가슴깊이 느낀다.

마음의 풍요는, 바로 그것은 여유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단정해서 말 할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우리가 다시한번 困難에 處한다면 지금 우리의 価値観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 家族을 먼저 피난시키고 그 재산을 빼 올리느라고 모여서 議論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다. 現代版 修身斉家論은 그런 것이다.

그런 삶의 方式은 결코 「잘 사는」것일 수 없다. 그리고 그와같은 財産의 集積은 결코 国力일 수 없다.

우리에게는 精神이 優先해야 한다.

分明하게 定立된 価値観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잘 살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生産도 늘려야 한다.

우리에게 「民族中興의 歴史的 使命」은 그 精神의 中興이다.

나는 安東에서, 이 머지않아 人工湖의 밑바닥으로 변해 영원한 沈黙의 암흑으로 변할 마을에서, 하잘 것 없는 補償金으로 곧 生計가 막연해 질 이곳 사람들과의 미련스럽도록 여유있는 対話에서, 그 精神의 鎮魂曲을 듣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UNDP의 리포트는 나무랄 데 없이 「合理的」이다. 나는 그들 feasibility study에 맞서서 댐 건설공사의 波及効果와 경작지 面積減少를 비교할 생각은 없다. 「댐 건설의 適地가 上流에 위치해야 하는 地形的 條件때문에 18개의 댐이 전부 개발되도 総集水面積은 全 流域面積의 31.5%, 流量調節能力은 年間 総流出量의 23.6%에 불과하다. 18개 댐群에 流入하는 洪水量을 100% 조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下流에서의 洪水調節減量은 17% 정도 뿐이다」라는 一部 異見에 대해서도 可타否타 말 할 자격은 나에게 없다.

뎀 전체 공사비의 35%라는 文化財 移転費와 補償金의 比率도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이긴 하다.

우리는 UNDP 리포트가 이런 마음 아픔의 얼마만큼을 이해하고 있을까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찾아 내거나 보존하지 않는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高貴한 것들이다.

堂号를 「愛日堂」이라고 한 一文化財로 指定되어 다른 곳에 옮겨 세워질—한 선비의 亭子가 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恭敬한다는 뜻이고, 해(日)는 父母를 의미한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 思想의 根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정신의 고향이겠다. 그것은 옮겨세워 지는 것이다.

「所有者의 同意를 얻어 安東郡이 買入하여 民俗村을 건립토록 계획이었으나 민속촌 건립不可로 個別 移転場所 결정(교통편리한 景観地) 郡이 이전공사를 실시한다.」

나는 이 땅거미지는 길이, 그리고 이 길가의 느티나무가,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가 물속에 잠긴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

얕은 강은 호수가 된다지만 이 반들거리는 징검다리 돌들은, 그리고 좁고 구부러진 길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安東을 떠나면서 느끼는 나의 이와 같은 憂愁는 테크노크라시의 時代에 있어서 나 혼자만이 별나게 갖는 感傷일 것인가. 한 建築人에게 있어서 말이다.

나는 뎀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십이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愛日堂과 그 생각의 淵源들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라면 뎀보다는 타당성이 없어보이는 堤防을 江両岸에 쌓고, 계속해서 높아 간다는 河床을 浚渫하기 위해 다른데서 번 돈들을 이곳에 만이라도 쓸 수는 없다는 것일까.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이야기가 통한 사람이면 만나는 사람에게 마다 安東이야기를 꺼냈다.

詩人과 영화감독과 화가와 소설가와 그리고 물론 건축가들과, 그 시인은 시를 쓸 것이다. 서울의 변모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읊던 솜씨로 그는 마음 아픈 시를 쓸 것이다.

영화감독은 그가 즉석에서 약속한 대로 도큐멘터리·텃취의 음울한 영화를 만들 것이다. 이 마을에 물이 차 올라오는 광경을, 그리하여 들쥐의 떼가 도망치는 모습을, 지붕만 둥둥 떠다니는 草家를, 그리고 언덕에서 그것을 무기미하게 바라보고 섰는 노인네를, 그런 것들을 담은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画家는 캔바스 가득히 잿빛 하늘을 그릴 것이다. 400년 이끼낀 기와지붕을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버린 廢家와 그래도 남아있을 좁은 시골길을 그릴 것이다. 그 물밑에 잠길 길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 갔을, 그 물밑 바닥에 하얀 라인으로나 남을 그 길을.

화가건 시인이건 영화감독이건, 적어도 안동에 가 본 사람들,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들은 뎀의 완공을 경축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나 民族記録画 같은 그림들은 연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사라져가는 마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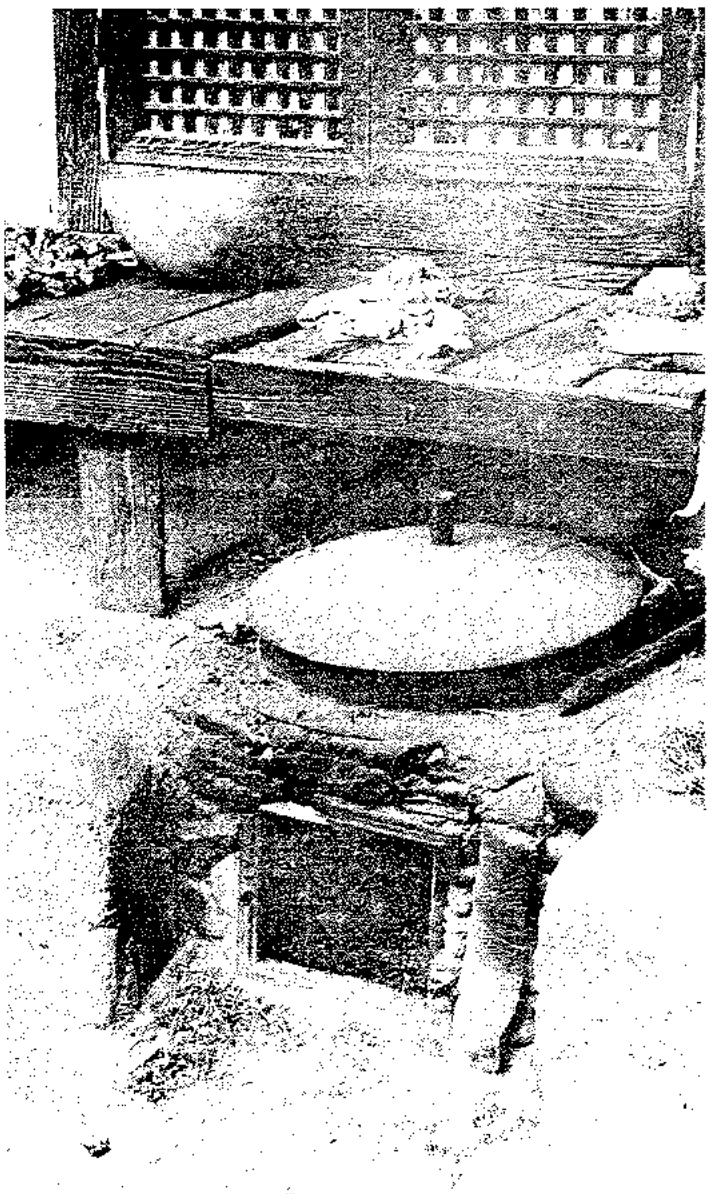
나는 영화를 만들수도, 시를 쓸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을의 印象들을 마음속에 남기는 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高貴한 것으로 간직하는 일 뿐이다.

나는 그 마을의 clustering을, 400년 묵은 대문과 사랑채와 안채와의 관계를 사진 찍고 実測하여 도면으로 그릴 수는 있다.

或者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묻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것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막연한채로 무슨 해야 할 일 같은 것일 뿐이다. 그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이 경우 다목적 뱀보다는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내게는 귀중한 것이다.

참으로 내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安東金氏, 安東權氏, 眞成李氏, 그리고 書院과 儒学의 잘 알려진 어떤 폐습들은 지금처럼 비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그것은 지나쳤을런지도 모른다.

두번째 안동을 찾은 길에, 李退溪가 살아 있을 때 그 落成式에 초대받었다는 일화를 가진 한 정자 앞을 지나며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勢道政治로 悪名을 높인 金祖純의 몇번째 무엇인가가 된다는 어떤 金氏의 집, 退溪先生은 한 눈에 그 집이 선비의 집으로는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이유로 落成祝賀宴 참석을 사양하고 건너편 언덕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 그런「선비」의 마음가짐, 그리고 生活哲学이어야 하고, 우리가 아까워 해야 하는 것은 그들 慧眼으로 골라낸 이 明堂의 고을, 그들 素朴한 生活의 集結인 그 마을들, 그리고 그들「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 베고 누웠던」치장하지 않은 정자의 대청 마루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라져 간다. 近代化의 물결에 휩쓸려 그것들은 사라져 간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오래전에 상영된 미국영화「TVA」의 이야기를 떠 올리며 나는 마음이 무거워 진다. 1930年代의 経済恐慌対策으로 연방정부가 벌인 테네씨 溪谷 開発事業과 그 댐 공사장이 이야기의 무대였다.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弘報 担当官인 몽고메리·클리프트는 머지않아 水没될 테네씨江 가운데의 한 三角洲에서 移住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黒人家族을 설득하려 매일 그 섬에 出張한다. 거역에 특별히 남는 人物들로 憂愁에 잠긴 젊은 담당관보다는 그 黒人家의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조상이 80년 동안 그 섬을 가꾸어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보상도 移住도 거부하며 그것은 国家의 일이고 이 섬은 우리의 땅이며 우리가 여기서 죽건 살건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다. 종당에는 젊은이들은 관리에게 총질하기까지를 서슴치 않는다.

士溪마을에서 만난 어떤 15人 大家族의 家長인 한 老人의 이야기와 이것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노인의 첫 마디는「나라에서 하시는 일인데……」뿐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그의 우물거리는 입가에서 흘러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린다.

그는 150만원을 보상받기로 되어 있다. 아마도 그 돈은 그의 一家가 安東邑内에 열다섯식구를 위한 陋屋을 마련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 家族은 뿔뿔이 흩어지기가 십상일 것이다. 어쩌면 그 十代의 孫女는 都市의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그나마 軍隊에서 生活力을 배운 젊은 막내아들은 서울에서 손수레를 끌게 될런지도 모른다.

노인은 이미 家父長的 체통을 잃은 것이다.

「나야 여기서 죽는거지 뭘, 저것들이 안됐지」그는 마당의 손주 애들을 턱으로 가리킨다.

「그래도 여기서는 뉘집 애들 하면 알아는 주었지.」

노인의 힘없는 눈꺼풀 속에는 몇백년 전에 絶対君主의 横暴에 抗議하여 全国의 儒林이 들고 일어나 處刑을 각오하고 임금의 뜻에 거슬리는 上疏文을 올리던 그런 종류의 눈빛도, 더구나 더 더구나 관리에게 총질을 하던 美国黒人의 눈빛도 없다.

그러나 어찌 이 노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크게 자리잡은 조상의 무덤과 祠堂에 대한 恋慕이 그들만 못 하겠는가.

어찌 이 한국인의 大地에 대한, 조상을 묻은 흙에 대한 愛着이 미국애들만 못 하겠는가.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과 그것과를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한번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反対하는 者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近代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일로 결론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숙히 뿌리박은 한국인의 精神이 적어도 消滅됨이 없이, 変身된 모습으로, 다른 方式으로 라도 꽃 피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치 할머니의 葬礼式에서 내 인자했던 할머니의 미소와 그 의미가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illegible] 전할 수 있기를 울 것 처럼 비는 마음으로, [illegible]

(1975年 4月

大学 CAMPUS의 屋外環境

—서울大学校 CAMPUS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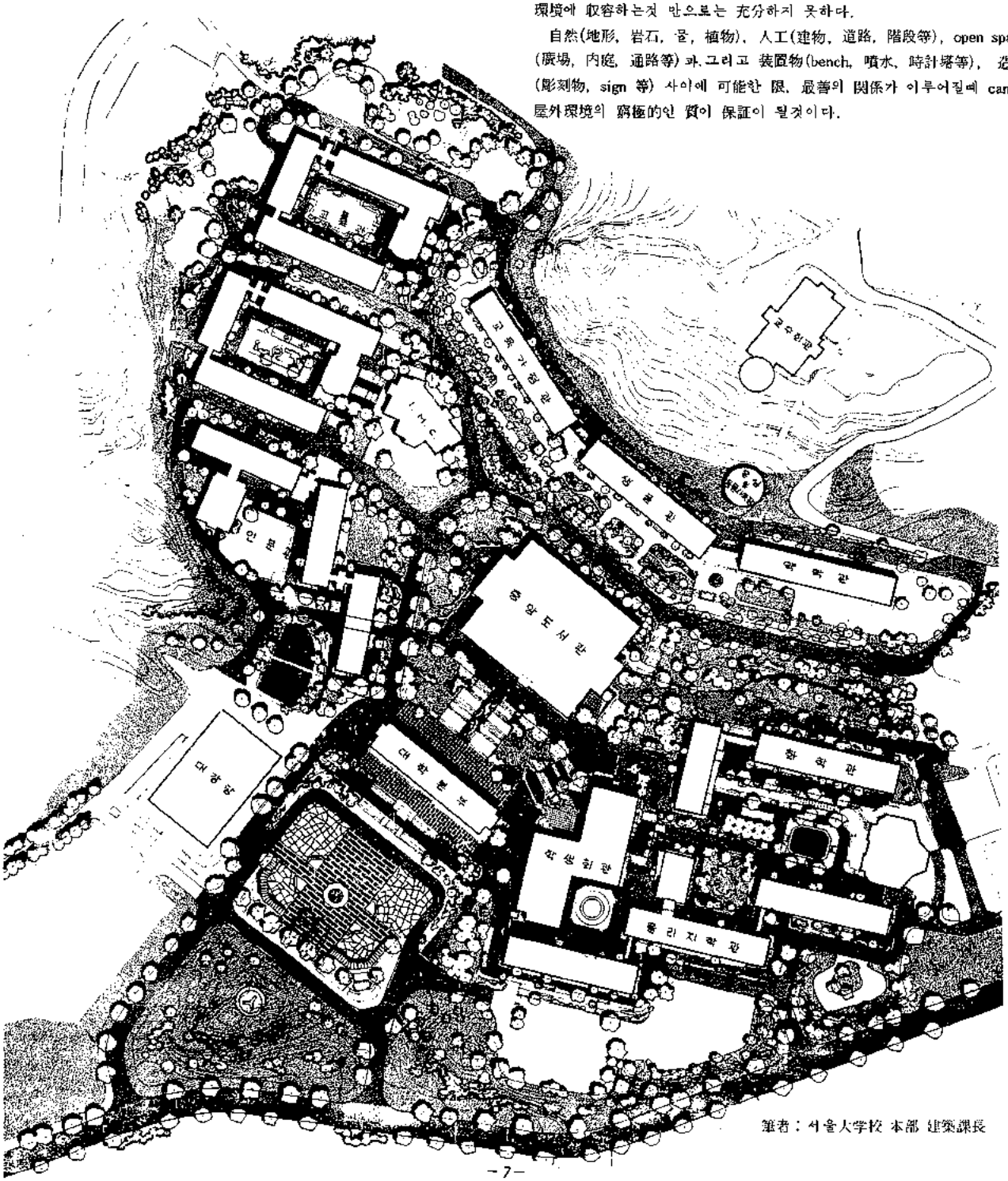
慎 國 範

大学 campus는 建物이 그 順序로 보아서 第一 重要한 構成要素가 되겠으나 이와 못지않게 重要한것은 이들 建物사이에서 建物들을 機能的으로 그리고 視覺的으로 連結하여주고 그 內部에까지 侵透되는 Open space의 連結網으로 이루어지는 屋外環境의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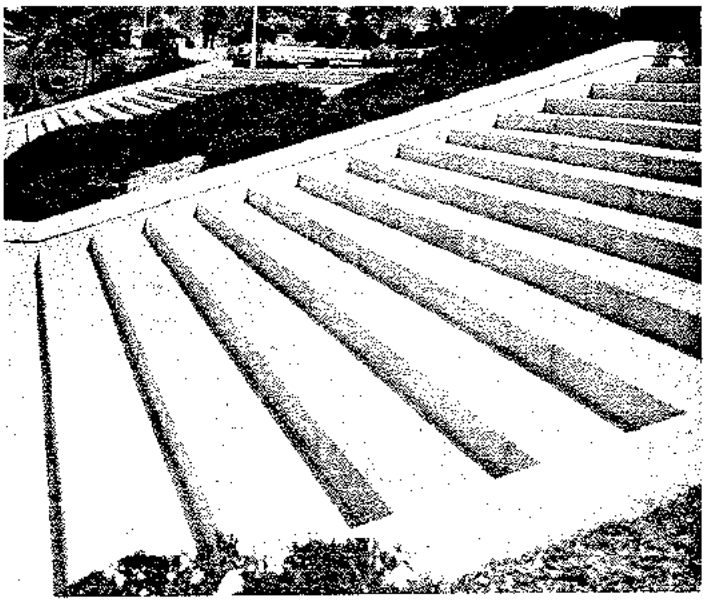
Campus의 建物사이의 空間은 適切히 그 環境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움직임과 만남이 自然스럽게 이루어져서 必要한 対話를 包含한 教育과 生活活動사이의 相互作用이 多様하게 일어날수 있는 것이다.

屋外空間의 物理的環境이 自然, 人工, 사람으로 構成된다고 볼때 이 空間에서는 사람이 그 主体가 되므로 人間的尺度에 바탕을 둔 人間化된 個性있는 아름다움이 創出되어야 하며 사람의 身体의 크기, 感覺, 慣習에 基準을 두고 사람의 心性, 知性과 慾望이 充足되어야 한다. 사람을 오직 環境에 収容하는것 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다.

自然(地形, 岩石, 물, 植物), 人工(建物, 道路, 階段等), open space (廣場, 內庭, 通路等) 과 그리고 装置物(bench, 噴水, 時計塔等), 造形物(彫刻物, sign 等) 사이에 可能한 限, 最善의 関係가 이루어질때 campus 屋外環境의 窮極的인 質이 保証이 될것이다.



筆者：서울大学校 本部 建築課長



《廣 場》

① 大学 campus에 있어서의 廣場은 때로는 象徵性으로서 때로는 機能的 生活空間으로서 表現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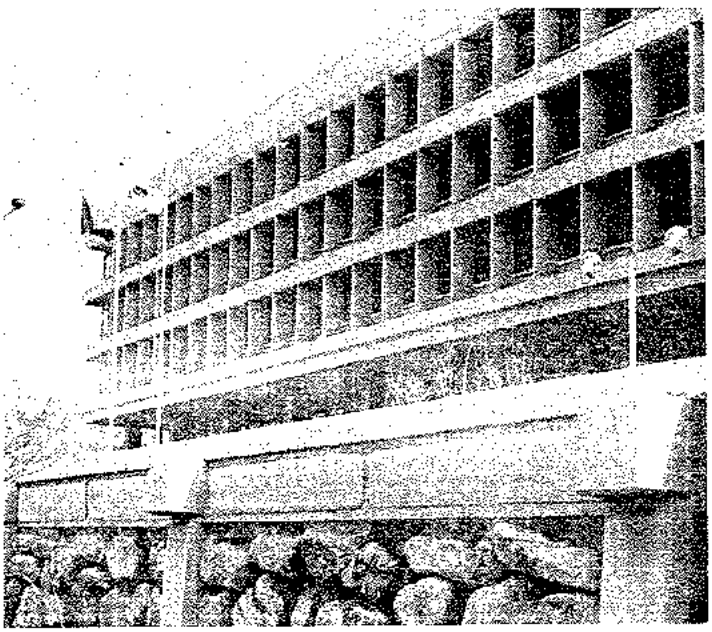
이 廣場에서 意識的으로 強調한 것은 鄕土色 即 固有美의 表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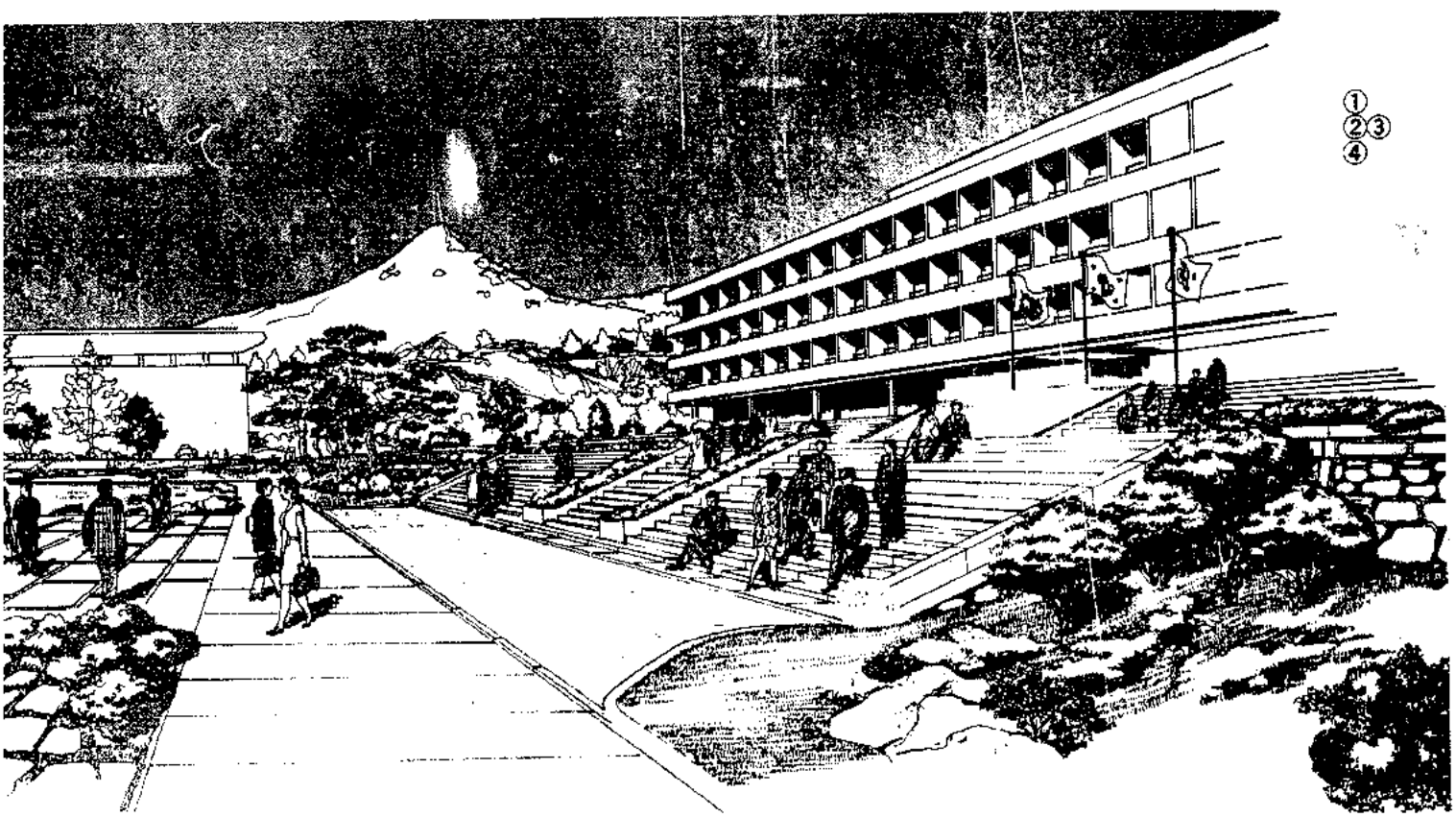
韓国的 固有美를 発展的으로 表現하는 造景要素로서 石築基壇, 石造階段 그리고 바닥의 處理를 導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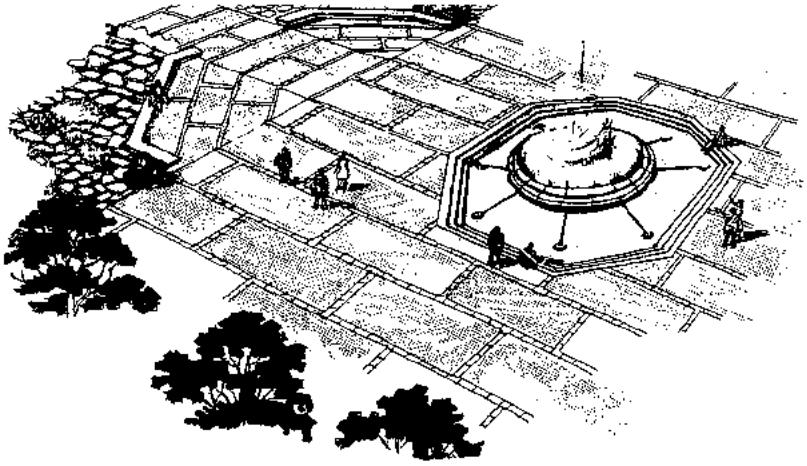
2 : 石築基壇 中央에는 넓은 花崗石階段이 놓인다. 階段은 單只 地盤高差를 解決하는 垂直動線路로서의 機能外에 걸터 앉아서 休息, 談笑할수 있는 넓은 幅과 緩慢한 勾配를 갖도록 하며 그 自体에 造形美가 갖추어지도록 한다.

3 : 佛國寺의 石壇築造에서 볼 수 있는 石築構法을 現代的 感覺과 人間的尺度에 알맞게 発展的으로 導入하여 固有한 個性美를 表現하고자 한 것이다. 이 石壇은 本部建物의 基壇으로서 建物을 한결 雄壯하게 돋보이게 할뿐 아니라 地盤高差를 自然스럽게 解決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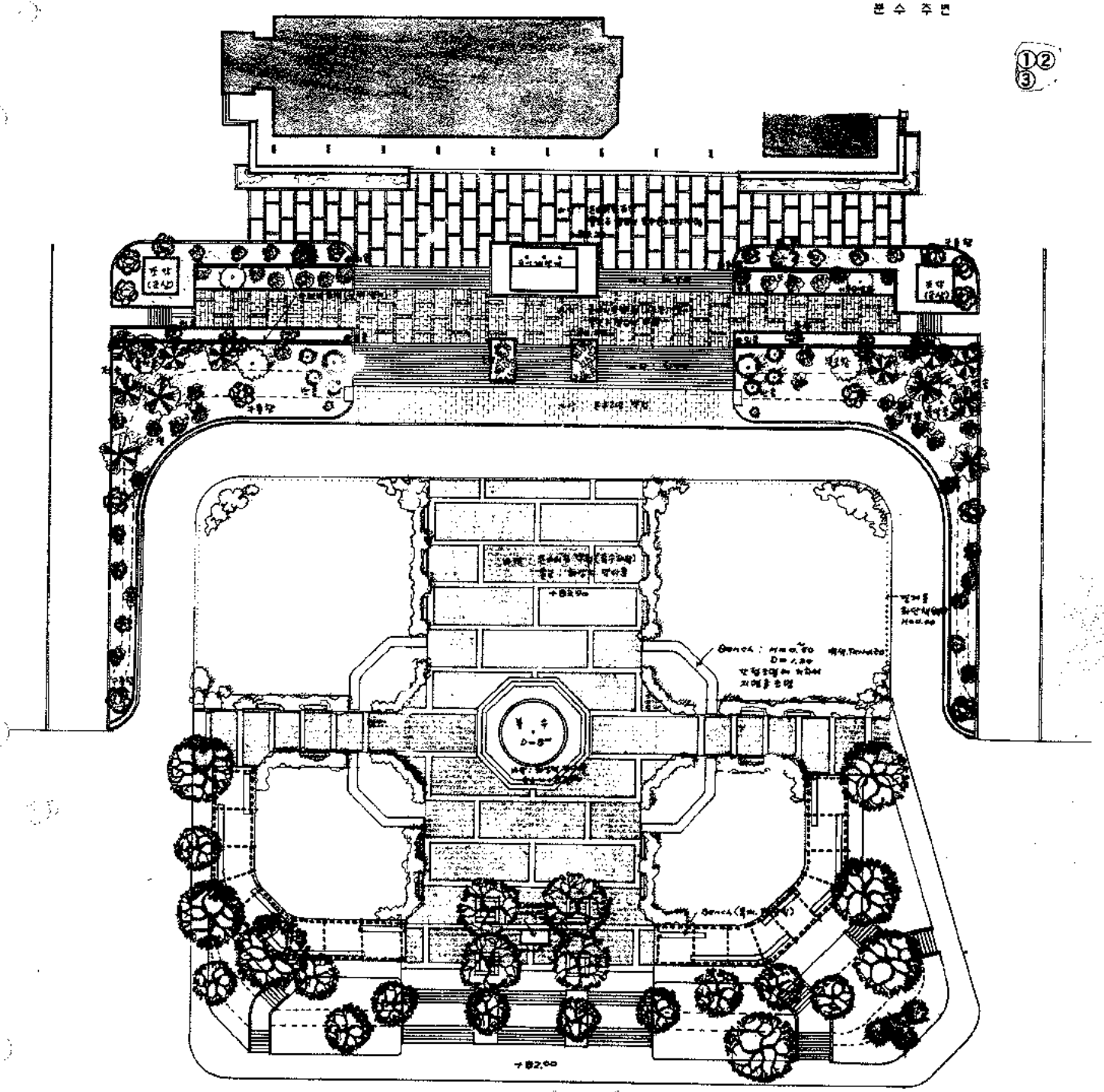
4 : 基壇 中間참은 全 campus的 行事가 있을때는 本部席 또는 貴賓席이 되기도 한다. 바닥은 짙은 灰色의 特殊製作 concrete block을 가지고 舗装面의 grid를 形成한다.







분수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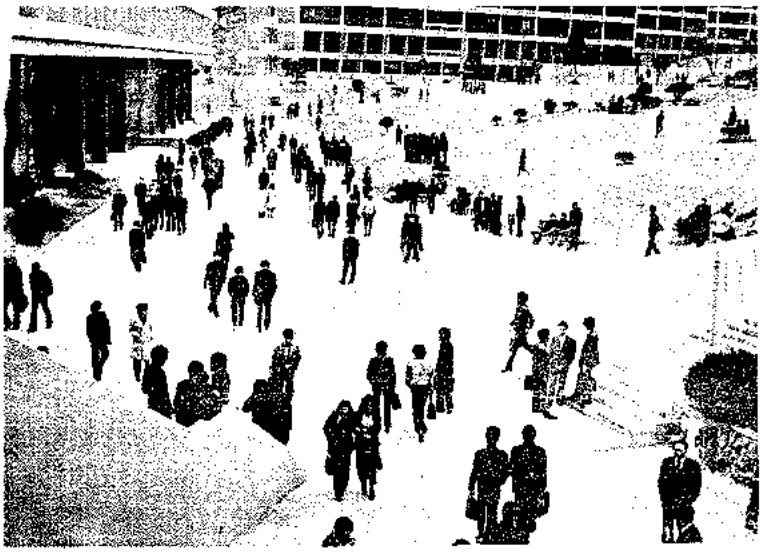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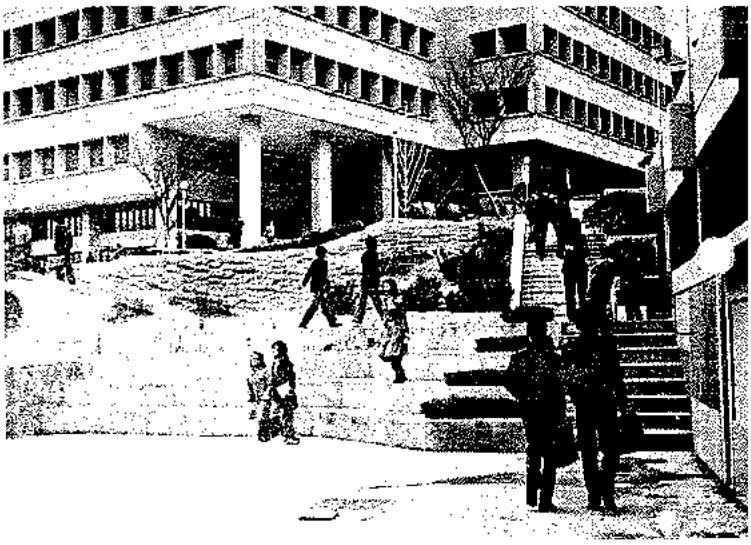
1 : 廣場의 간싸이는 零囲気는 파고라(pergola)와 落葉喬木群에 依해서 더 한層 補完이 되도록 한다. pergola는 廣場의 東山에 面한 보서리 部分에 設置되어 여름에 綠陰을 지게하고 또한 廣場의 象徵性을 强調하는 裝置物로서 놓이게 된다.

2 : 廣場中央에는 水面(直경 7m)과 噴水가 設置되어 視線의 焦点이 된다.

3 : 廣場의 바닥은 動線과 사람의 滯留에도 견딜수 있게 굵은 材料에 依해서 舗裝된다.

主로 步行動線機能에 依해 쓰여지는 部分의 바닥은 concrete를 主材料로 하고 굵은 줄눈에 依하여 grid를 形成한다. 單純한 滯留에 쓰이는 部分의 바닥은 花崗石 껜돌을 줄눈을 빼어서 舗裝하며 사이에는 잔디를 심어 메워서 步行에 견디게 할뿐아니라 보아서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處理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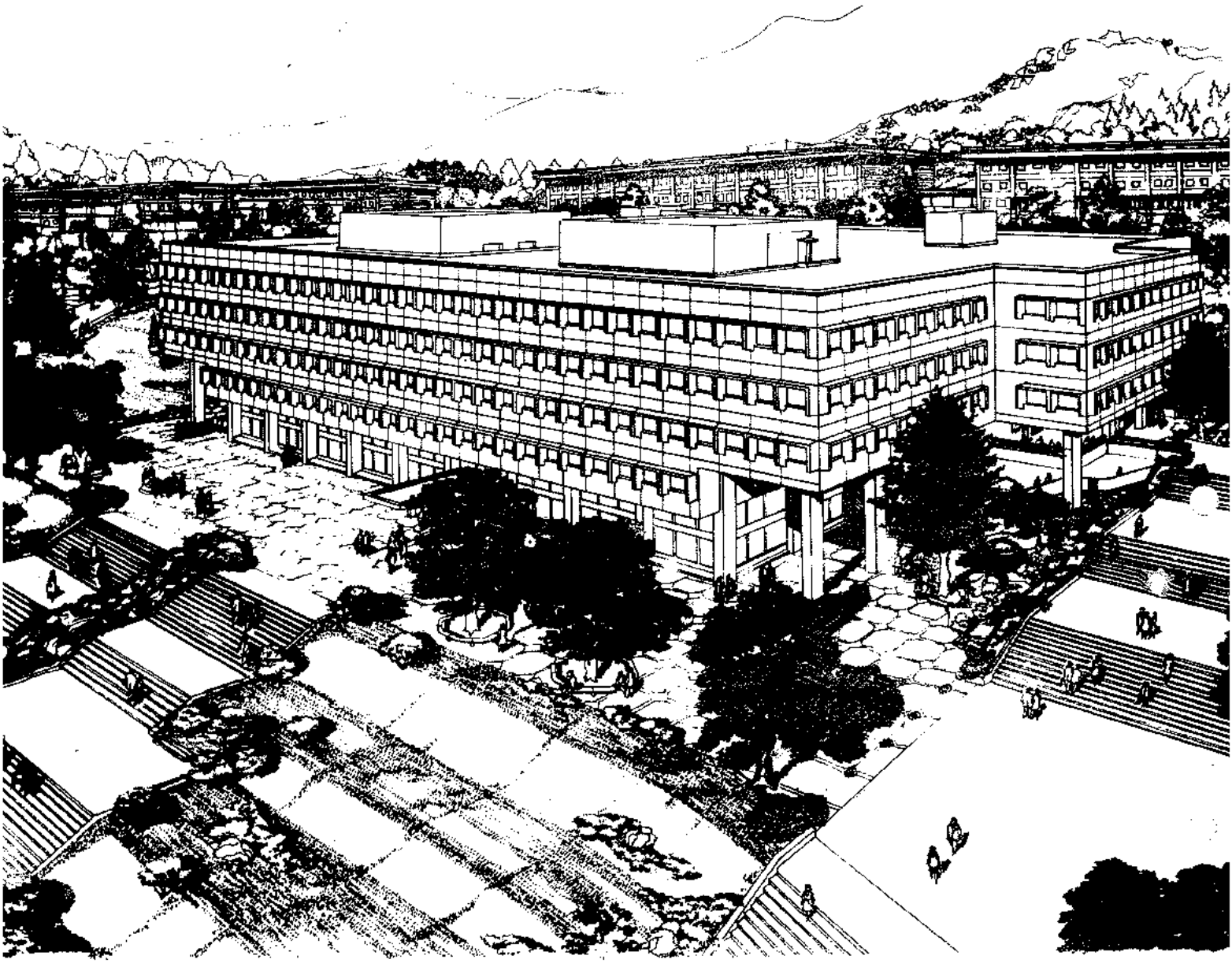
〈CAMPUS의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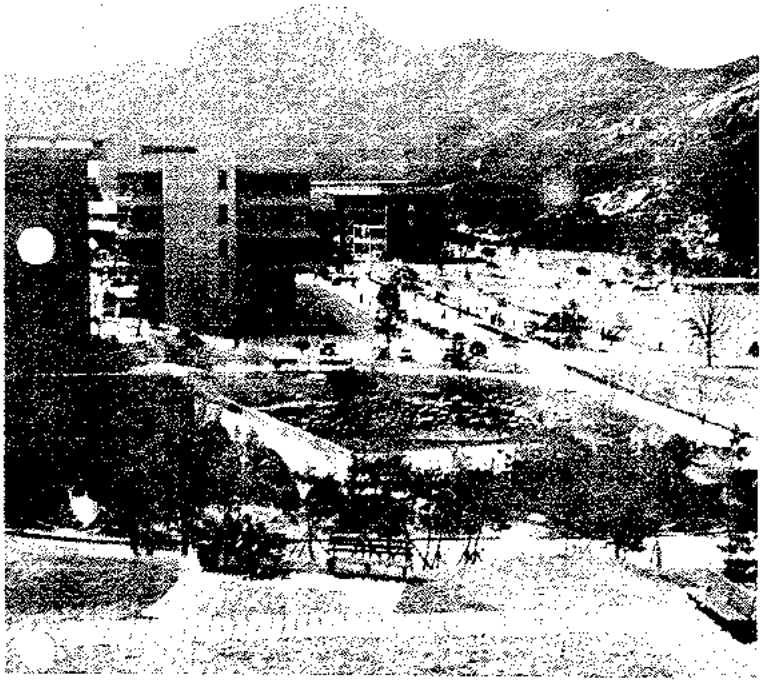
1 : campus의 새로운 傾向에서 볼수있는 特色은 campus의 core 에 있어서의 生活의 多樣化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自然스럽게 大学人口의 발거름이 모여들게 되며 多樣한 生活活動이 展開되는 場所이며 새로운 人間関係를 発展시키는 場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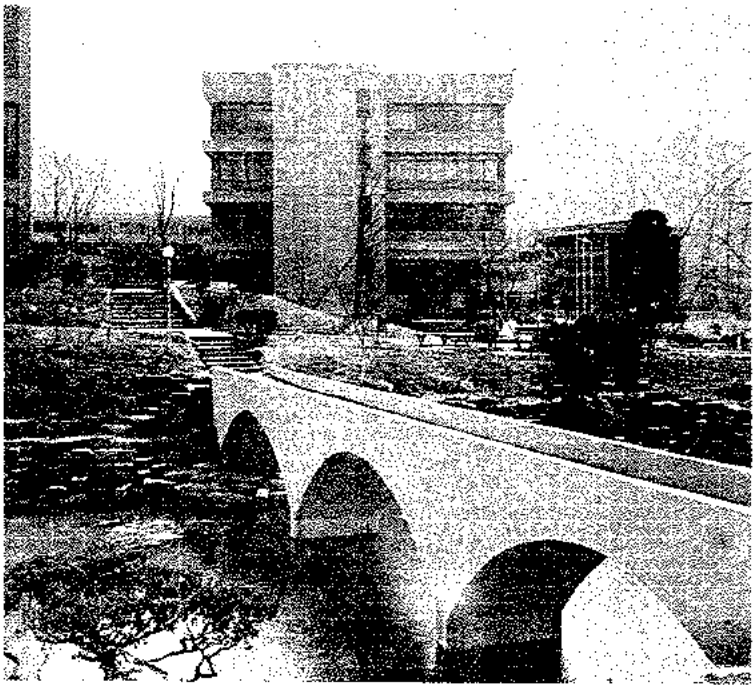
2 : campus의 core에 있어서는 滯留空間(place)과 通路(path)의 明確한 区分이 있을수 없으며 서로 相対되는 機能까지도 갖는 것이 特色이다. 階段도 動線으로서의 機能뿐 아니라 自然스럽게 맞남이 이루어져서 사람 과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空間이 되기도 한다.

3 : 廣場의 傾斜面은 많은 部分이 푸른 잔디에 依해서 덮여져 있어서 campus의 心臟이라고 할 수 있는 図書館建物이 雄壯하게 視覺的 으로 浮刻되도록 一種의 緑色의 基壇役割을 한다. 中央部의 階段은 이 core 空間과 그 周囲의 質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要素이다.

①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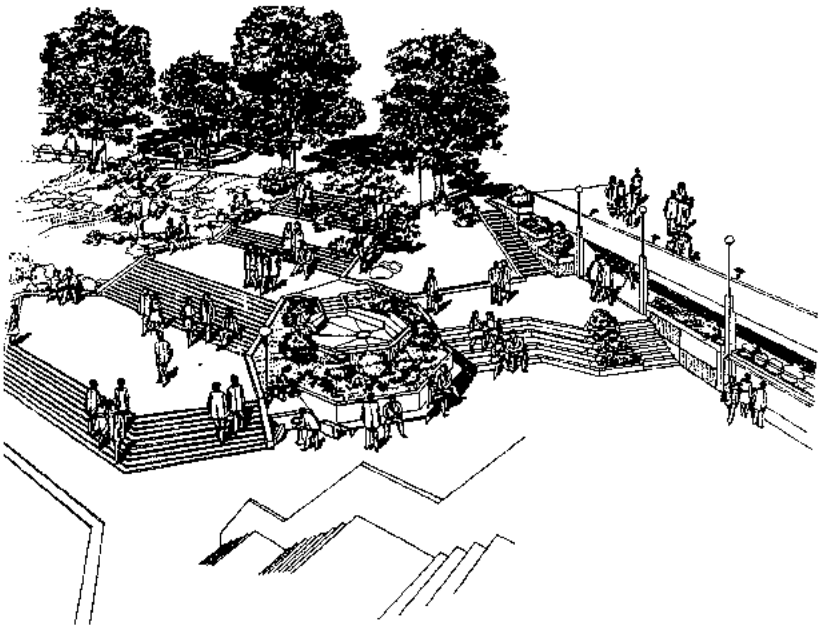
〈自然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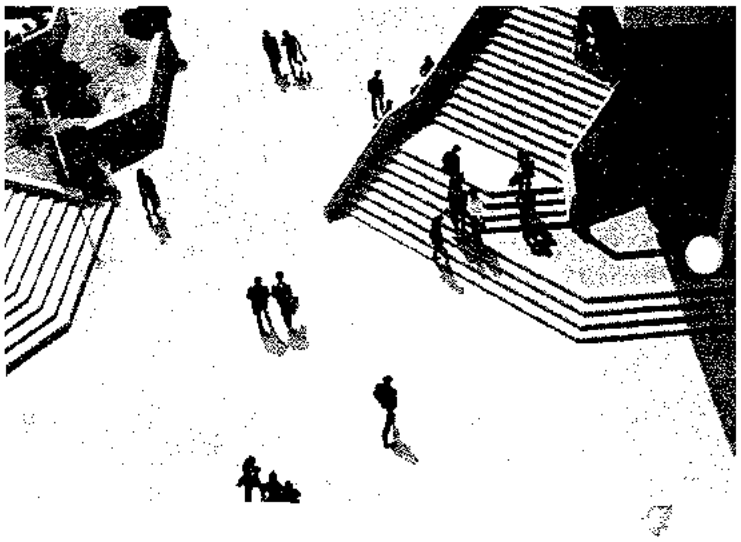
11－1 : 屋外環境을 構成하는 自然要素인 물, 岩石, 樹木, 꽃, 흙은 끊임없이 變化한다. 그 크기, 形態, 材質, 色彩는 多樣性이 豊富하기 때문에 適切히 活用이 될때에는 審美性에 있어서 魅力的인 効果를 나타내게된다.

campus 環境에서 물은 사람의 視線과 마음을 끌게하고 사람을 그곳으로 誘導한다. 연못의 自然스러운 고요한 水面은 清涼감과 思索的 効果를 줌으로써 靜寂感이 넘치게 한다.

11－2 : 여러 自然要素中에서도 campus의 屋外環境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는 効果는 樹木에 따를것이 없다.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騒音을 緩化시켜주며 눈의 피로를 回復시켜 주는 外에도 利用方法에 따라서는 symbol이 되기도 하며 炭酸瓦斯를 吸收하고 酸素를 供給하는 新陳代謝作用도 한다. campus에 있어서의 植栽는 裝飾的인 目的이 아닌 空間을 分割하는 環境의 構成素材로서의 樹木群이 됨이 바람직하다.

①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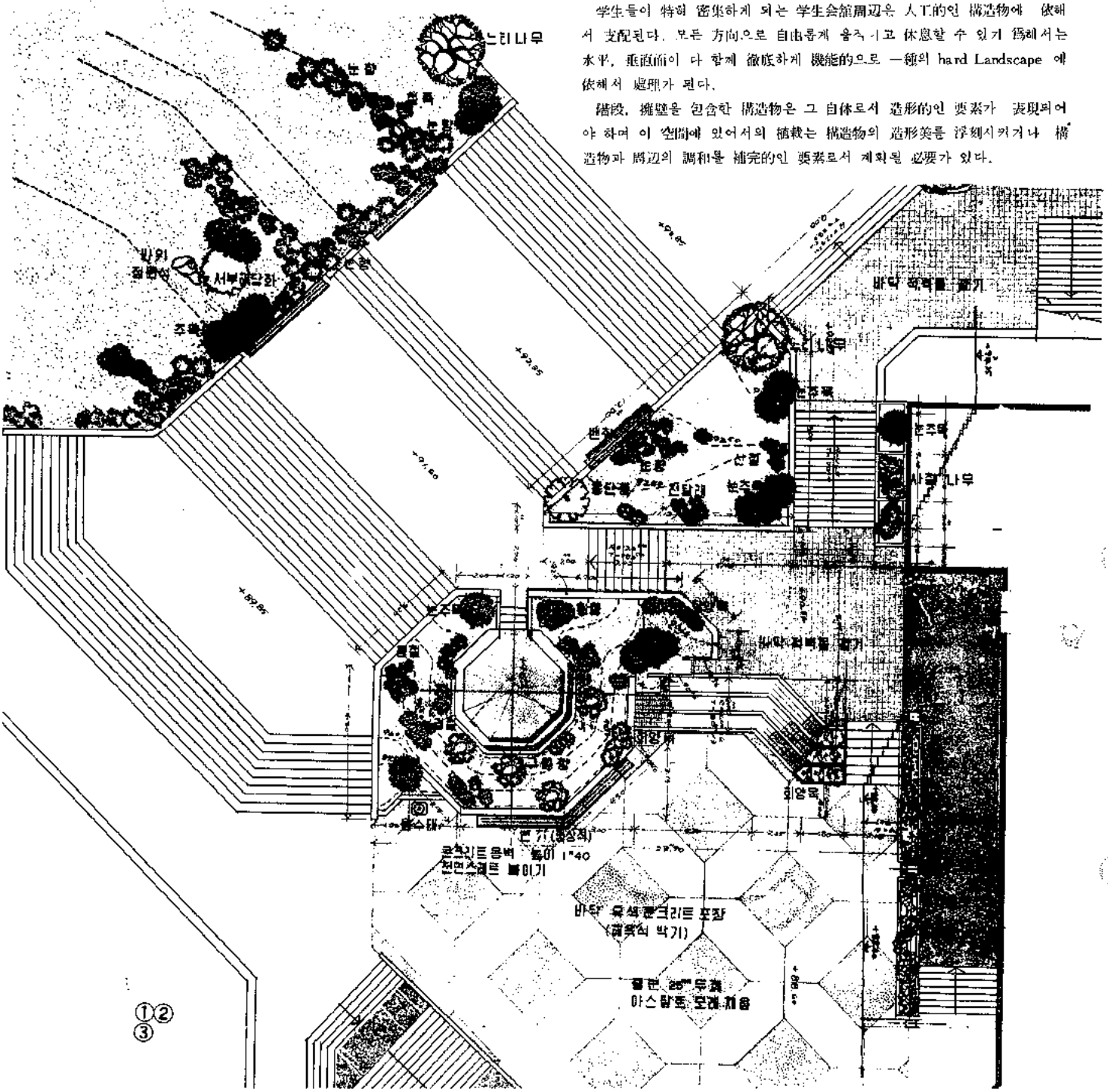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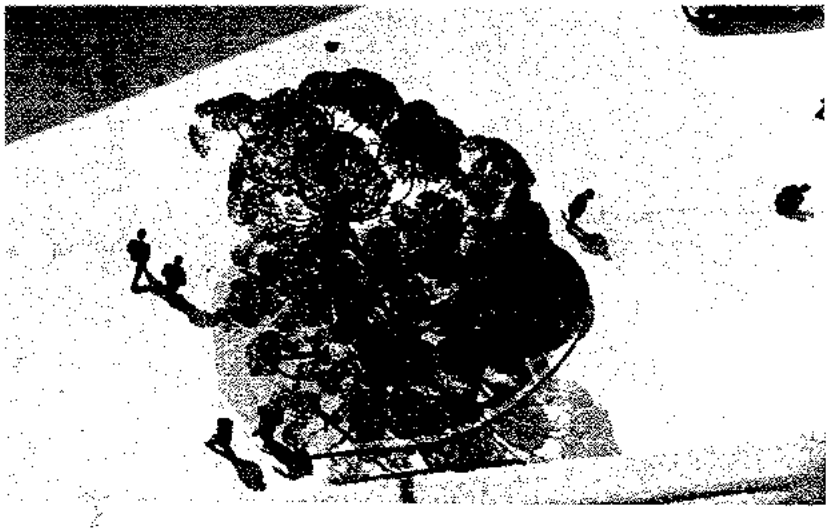
冠岳 campus는 立体的 敷地이기 때문에 地盤高差에서 오는 断面의 変化는 自然히 階段, ramp 또는 擁壁等의 人工的인 構造物에 依해서 處理가 되어진다. 屋外階段은 水平動線사이를 連結하여 주는것만이 重要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建物内部動線과의 聯関도 함께 考慮가 된 合理的인 位置와 明確한 方向性을 前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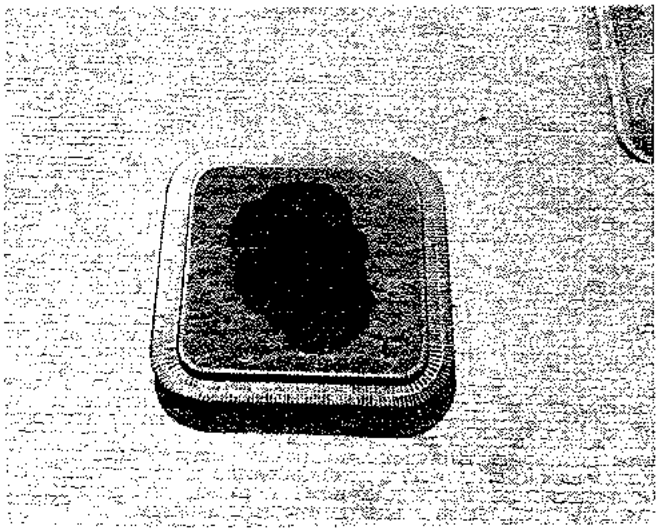
学生들이 特히 密集하게 되는 学生会館周辺은 人工的인 構造物에 依해서 支配된다. 모든 方向으로 自由롭게 움직이고 休息할 수 있기 爲해서는 水平, 垂直面이 다 함께 徹底하게 機能的으로 一種의 hard Landscape 에 依해서 處理가 된다.

階段, 擁壁을 包含한 構造物은 그 自体로서 造形的인 要素가 表現되어야 하며 이 空間에 있어서의 植栽는 構造物의 造形美를 浮刻시키거나 構造物과 周辺의 調和를 補完的인 要素로서 계획될 必要가 있다.



①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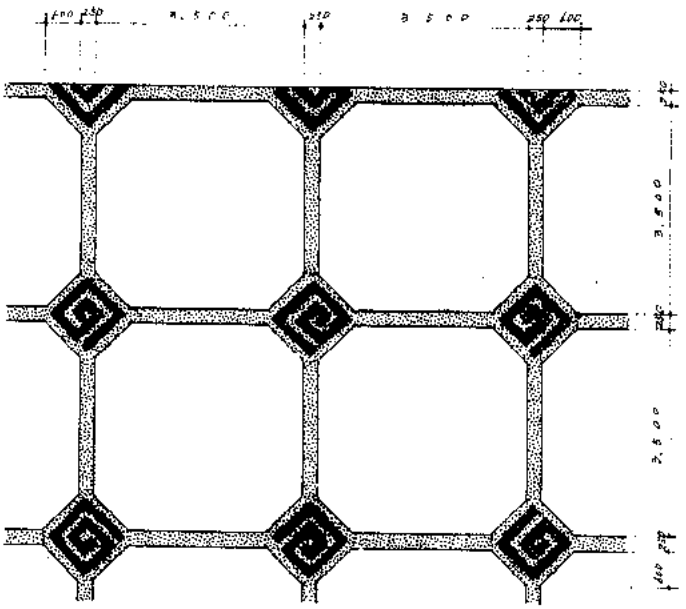
〈바닥〉

屋外空間의 바닥은 비바람이나 交通動線에 견디는 堅固하고 耐久的인 미끄럽지 않은 表面이여서 動線의 흐름이 容易하도록 되어야하며 形態나 配置의 効果에 依해서 步行者에게 方向感覺을 줄수있고 目的地를 自然스럽게 誘導하여 주는 機能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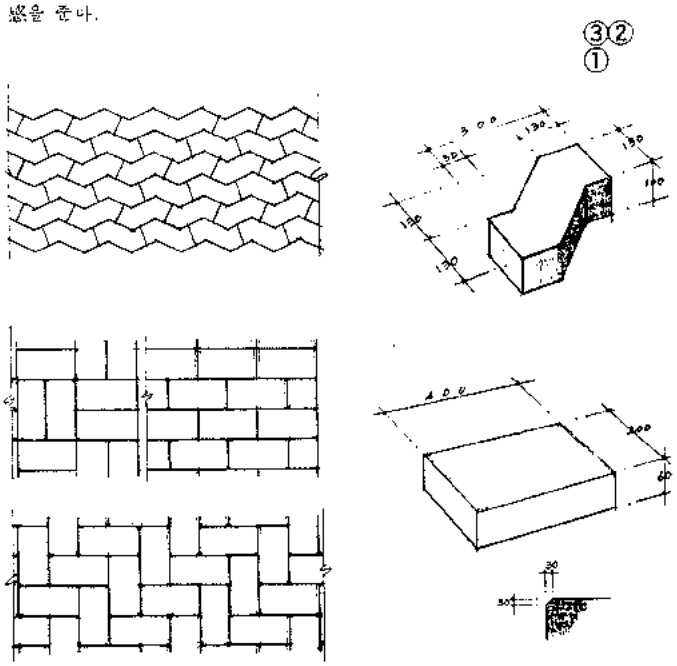
또한 魅力的이고 環境에 알맞는 視覺美가 創出되어서 建築과의 自然스러운 關聯을 맺어주는 役割을 하여야 한다.

2 : campus 屋外空間의 바닥은 步行者의 다리를 Scale로 하여 表面의 形狀과 質感이 決定되어 있다. Service動線을 兼하는 步行 專用空間에 쓰인 block은 시로 堅實하게 맞물려 있어서 車輛의 荷重까지도 받을수 있는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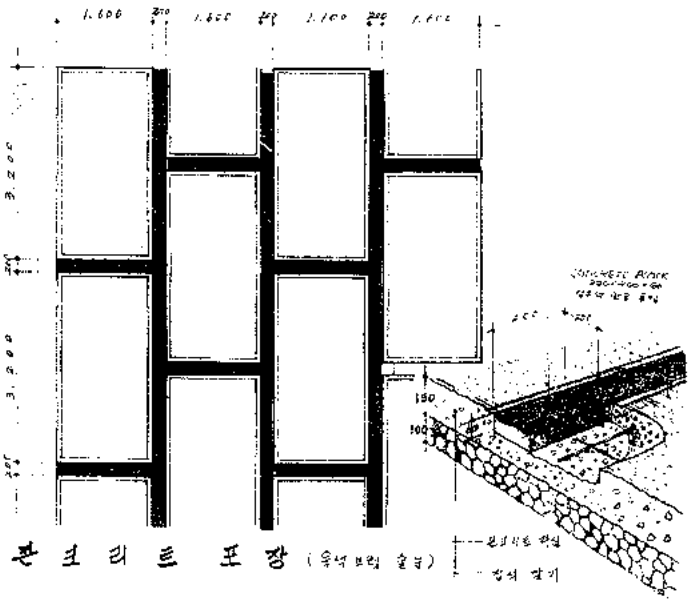
3 : 넓은 舗裝面에 있어서 色調의 變化는 強한 対照되는 色보다는 近似色 또는 対比가 은은한 色을 띨 境遇 全体的인 効果面에서 더 愉快한 感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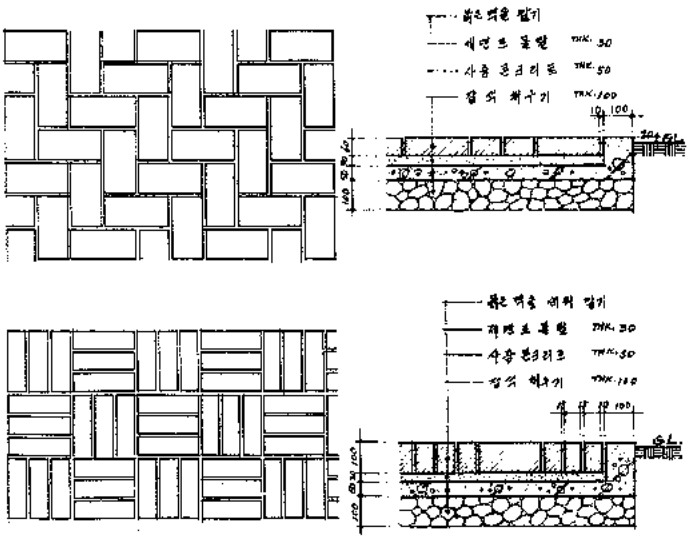
콘 크 리 트 포 장 (화강석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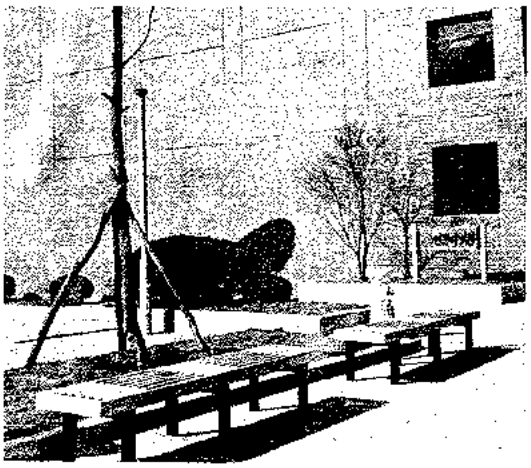
차 도 및 보 도 보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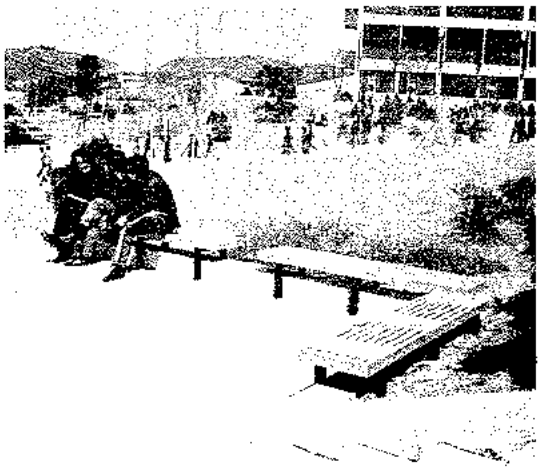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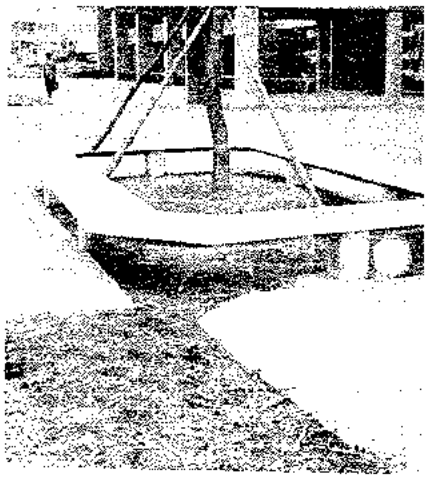
콘 크 리 트 포 장 (육석 보력 줄눈)



붉 은 벽 돌 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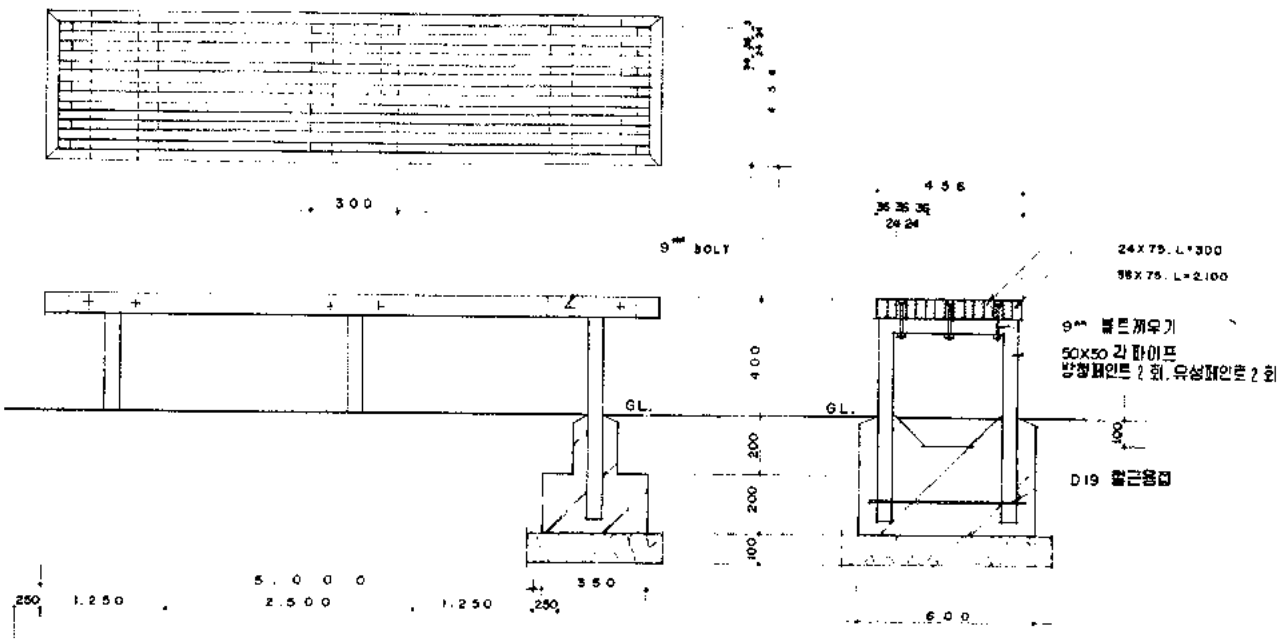
〈Bench〉

1 : 屋外裝置物은 그 種類를 豆論하지만 거의 大部分이 共通的인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campus의 環境空間의 規模에 比해서 그 scale이 작고 反面 그 數가 많아서 잘못 處理하면 環境美를 阻害하는 要素가 될수도 있다. 따라서 그 配置에 있어서는 可及的 여러 種類의 裝置物을 可能한限 合理的으로 한곳에 모아서 配置하므로서 그 視覺効果를 높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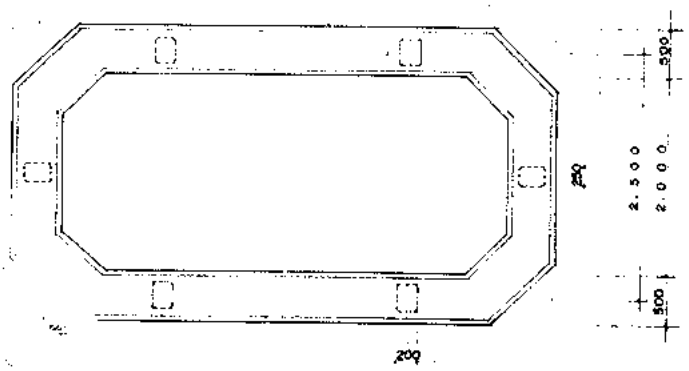
2 : 屋外裝置物中에서도 campus에 있어서 代表的인 것은 bench 라고 볼 수 있다. bench는 두가지 形態의 것으로 設計되다. 即 등판이 붙은 bench와 平床式 bench이다.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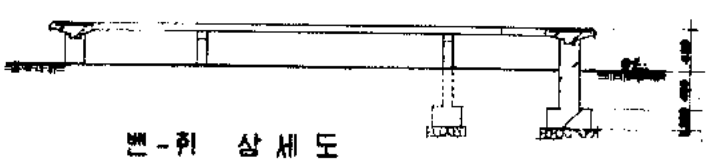
3 : 길게 連續되는 階段의 참에도 場所에 따라서는 bench가 設置된다. 지루하거나 피로를 느낄수 있음직한 場所에 놓이게 되며 單獨으로 設置하지 않고 몇個를 群으로 하여 놓이게 된다.

4 : bench는 또한 樹木과 함께 組合되어 놓이기도 한다. bench 는 나무의 保護柵 役割도 하게 된다. bench가 cenercte에 依해 製作되는 경우 앉고싶은 마음이 일수있게 정다운 色으로 表面이 處理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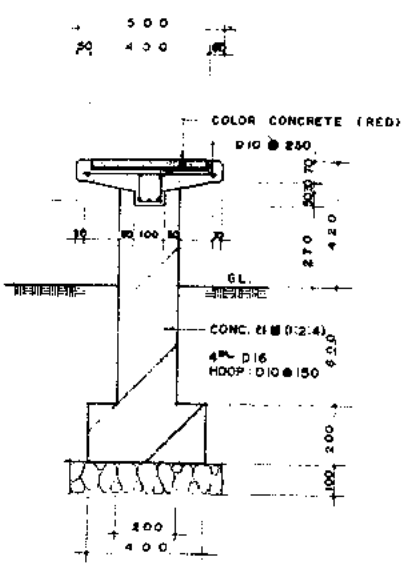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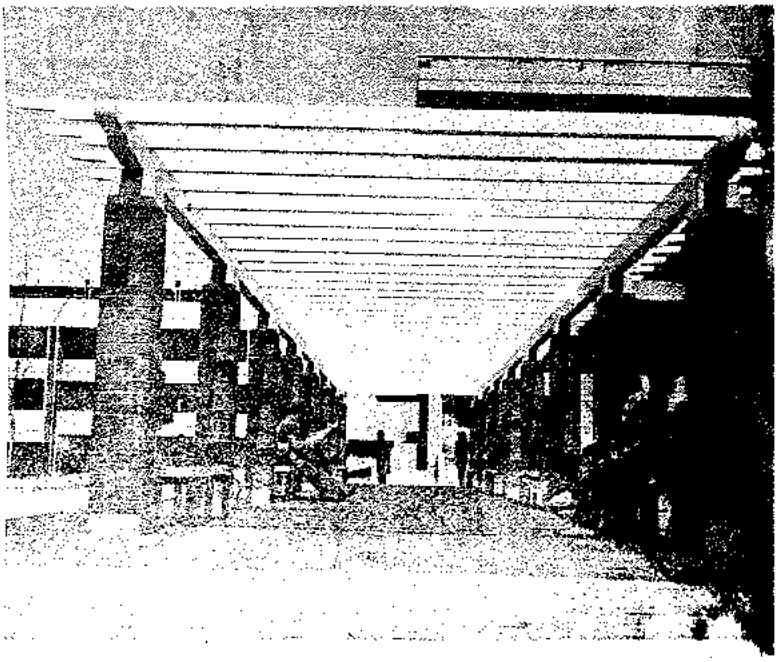
벤-취 상세도 SCALE : 1/20





벤-취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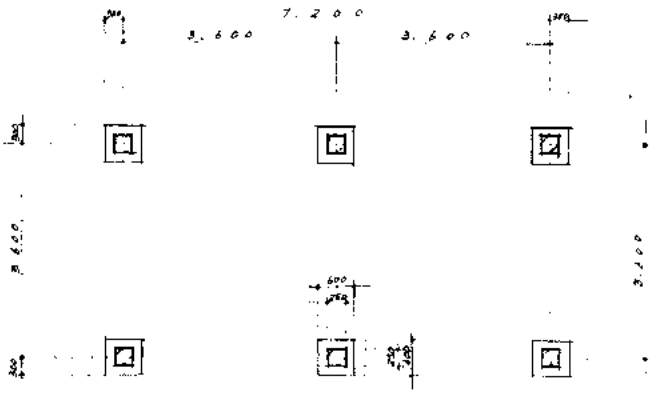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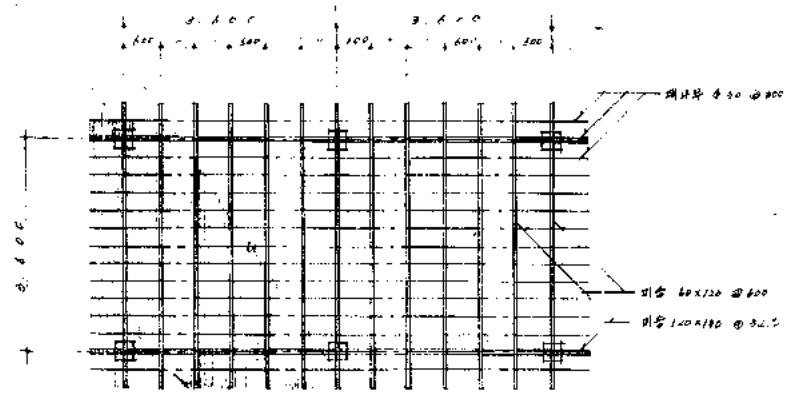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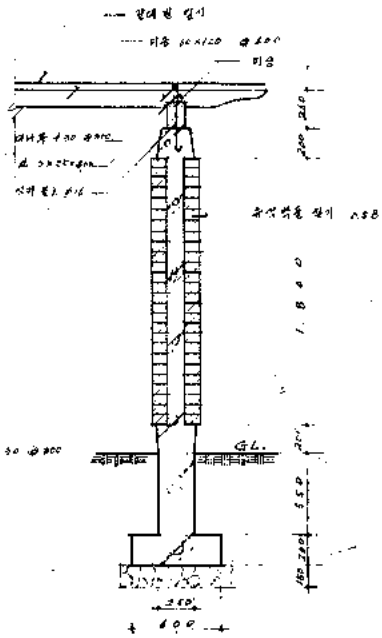
〈標識物〉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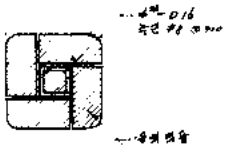
15－1 : 〈campus에 있어서 標識物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게된다. campus 案內板, 道路誘導sign, 建物標識板, 掲示板等 그 크기에 있어서나 表示될 內容의 性格에 있어서도 다른 屋外造景素要들보다 複雜하며 그 反面에 豊富하고 洗練된 構成要素가 될수도 있다. 色彩, lettering, 伝達할 內容을 包含해서 優秀한 design을 必要로 한다.〉 ①②

15－2 : 〈Pergola는 나무와 같은 環境調整要素가 되기도 하며 休息施設이 되기도 한다. 空間의 景觀性을 높여주는 要素가 되기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形態美와 그 配置 또한 重要하다.〉









住居機能에 対한 考察

〈李 文燮 譯〉

〔註〕

本內容은 1973年 10月 "스웨덴"에서 있었던 "住宅産業의 開発展望"이라는 심포지움중, 스웨덴 住宅研究所 技術課長 으로 있는 "Borelius Anna"女史의 발표내용으로서 住宅基準 作成에 고려하여야 할 事項을 項目別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資料를 例示하고 있다. 勿論 本基準과 資料가 우리나라 実情에는 맞지 않으나 接近方法과 平面계획, 空間構成等은 좋은 研究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住居基準은 現行 住宅標準, 施工方法 및 共同住宅의 그 事시스템 等에 適用되고 있는 住居機能에 対한 最少限의 諸般要求條件들을 綜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筆者는 現場콘크리트構造와 組立式 콘크리트構造等과 같은 가장 制限된 施工方法과 시스템을 본 住居基準의 타당성을 決定하기 위한 課題로서 採択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反対로 住居基準은 대부분이 단지 一時的인 것이다. 이 基準은 現狀에 對한 資料에 基礎하고 있을 뿐이며, 人間의 要求와 機能에 対한 궁극적인 基準에는 아직 요원하다. 人間的인 見地에서 볼 때 住宅에 対한 利用可能한 資料는 거의 없는 実情이며, 科学的으로 더 잘 表現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資料들은 客観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使用되고 있는 住宅은 社会的, 衛生的, 技術的, 美的 및 経済的 複合体 이므로 어떤 時期에 일정인에게 快適한 住宅이 제 3 자에게 살기 좋은 住宅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生活을〈-現在와 未來에 있어서까지도-〉同一한 것으로 계획하여 生命이 없는 껍질 속에 넣어버리는 우리 建築종사자들은 다시 한번 反省하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금 論하려고 하는 住居의 意味에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또는 建築物이 단지 周囲環境의 일부분이며, 周囲環境은 적어도 住宅自体보다는 住民들의 福祉와 個人의 発展에 더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建設部 建築課 建築係長)

自然環境과 그 現象, 住居와 建築物에서의 서비스施設, 交通手段等은 그러한 活動과 周囲에서 일어날 수 있는 社会的 感情을 위한 物理的인 前提條件을 構成한다.

建物의 配置, 等高線, 樹木과 既存構造物들은 주로 周囲環境에 影響을 주는 要素이다.

한 장소에서 다른 場所로 移動할 때, 周囲環境을 観察함에 依하여 얻어지는 한 個人의 経験은 移動速度에 따라 変化하며,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後日 그에게 다른 印象을 남기게 된다.

住居와 周囲環境은 그곳에 실제 居住하고 있는 동안이나 또 그 後日에 있어서도 住民들에 의하여 快適하게 느껴져야만 비로소 살기좋은 環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未知의 住宅을 위한 住居條件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住居基準等等의 方法으로 住宅政策, 계획, 設計, 施工, 住宅行政에 있어서 責任을 느끼고 임해야 할 것이다.

使用者가 未知의 사람이며, 그들이 자기가 살 住居와 周囲環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責任있는 関係종사자는 最少限의 住居條件, 機会 및 利用度를 決定해야 한다.

各国마다 住居에 対한 規定과 水準이 서로 相異한 것은 技術的, 経済的, 社會的 條件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最終的으로 定하여진 規定만이 아니라 잠정적인 試験도 住居基準測定의 좋은 方法이 된다.

公共의 福祉와 個人의 発展을 어떻게 測定하며, 最善의 住居機能과 適合性은 어떻게 決定하는가. 또한 계획과 設計의 基礎가 되는 技術的인 住居基準은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가. 우리는 무한히 많은 人間活動의 範囲를 어떻게 하여 限定되고 明白한 技術的인 모델속에 配置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와같은 일은 不可能한 일이다. 비록 모든 專門家들이 数学的인 正確性과 生活의 技術的인 様狀을 客観的으로 表現하여 보려고 꿈꾸어 보는 것이지만, 그가 技術的으로 正確하게 계획한 證明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직

도 現実에 대한 試行錯誤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크건 작건간에 그 계획이 経験에 依한 잠정적인 活動임과 동시에 계속적인 変化의 過程에 있으며, 모든 大衆에게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時間과 空間에 依한 명확한 狀況에 연결되어야 함을 認識하는 것이다.

理想的인 規定이란 없다. 우리가 制約에 억매이지 않는 住居基準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神話이다. 만일 여러 利害 関係人間에 分爭이 없고, 公衆의 관심인 弱者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면 基準이란 필요치 않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意味에서는 強者에게 義務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住宅基準은 直接的인 計劃段階에 있어 명확하고도 実際的으로 表現되어야 한다.

그 基準들이 理論的이든 経験的이든 또는 技術的 解決의 機能이라고 表現하든간에 最終的으로는 技術的 解決策에 対한 選択의 問題이다.

"적당한 防湿"이라든지 "全体的이고 空間的"이라는 따위의 表現은 항상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外部마감 材料나 방의 크기에 따른 相対的인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허용치 않는 것은 基準内容에 対한 強者의 我田引水式 解釈에 대한 모든 장애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모든 個人의 福祉와 発展에 対하여 言及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주로 "스웨덴"에 있어서의 住宅條件과 測定方法에 対하여 기술하고져 한다.

"스웨덴"에 있어서 住宅建設에 대한 政府支援의 條件은 自然資源의 効果的인 管理에 두고 있다. 既存의 文化와 自然環境을 利用하며, 環境汚染을 피할 수 있도록 建築中이나 그 후에 消費되는 資材와 에너지를 고려하여 評価한다. 国家에서 建立하는 住宅에 있어서 이러한 條件은 더 넓게 오랜기간 이루어져야 한다.

許容対象		추천 및 보상対象	
安全	最少要求條件	安全	終局要求條件
衛生		衛生	
機能		機能	
		資源管理	
		技術的評価	

將來의 계획段階에 있어서 合理的인 資源管理를 보장하기 위해서, 既存環境에 대한 모든 새로운 建設과 침식은 調整과 変化를 通하여 보다 나은 可能性을 갖고 改善되어야 한다.

永久材의 使用, 특히 콘크리트構造는 再建築과 再使用이 可能한 軽量콘크리트로 대치되어야 한다.

또한 既存環境에 対한 大型의 회복할 수 없는 침식은 最少化되고 改善되어야 하며 가급적 피해야만 된다.

建築物과 構造方法은 融通性과 適応性이 있도록 하여 時間과 空間에 있어 変換계획이 可能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制限된 領域内에서 이러한 일은 커다란 野望을 意味한다.

즉, 建築物〈内外에 있어서 —〉은 可能한한 軽量과 適応性있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建築物과 単位平面의 設計時에는 変換使用을 고려하여 研究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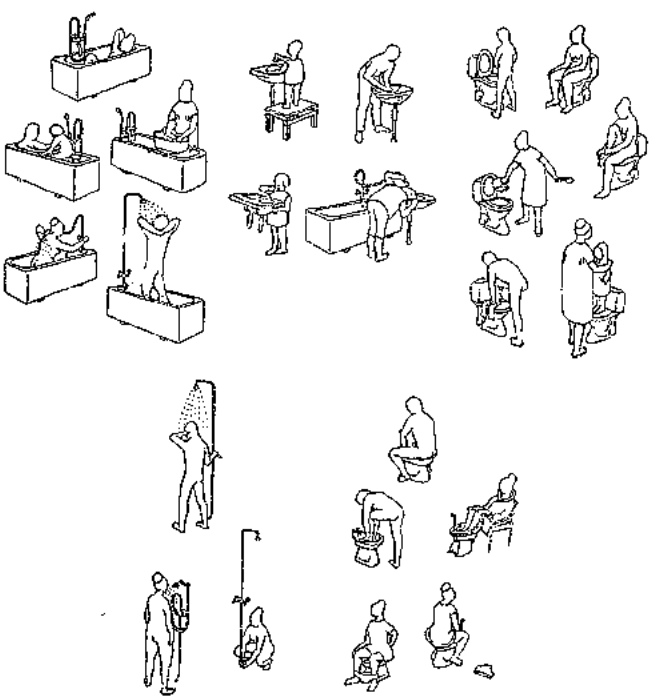
스웨덴 口立住宅研究所에서 住居基準을 作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融通性의 重要性에 대하여 매우 깊이 認識했으나 現実의 제한성에 맞추기 위하여 협상을 하여야만 하였다. 우리는 단지 위에서 기술한 方向에 겨우 조금 닥아섰을 뿐이었다.

스웨덴의 建築物은 아직도 環境을 침식하는 大量의 再使用할 수 없는 構造体이며, 建築中이나 使用中에 있어서 原資材와 에너지를 消費하는 構造物이다.

우리는 항상 機能의 매우 초보적인 標準과 씨름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資源의 効率的 使用과 適応性있는 住宅生産에 対하여 合理的인 提案을 하였으나 이것들이 建築法이나 차관규정에 適用되리라고는 믿지않고 있다. 단지 参考資料로 利用될 것이리라.

이제 基準作成過程에 対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즉, 評価方法과 適用될 條件에 어떻게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물론 제일 먼저 검토할 対象은 수년간 수집한 人体에 対한 経験과 研究이다.



〈그림 1〉 人体活動에 따른 所要空間

가장 중요한 研究課題는 人体와 日常의 家事活動 에서 일어나는 空間과 設備기구의 크기이다. 〈그림 1 參照〉

住宅은 家具, 設備 및 其他 家事用品으로 設置된다.

移動性家具는 使用者에 의하여 선택되며 反面 設備 (水道配管 等), 固定家具(찬장, 선반等)와 家事用品(냉장고, 난로等)은 入住者가 入住하기 전에 設置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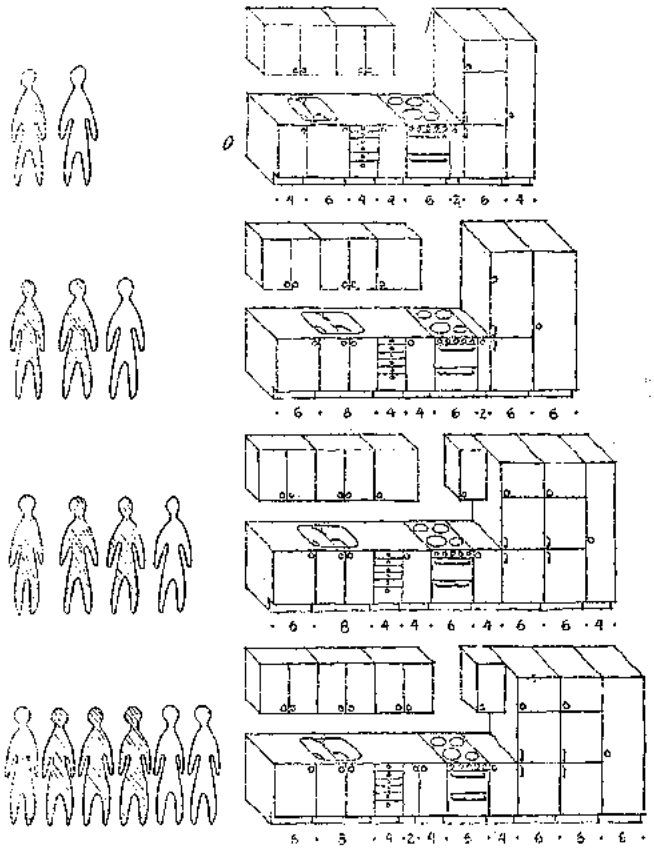
建築物이 公共차관에 의한 것일 때는 設備, 固定家具, 및 家事用品은 標準規格이어야 하며, 建築標準委員会 의 추천에 의해 선택하였다. 〈그림 2 參照〉

房에 対한 機能의 研究, 특히 부엌과 욕실에 対한 機能의 研究는 世帶数의 規模와 構成人員에 필요한 家具와 設備의 단위, 크기 및 수량을 決定하는데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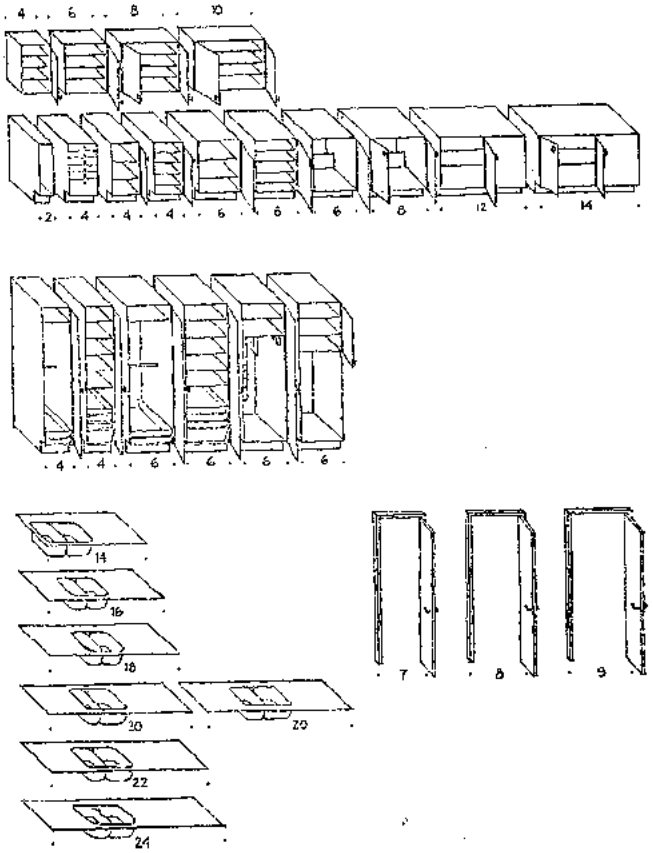
建築研究所와 消費者 協会는 이러한 機能研究와 수량산정에 협조하였다. 〈그림 3 參照〉

住居単位가 不具者, 盲人, 老弱者, 아레르기性住民, 其他 모든 사람에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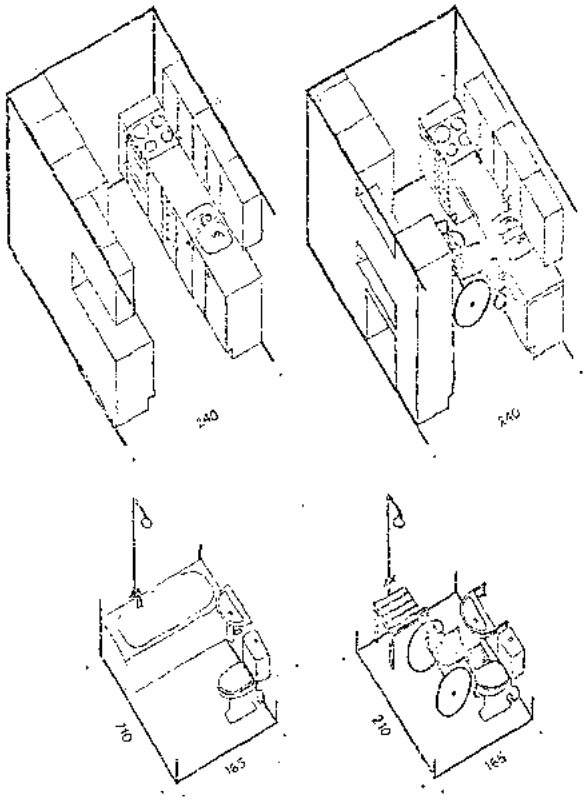
부엌, 욕실, 出入口, 複道, 出入口에서의 휠체어에 필요한 空間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不具者에게도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資料는 不具者研究所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그림 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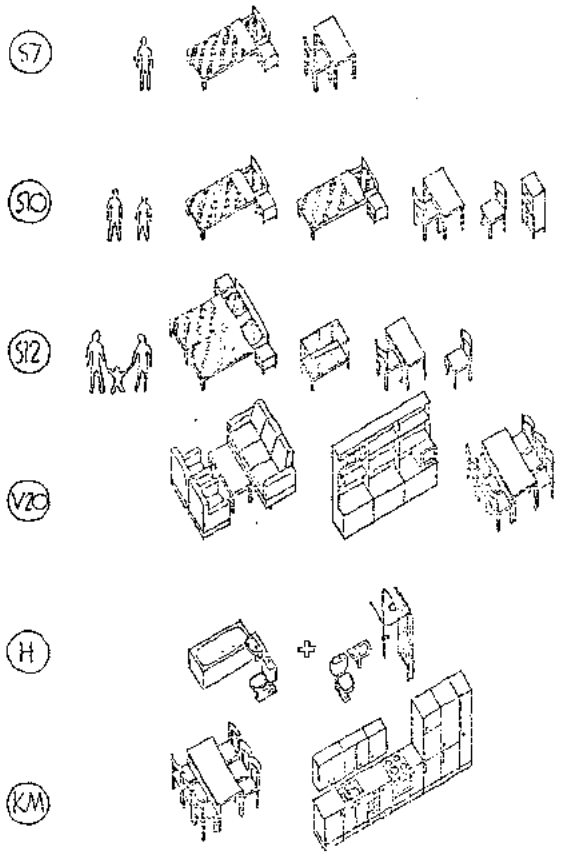
〈3〉 家口員数에 의한 機能研究와 数量決定



〈그림 2〉 標準家具의 크기



〈그림 4〉 不具者의 利用性과 機能研究



〈그림 5〉 家口員數에 依한 移動 및 固定家具

住宅이 얼마나 効用있게 使用되는가를 試驗하기 위하여, 적절한 家具와 設備를 實驗的으로 設置하였다. 이것은 단지 住居基準測定을 위한 것이었으며 一般人을 위한 住宅의 設備를 例示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實驗을 통하는 것보다 住居平面計劃의 有用性을 알아내는 더 좋은 方法은 없는 것 같다.

재래식家具를 고려한 평면도 생각할 수 있으나 現代式으로 設計된 平面에 使用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家具를 선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經驗的인 것과 硏究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家具는 스웨덴과 유럽에 있어서의 文化樣狀에 의한 産物 이다. 設備에 있어서는 標準規格과 機能에 기반을 두었다.

家口員數에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量의 移動家具와 固定家具를 設置하느냐는 住宅政策의 問題이며, 住宅硏究所와 都市計劃硏究所에서 그 基準을 정한바 있다.
〈그림 5 參照〉

또한 한개의 房이나 住宅에 대하여 몇명이 居住하는 것이 過密度가 아닌 合理的인 것이 되느냐도 고려의 対象이 되었다. 스웨덴에 있어서 住宅計劃時 부엌과 居室을 제외하고 한방에 2人이상이 居住할 때 過密住宅으로 간주한다.

過密度基準

基準1. 부엌을 제외하고 한방에 最大로 2인이상 이 居住할 때(통계 조사 목적을 위한 現行過密度 算定方法)

基準2. 부엌과 居室을 제외하고 한방에 최대로 2인 이상이 居住할 때. (現行 計劃 基準)

最少住居用방의 크기는 17m² (建築法 第47條)

따라서 住居空間은 家具의 허용량과 過密度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構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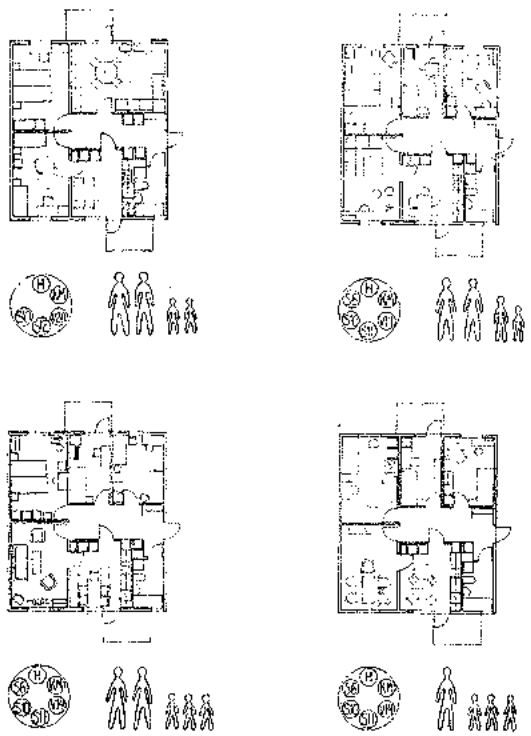
서로 다른 環境, 生活樣式을 가지는 家口에 있어서 空間構成과 個人空間 및 公共空間의 선택의 가능성을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設計基準을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家具와 設備內容뿐만 아니라 空間構成과 平面計劃이라 하겠다. 〈그림 7 參照〉

그러나 住居基準은 技術的開発程度와 現行의 施工方法과 동떨어져서 따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要求條件을 만족시키는 平面計劃과 空間構成은 現行施工方法과 基準에 適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제한된 建築시스템과 基準은 決定 的인 役割을 한다.



〈그림 7〉 家口員의 構成에 의한 平面計劃 욕실 부엌·식당 居室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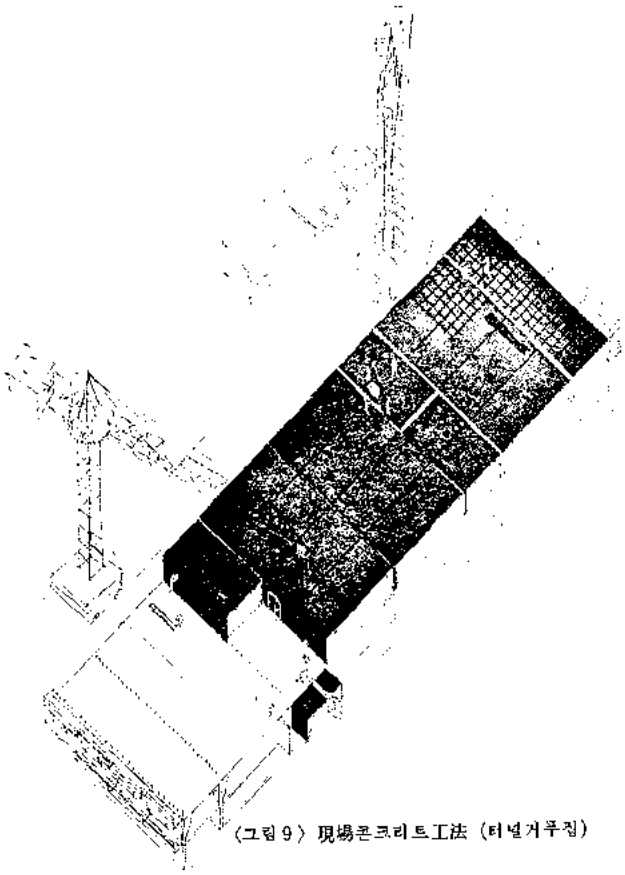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중에 거푸집을 使用하는 現場콘크리트 工法과 組立式構造가 있다. 3M모듈을 시스템은 水平面과 垂直面에 대한 設計의 基準이 되며 새로운 기준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이 시스템과 法則에 따라야 한다.

또한 義務的인 住居基準은 住宅建設에 対한 費用의 고려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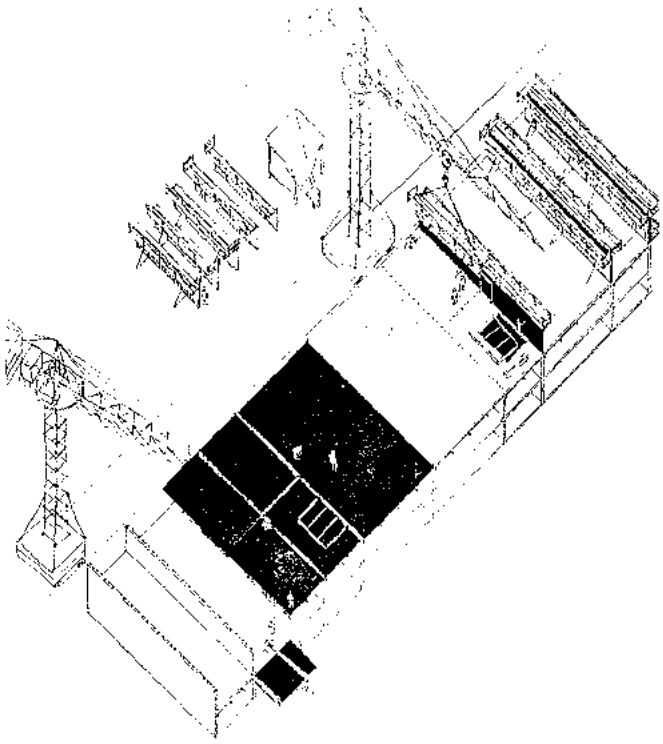
모든 이러한 試驗과 實驗을 통하여 住宅研究所와 都市計劃研究所는 가능한한 간단하고 명백한 住居基準을 작성하였다. 최종 결과는 住居基準에 대한 研究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완성되지 않은 條件이 거주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종종 놀라움을 주었다. 그들은 이 기준이 너무 固定的이고 細分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最善의 結果에 対한 熱望과 住宅設計의 問題를 理解하는 建築家와 技術者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

사실 이 基準은 合理的인 設計에는 많은 自由를 부여하나, 매우 좁거나 깊은 방이나 단위 아파트 平面, 단 한개의 외벽을 갖는 아파트, 많은 복도공간을 갖고 있으나 방사이의 프라이버시를 고려치 않는 設計에는 많은 제약을 줄 것이다. 〈그림 8, 9, 10, 11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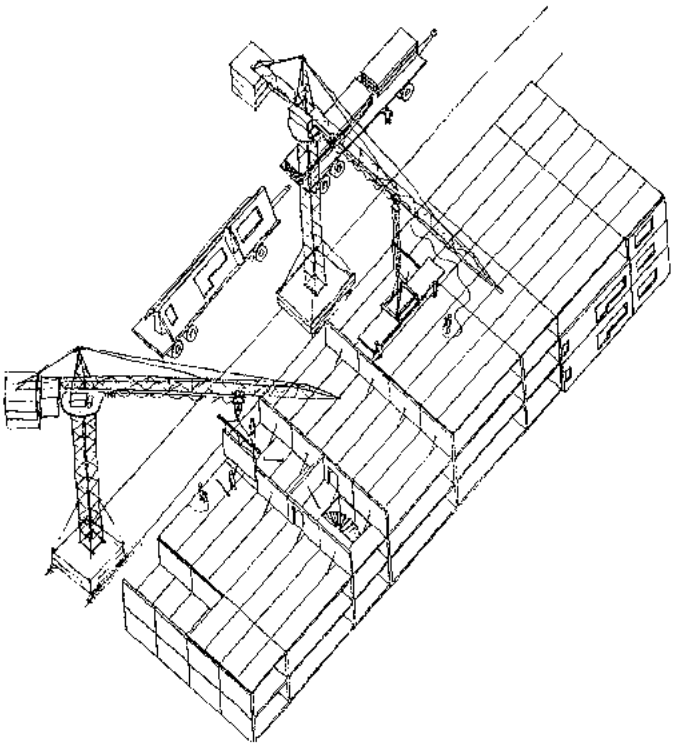
〈그림12, 13, 14〉는 家具 및 設備의 선택과 合理的 平面計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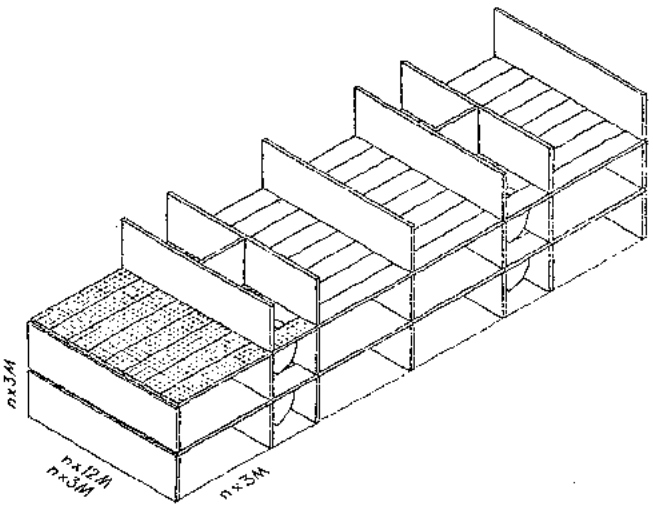
〈그림 9〉 現場콘크리트工法 (터널거푸집)



〈그림 8〉 現場 콘크리트工法 (와벨거푸집)



〈그림10〉 組式 部材의 組立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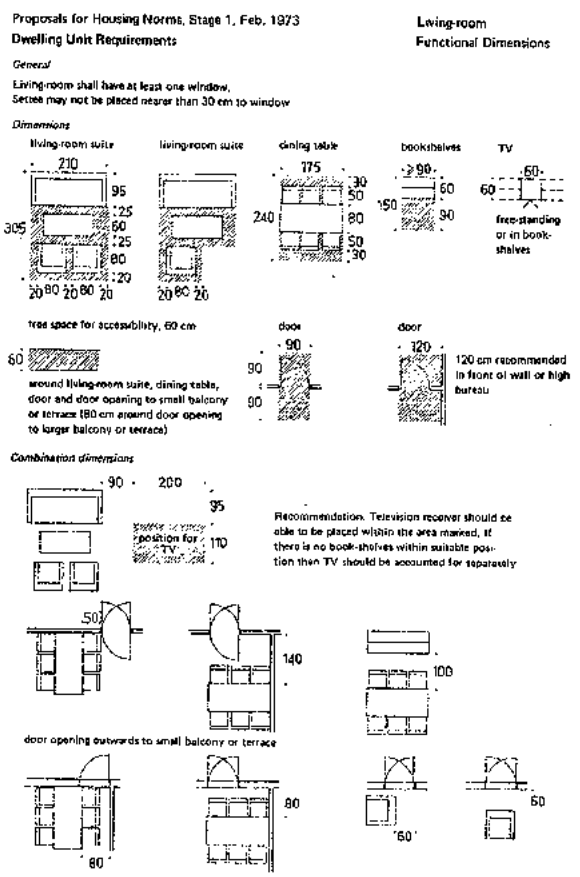


〈그림11〉 3M을 利用한 標準모듈을 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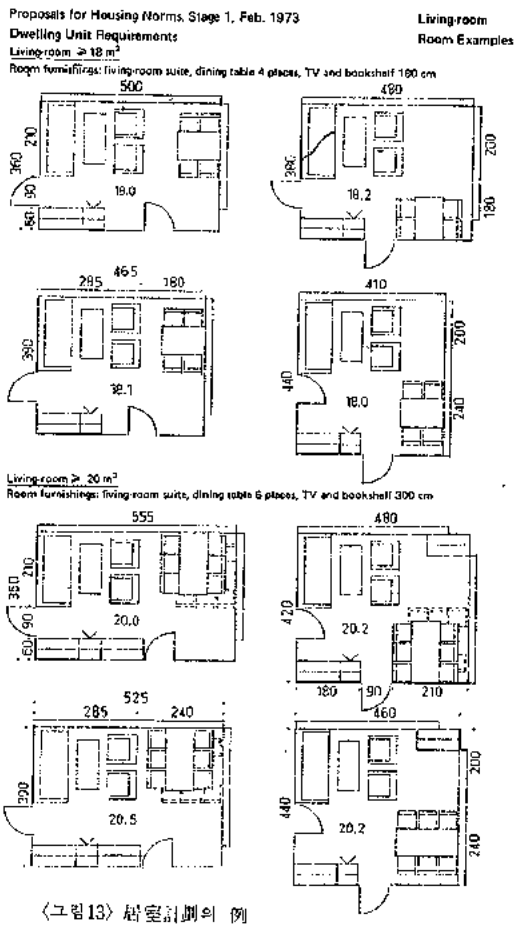
이例示는 아파트의 居室, 침실, 부엌, 욕실, 出入口, 倉庫등에 대한 計劃이다.

〈그림15〉는 3개의 방과 1개의 부엌이 있는 아파트의 例이며, 이 아파트의 面積은 82.5m² 이다.

〈그림16〉은 여러형의 건물깊이 (9.6, 10.8, 12m)와 부엌, 발코니의 位置등에 따른 平面形態에 대하여 試驗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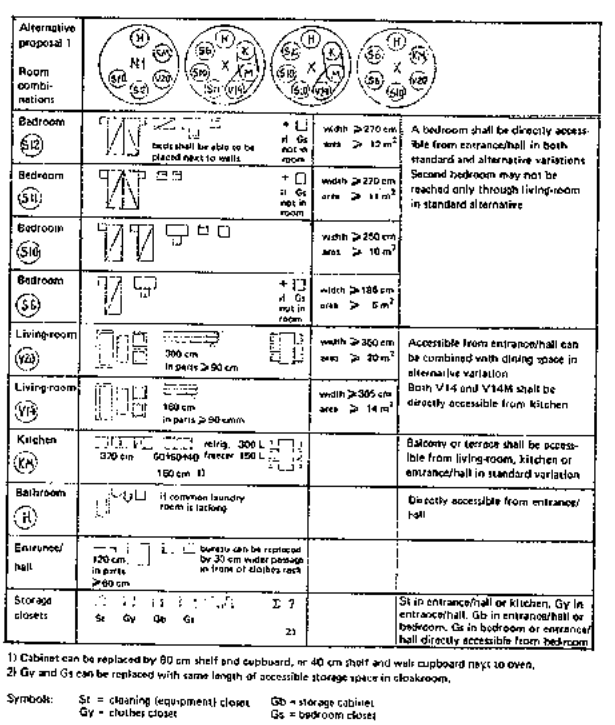
〈그림12〉 居室家具의 機能과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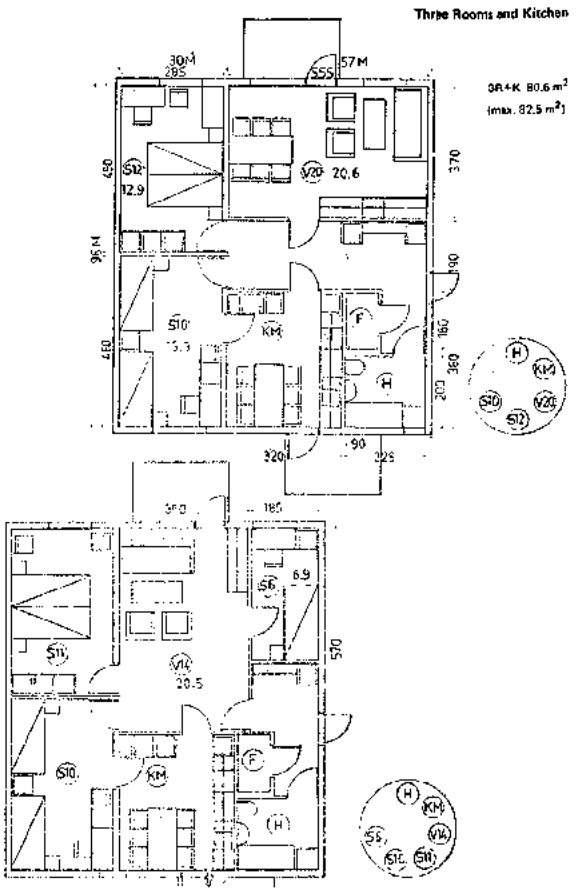
〈그림13〉 居室計劃의 例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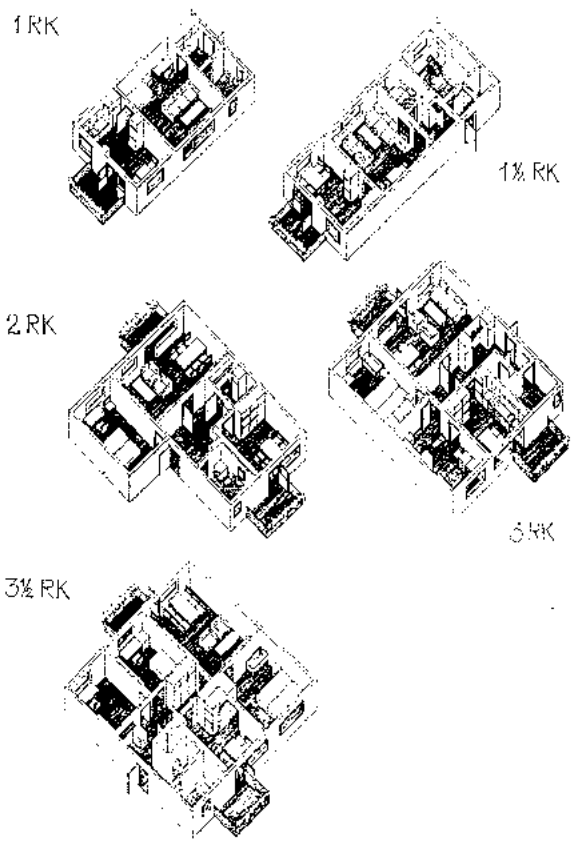
여기서 가능한한 한개의 외벽을 갖는 아파트형태는 지양하였다. 모든 단위아파트 平面은 발코니와 창고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性向과 아파트 크기의 類型에 따라 〈그림17, 18〉과 같이 組合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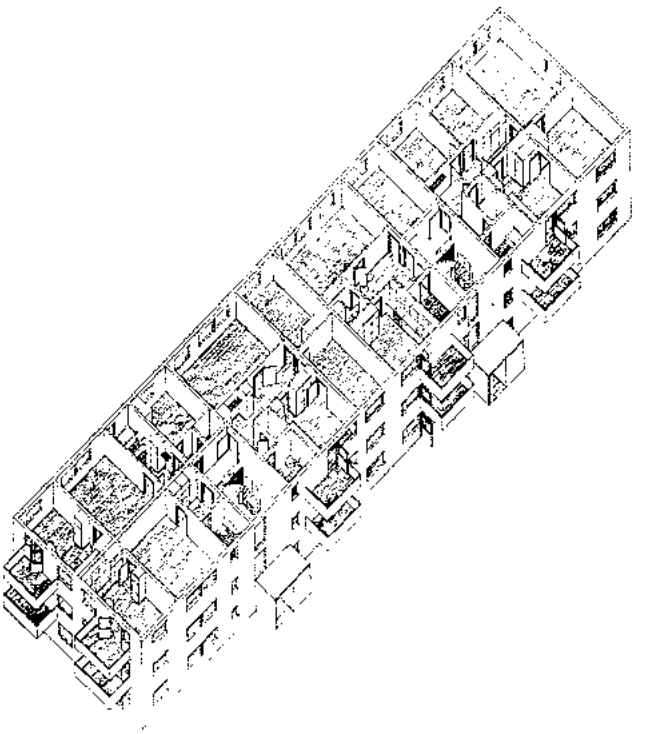
〈그림14〉 單位아파트의 計劃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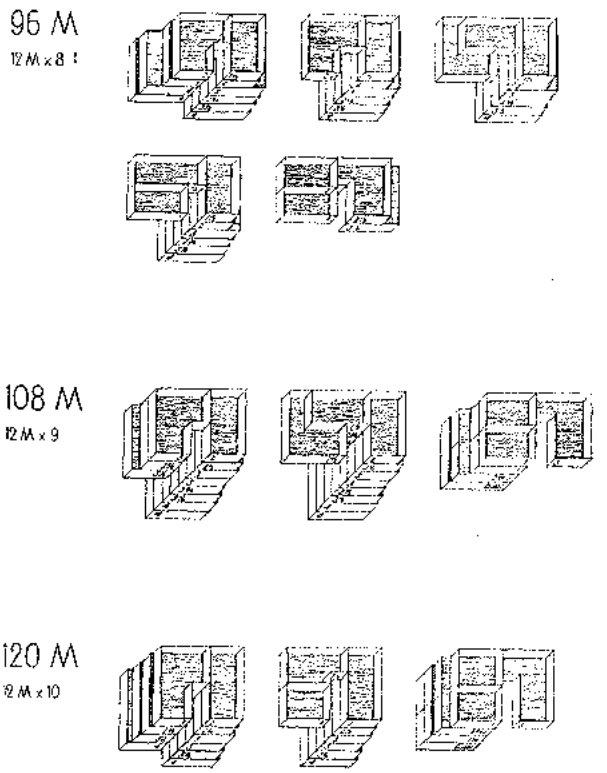
〈그림15〉 아파트平面計劃의 例



〈그림16〉 標準아파트平面의 例



〈그림17〉 계단홀式 아파트의 例



〈그림18〉 단위아파트平面計劃의 組合

우리들의 옛 建築과 그 現代化 2

朴 容 淑

4.

여기에서 陰陽五行의 思想, 이른바 샤마니즘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 놓을 시간은 없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대략 다음과같은 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샤마니즘이란 곧 三皇五帝의 정치를 말하며, 그러한 정치, 정확하게 말해서 神託政治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三皇과 샤만과 음양오행이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관계는 곧 三·一哲学 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데면 三極(三才)의 原理가 그것이다. 三極이란 곧 天·地·人으로서 이 세개의 원리가 存在의 궁극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즉, 세개의 자리가 있으므로해서 만물은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存在의 存在理由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자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三이 아니라, 三이 있으므로 해서 곧 하나가 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無가 되는 그러한 三인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一이 되고 無가 된다고 하더라도 生命의 世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세 자리인 것이다.

첫번째 자리가 天(男性的)으로서 陽이다. 陽은 原因행위를 하는 것이며 朱子学은 이를 理라고 한다.

두번째 자리가 地(女性的)로서 陰이다. 陰은 受動的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주자학은 이를 또 氣라고 표현한다.

세번째 자리는 人(中性的) 으로서 生命이다. 生命은 곧 陰과 陽의 결합으로 인해 탄생하는 結果的 行為이므로 이를 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세개의 자리를 政治的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三皇五帝인데, 三皇은 곧 天皇, 地皇, 人皇의 세 한울임금을 가리킨다. 또 음양오행이라 할 때에도, 첫째 자리가 陽, 두번째 자리가 陰, 그리고 세번째 자리가 곧 五行의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샤만이라는 것은 곧 세 임금의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임금이 각기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른바 三權分立의 정치를 곧 샤마니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은 여기에서는 약한다. 다만 이때의 三權分立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가에 대해서 아는 일은 매우 유익할것이다. 三皇에 있어서의 첫자리의 임금인 天皇은, 立法權 이며, 두째 자리의 임금인 地皇은 生命權이며 세번째의 임금인 人皇은 行政權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세개의 권력이 서로 다투지않게 잘 조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샤만(巫堂)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 : 美術評論家)

이러한 풍경을 建築的인 視角으로 바꾸어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古代神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되는 宇宙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주목이야 말로 이러한 三·一 哲学을 가장 요령있게 나타내 보일수 있는 하나의 見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宇宙木, 그것은 세개의 부분으로 구별된다. 즉,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그것이다. 이때의 뿌리가 天이며, 줄기가 地이며, 잎사귀가 人이 됨으로 결국 한 개의 나무는 곧 宇宙를 상징하는 동시에 三皇五帝의 神政的理念을 그대로 表像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의 檀君神話에 등장하는 神檀樹가 바로 이러한 宇宙木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宇宙木은 人体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오히려 우리들의 人体에서 三·一의 원리, 이른바 음양오행의 세계보다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人体의 머리 부분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며 몸통이 줄기, 그리고 팔다리가 잎사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뿌리(頭)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는 곧 뿌리가 있고 또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잘 박힘으로해서 줄기는 자라고 잎사귀는 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龍飛御天歌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쎄하고 노래한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기반을 나무의 뿌리에다 비유하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宇宙木을 말하게 된 것은 바로 神政時代의 政治란 이러한 宇宙木的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라의 社稷이 있다거나 혹은 임금이 거처하는 그러한 建築物은 반드시 나무의 뿌리로 보았으며,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건물은 반드시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건설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머리로서의 建築은 가장 성스러운 건축이므로 반드시 특수한 修飾(裝飾性)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같은 머리로서의 건축에서도 여러가지 職能에 따라, 이를테면 귀,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축일 경우, 반드시 거기에 알맞는 意味性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神政時代의 이른바 建築에 있어서의 히에라르기적 狀況이 형성되는 理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뿌리와 줄기가 잎사귀로 구분되는 神政時代의 建築的 히에라르기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表現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럴것이 우리는 宇宙木的인 질서를 통해서 建築이 하나의 人体와 같은 体系를 이루고 있다는 事実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샤마니즘(大倧教)의 바이블인 우리들의 〈三·一 神話〉에는 뿌리(天), 줄기(地), 잎사귀(人)를 각각 ○, □, △의 세 図像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美術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결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基本的인 美術言語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옛 建築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도 이 세계의 図像을 理解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것이 옛建築의 裝飾性, 이른바 意味性의 表像은 바로 이 세개의 図像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세계의 基本的인 図像에 대해서 具体的으로 말할 여유는 없지만, 가령 우리들의 圓八天井의 建築様式은 물론 六角亭이나 八角亭이 주는 形態는 유럽의 돔様式의 建築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天, 이른바 立法의 理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神殿이나 宮殿의 柱廊様式은 기본적으로 □型, 즉 生産의 理念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破風様式은 바로 △型을 그대로 옮김으로서 결국 人의 理念인 行政을 表像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의 図像은 결코 기하학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型은 天이므로 나르는 鳥類로서 번역이 되며, 또 地로서의 □型은 기어다니는 動物로서 번역이 되고 人으로서의 △型은 나르는 새와 기는 짐승이 합쳐진 모양의 怪獸로서 번역이 된다. 이러한 展望에서 보자면 가령, 天皇이 거처 한다거나 혹은 立法을 관장하는 그러한 職能의 건물에는 반드시 ○型의 図像이 고려되었을 것이며, 地皇이나 또는 그와 맞먹는 生産的인 職能을 상징하는 建物에는 반드시 □型의 図像, 그리고 人皇이나 그의 行政的인 職能을 상징하는 건물에는 또한 △型의 図像理念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例証으로서 지금의 寺刹建築이나 宮殿建築을 들 수 있다. 즉, 그러한 建築들은 반드시 이 세개의 기본도상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붕은 새의 날개, 몸통은 □型, 기둥은 짐승의 다리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몸통과 지붕사이에는 반드시 龍象이 나타나 있다. 이때의 龍이란 물론 나르는 새와 기는 짐승이 복합된 동물로서 그것은 하나의 可能性의 이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生을 의미하는 五行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寺刹이나 宮殿建築이 이렇게 세개의 기본도상을 한꺼번에 表像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샤마니즘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결코 三極이 하나로 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개의 기본도상이 각기자기의 고유함, 이른바 個別的인 職能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目的을 위해 協業(調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원형적으로는 반드시 ○, △, □의 図像은 각기 자기의 특수한 건축물을 지녔던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샤마니즘이 분열, 쇠퇴함으로서 결국 이 세개의 図像은 三位一体로서 뭉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개의 図像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결국 政治的으로 三権分立이 아니라 独裁政治, 이른바 專制君主政治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옛建築이 宇宙木(人体)으로 비유되는 神政的世界像에 의해 展開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요컨대 우리들의 옛建築은 하나의 体系, 즉 空間的으로 하나의 意味網에 의해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展望임에도 불구하고 옛建築을 하나의 單位建築物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옛 건축은 論理的으로 무엇인가 완벽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개의 건축물이 우주목으로서의 체계를 이룩한데 종속됨으로서 스스로 全体性을 승인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를테면 개개의 건축이 특수한 職能을 맡고 있으므로해서 全体性이 강제할 수 없는 어떤 個体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적인 論理의 표현은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風水地理上의 원리와 또한 図像学的인 修飾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古典的히에라르기의 文脈을 승인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건축의 진실을 정당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三皇五帝的, 혹은 음양오행적인 히에라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지체할 여유는 없지만 아무튼 거듭확인 할 일은 空間的体系가 우리들 옛 건축의 가장 두드러진 本質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옛 건축을 現代化한다고 할 때, 맨처음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이 空間的体系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때의 空間的体系란 물론 음양오행사상을 기반으로하는 政治体制나 社会構造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世思観에 대한 우리들의 立場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神政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새삼, 그러한 세계관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여러가지로 無理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묵살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유혹받는바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세계관이라는 말이다.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간에 個人主義時代에사는 現代人에게 있어선 세계관이란 결코 뿌리칠수 없는 매력적인 말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변엔 철저히 개인주의(自由主義)신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건축을 오늘에 되살리는 문제는 먼저 개인주의냐, 世界像이냐하는 立場부터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에 선뜻 해답을 내리기에는 그리 쉽지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 그러한 문제를 선명하게 가려내기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정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아직 우리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個人主義나, 그 밖에 어떤 분명한 世界像도 가져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다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이든 世界像을 거부하고, 個人主義的人生観을 택하게된다면 옛 건축에서 우리들이 물려받을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옛 건축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이며 또한 그 공간은 오늘날 메타포리즘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思隈空間같은 성격으로 특징 지워질 수가 있다. 이미 이 점은 宇宙木的空間으로서 지적되었지만 가령, 宇宙木的体系를 고려하지않는 이를테면, 한채의 民家를 놓고 보더라도 이 점은 거의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말 할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된 바이지만 우리들의 전래의 民家構造는 결코 밀폐된 공간이 아니며, □字型의 마당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사람이 잠자는 방까지도 종이를 바른 문을 택함으로서 어디까지나 개방적인 요소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民家에 있어서 개방적인 요소, 이를테면 思隈空間的요소는 마루와 마당이다. 이 마루와 마당은 결코 個人的인 生活을 目的으로 하는 오늘날의 캘슐적인 建築概念으로서는 理解할 수 없는 空間인 것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옛 사람들이 이 마당과 마루를 어떻게 使用했는지를 알고 있다. 한마디로 指摘하자면 그것은 公務的行為의 空間이며 또한 共戯的行為의 空間이기도 하다. 이러한 性格은 옛날의 관아(官衙)의 풍경이 아주 적절한 例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평범한 가정일찌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옛 가정생활은 그것이 곧 三綱五倫의 規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라의 어버이는 임금님이지만 가정의 어버이는 곧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더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요컨대, 우리들의 옛건축은 철저히 비개인적인 것이므로 거기에서 개인적인 건축미학을 끄집어 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면을 부활시켜 보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그만이다. 이미 30年代에 朴吉龍은 우리들의 民家를 個人的인 次元에서 수정을 가한 일이 있다. 그의 수정은 결국 思隈的인 공간이었던 마루를 창문으로 막아버림으로서 마당과 마루의 상호 지향성(相互志向性)을 파괴해 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렇게함으로써 그는 우리들의 民家를 완전히 캘슐적인 空間建築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적해서 그것은 전통의 부활이 아니라, 전통의 말살을 의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時点에서 個人主義的인 建築美学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空間的인 体系, 이른바 世界

像을 택하기로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역시 이 점이야말로 우리들이 한바탕 열을 올려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되풀이 지적하지만 우리들의 옛 건축은 陰陽五行思想을 근간으로 하는 宇宙木的 世界像이 그 美学的인 골격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注目할 점은 宇宙木的世界像, 이를테면 宇宙木的空間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陰陽五行思想이란 과학적인 원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陰陽五行은 機能主義精神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易象으로 말하자면 陰陽五行은 공기(바람), 불, 물로 표현이 되며, 이때의 공기가 陽, 불이 陰, 물이 五行이 된다. 따라서 옛건축은 本質的으로 이 세가지 原素내지 原理에 근거하고 있으므로해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 꼬르·뷔제가 주장했던 기능주의건축의 원리와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실감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는 더 있다. 즉, 음양오행은 형태적으로는 宇宙木을 나타내며 內容的으로는 人体로 나타난다. 즉, 人体의 모든 기관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서 설명되며, 그러한 설명은 또한 基本的으로 空気, 불, 물의 세가지 原理에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점도 우리는 꼬르·뷔제의 機能主義 建築思想에서 発見하게 된다. 그러므로 꼬르·뷔제가 새로운 建築은 새로운 都市計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도시를 하나의 機能的인 体系로 보았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個人主義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世界像을 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꼬르·뷔제의 이러한 西欧的 建築観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옛건축을 다시 생각한다고 할 때,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空間体系와 機能主義이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형식의 空間的体系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都市空間의 問題가 될것이며 어떤 의미에 있어선 메타프리즘의 문제가 된다고도 말할수 있게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機能主義의 問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옛건축은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즉, 都市空間의 人体化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공기에 해당하는 建築物은 머리에, 불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가슴에, 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팔다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때의 공기란 물론 정신적인 것이며, 불은 생산적인 것이며, 물은 실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옛 建築, 이른바 宇宙木的空間建築에 있어선 반드시 空気에 해당하는 建築物은 乾軸인 南山에다 建設하였으며 불에 해당하는 建築은 또한 坤軸인 北川가에다 建設하였다. 檀君의 神市建設은 바로 이러한 宇宙木的空間建設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러한 모델을 찾자면 그것은 당연히 慶州의 南山과 半月城一帶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南山의 수많은 절터야말로 人体의 머리, 즉 空気의 空間이며 半月城一帶의 지역이야말로 불의 空間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半月城에서 昔脫解가 治匠을 했다는 전설은 바로 그곳이 生産의 建築物이 있었다는 한 암시이기도 하다. 어쨌던 이러한 풍경은 모두가 우주목적공간에 있어서의 機能主義의 様相이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그와 똑같은 의미의 기능주의方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옛건축의 機能主義가 우리들의 都市空間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아주 貴重한 経験이 될 수 있다는 事実을 인정하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美国의 現代建築에서 제기되고 있는 〈背景建物〉과 〈前景建物〉의 概念은 바로 이러한 論議의 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6

都市空間과 機能主義의 問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必要가 없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심벌리즘(像徵主義)에 대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옛 建築이 지니고 있는 형태나 색채나 그리고 갖가지 裝飾을 어떻게 理解하며 또한 그것을 어떤 方法으로 되살려야 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앞에서도 이미 指摘한바 이지만 우리들의 옛建築에 있어서의 형태나 색채나 혹은 화려한 裝飾은 모두가 陰陽五行의 원리를 表像한 것이며 神政的으로는 立法, 生産, 行政의 三極的인 權力의 職能을 각각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한 채의 건물을 宇宙木的으로 分析하면 지붕, 집둘, 용마루가 각각 天, 地, 人에 해당되며 裝飾的으로는 지붕이 나는 짐승(鳥羽), 집둘이 기는 짐승, 용마루가 龍으로서 각기 表像된다. 이때의 表像이란 물론 장식적인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새가 立法精神의 상징, 네발짐승이 生産精神의 상징, 그리고 龍이 行政, 이른바 実践精神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순수형태로서 가령 새가 △형, 네발짐승이 □型, 龍이 △型으로 表像되기도 한다. 실제로 古代그리스나 유럽의 神殿 (教会建築) 들은 이러한 상징성을 그 기본적인 建築意慾으로 삼고 있었음이 점차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古典的인 상징주의와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가령 루이스·칸의 □△○型의 상징주의도 결국 그것의 원천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三極的権力을 나타내는 図像言語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 이 세개의 순수도상, 이른바 기하학적도상은 단군시대의 神誌文字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한글의 基本子音도 이 세개의 기하학적도상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문제는 이 세개의 도상이 분명히 立法(天), 生産(地), 行政(人)의 세 원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장차 古代文明을 再照明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않

는다. 물론 이 세계의 기하학적 기본도상은 우리나라의 샤마니즘의 正統的인 宗教인 大倧教의 바이블인 〈三·一神話〉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학자들이 샤마니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밝혀지는 셈이다. 즉, 그들이 원하는 샤마니즘의 바이블은 바로 韓半島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를 바른길로 돌려세워 보자. 우리들의 옛건축이 지니는 셈버리즘의 正体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셈버리즘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이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며 스스로 미래가 정립될 때, 자연스럽게 옛 셈버리즘은 활용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국립박물관〉이나 혹은 〈서울女商〉과 같은 괴이한 建築을 보게 되는 것이다. 国立博物館은 흔히 指摘되는대로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의 석조단에다 法住寺의 捌相殿을 그대로 본따온 건축물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指摘할수 있는 점은 우선 五層塔의 의미이다. 塔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実用性의 建築이 아니라, 意味性의 建築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옛 建築物을 되살린다고 할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의 意味性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국립박물관을 건축한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五層塔에 대한 意味性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랴.

五層塔에 대한 意味性은 三国遺事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것에 관하여 메주알 고주알 따질 여유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三権分立의 神政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박물관은 적어도 그러한 五層塔의 意味性이 확인되었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그 五層塔의 형태는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 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전망으로서 말하자면 〈서울女商〉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現代式 빌딩建物에 지붕만을 옛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옛 建築에 있어서 지붕이 가지는 意味性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指摘된대로 날개이며 그 날개는 곧 立法의 精神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학교건물에 날개만을 表像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마땅히 물었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다시 色彩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안다. 그것은 옛建築의 色彩가 셈버리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옛 색채의 文法을 어떻게 오늘에 되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우리들의 구미를 땡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글을 멈추려고 한다. (끝)

全訂版

建 築 構 造 學

張起仁 著

高級洋裝 480面
1975年 3月 5日 発行
값 3,900원

発行處: 普 成 文 化 社
연락처 · 73-9492

風水—古代景觀建築学

孫 鵬 程

朴 一 成 訳
(韓中日報総務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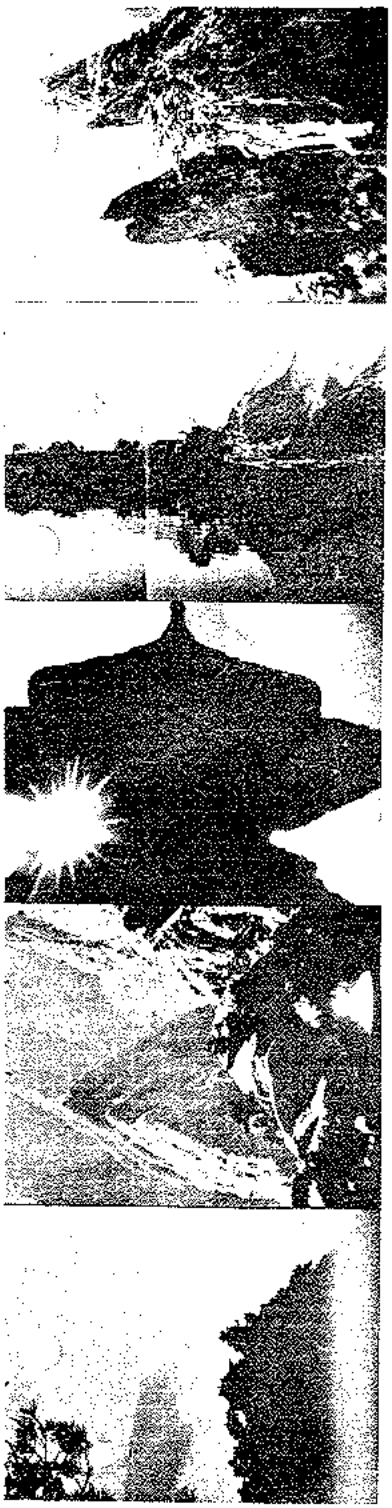
本 論文은 「台湾省建築師公会」에서 発行하는 「建築師」誌 創刊号(1975. 1月号)에 発表한 筆者 孫鵬程 内容을 「韓中日報社」에 게시는 朴一成 先生께서 번역해 주신 것입니다. (編輯者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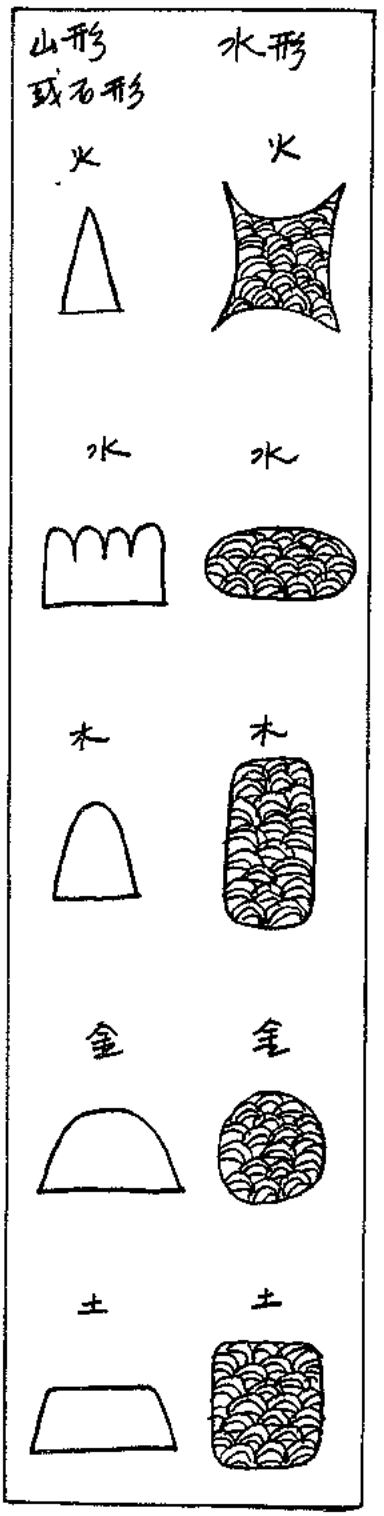
風水 또는 堪輿(天地, 乾坤)라 稱하는(即天高地下의 道理를 말함)것은 中國古代科学의 研究로써 地質의 妙함과 地上의 変化를 置重한 것으로 一種의 迷信性의 原理로써 陽宅(住宅)과 陰宅(山所 幽宅)의 位置와 方向을 定하는 同時에 또한 人間이 어떻게 大自然과 融和할 수 있는가를 教導하는 一種의 手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方法이 때로는 神妙한 解答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支配하고 있다. 例컨대 風水의 理論에 따라 富貴榮華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또한 後代에까지 伝承한다고 한다. 만약 이를 違背하면 그 個人은 勿論 家系에 属하는 子孫에게까지 禍가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科学的인 根據가 없으므로 우리는 風水說을 一種의 迷信과 妖術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그 眞意와 作用을 疏忽히 하여 왔다.

그렇지만 中国의 悠久한 文化를 많은 西方国家들은 새로운 科学을 開発하는 基礎資料로 利用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自身의 文化를 利用할 줄 모르고 外国에서 먼저 研究한 것을 模倣하거나 踏襲하고 있는 것이 많다.

國内에는 風水에 關한 書籍이 極히 적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모두가 古文法을 使用하였고 또한 現世에서 風水法을 運用하는 風水先生 역시 이를 家傳秘方으로 생각하여 他人에게 傳授하려 하지 않으므로 研究하는데 더욱 困難한 점이 많다. 또한 이 風水說은 그 範囲가 매우 廣大하여 解說과 分析을 할수 없는 것이 許多하므로 여기에는 風水学의 一部分인 景觀建築에 関한 原理에 따라 그가 지니고 있는 眞理를 分析하여 그 科学的인 根據를 論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始発로 하여 많은 사람이 風水学이나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研究하는데 興味를 느끼게 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文化를 重視할 것을 提言하며 앞으로 이에 対한 研究가 活潑하여지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風水의 根源出處는 葬経에 있는데 그 根本目的은 墳墓의 位置와 方向을 選擇하는데 置重하였다. 傳說에 依하면 일찍이 春秋時代(紀元前 722—480)의 周朝때에 이미 風水說이 있어 이를 繼續傳來하여 오다가 宋朝時代(西紀 960—1126)에 이르러서는 特히 孝道에 置重하게 되어 後孫들은 어떻게 하면 葬禮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데 特別한 関心을 갖게 되어 風水說은 加一層 重視盛行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元朝(西紀 1280—1363)와 明朝(西紀 1363—1644) 時代에 이르러서는 風水가 前記한 單純한 位置와 方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거름 発展하여 景觀(外観上의 美麗) 建築과 建築学上으로 発展하게 되어 祠堂, 寺刹 또는 其他 主要建築物을 建造할 때는 반드시 風水說을 引用하게 되었다. 明, 清朝時代(西紀 1644—1911) 에 이르러서는 風水說을 더욱 廣範囲하게 運用하게 되었다. 例를 들면 北京의 紫禁城, 天壇等을 建造할 때는 모두 風





水의 定義에 따라 擇地, 方位, 設計等을 하였다고 한다.

風水의 原理는 陰과 陽이 平衡과 두가지가 相対的으로 兩極을 이룬다는 原理에 따라 우리들의 宇宙가 構成되었다고 하여 이들 陰陽이 순환, 相合과 変化에 따라 世間의 여러가지 現象을 나타낸다고 하여 風水說에서는 이 原理에 따라 陰陽이 相合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定한다. 陽은 東方의 半日, 陰은 西方의 半日; 또는 陽은 봄의 青龍, 陰은 가을의 白虎라고 하여 山의 形狀과 물의 흐르는 方向을 象徵한다고 하여 陽은 左에서 右의 陰을 弓形으로 抱擁하는 形態로 五分之三의 陽과 五分之二의 陰을 原則上으로 가장 理想的으로 二元이 結合 되었다고 한다.

陽과 陰을 또한 太陽, 小陽 太陰, 小陰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各各 二分하여 八卦를 만들어 所謂 乾,兌 離,震 巽, 坎, 艮, 坤의 八卦라고 하여 各卦에는 各其 다른 占, 卜의 意義가 있다고 한다. 例를 들면 『乾』은 天의 形과 같다고 하여 그 뜻은 剛直, 健全에 該當되며 季節로 치면 晩秋에서 初冬에 이르는 期間, 時刻으로는 午前 九時부터 十一時사이, 動物로 치면 馬, 人的関係로 치면 아버지에 屬한다고 하며 이러한 順序에 따라 모든 것이 造成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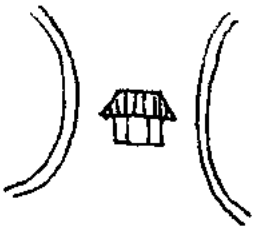
그러므로 風水說과 景觀建築의 関係에서 가장 主要한것은 그 方向을 代表하는 것이다. 「乾」은 北西, 「兌」는 西, 「離」는 南, 「震」은 東, 「巽」은 東南, 「坎」은 北, 「艮」은 北東, 「坤」은 南西의 方位를 말한다. 各卦가 代表하는 方向에도 各各 相異한 性質을 內包하고 있음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指南針은 最初에 風水를 運用하기 爲하여 発明되었으며 이를 最初에 羅盤(羅針盤)이라고 稱하였고 羅針盤에는 모두 方向과 卦를 標示하였다.

自然界의 萬物을 다섯가지의 基本元素로 組成 되었다고 한다. 金, 木, 水, 火, 土를 「五行」이라고 하는데 이것역시 風水에 根據하여 만들어 진것이다. 五行의 相合은 自然의 変化와 人事의 変遷을 象徵한다고 한다. 五行은 各其 다른 性質을 나타내고 있다. 即 方向을 論한다면 木은 東, 火는 南, 土는 中, 金은 西, 水는 北으로 表示한다. 또한, 「五行」은 陰陽을 合하여 「十干」이 된다고 한다. 木이 陽일 時는 木이 兄이 되고, 木이 陰일 時는 木이 弟가 된다. 이와같이 五行을 陰陽으로 配置하면 即,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等 十個의 「天」 干과,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等 十二個의 「地」 支로 構成되어 이를 總稱하여 十干, 十二支라고 한다. 이와같이 五行과 陰陽을 서로 合하고 相互循環하게 되었는데 風水說에서는 이의 配合이 맞고 안맞는데 따라, 吉, 凶을 判斷한다고 한다.

景觀建築上에서 우리들이 重視하는 것은 「五行」은 山과 水의 形狀을 代表한다고 하여 山과 水의 여러가지 相異한 形態를 根據로 하여 強烈한 吉, 凶說을 풀이 한다. 中國은 原來 農業을 爲主로한 國家이므로 土質, 地形이 農耕과 建物築造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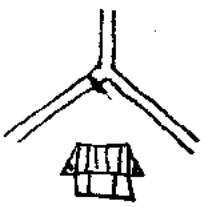
河流와 人間과는 더욱 密接한 関係가 있다. 例를 들면 自古以來로 河水가 氾濫하여 農作物과 家屋等에 洪水의 災害를 입게 되는데 主要한 問題로 되어 「能히 治水하는

左右兩쪽에 물이 서로
다른 方向으로 흐르면
子孫은 父母를 버리고
故鄕을 떠나게 되며
약쪽물이 서로 머리를
마주하지 않으면
집안의 財物은 鬼神이 와서
훔쳐 간다。



凶

오른쪽에 솟는 물이 있고
앞에서 또 서로 마주치면
惡性流行病에다 火燭에
불을 지르는 것 같으므로
앓지 않으면 반드시 다 燒失해서
잿더미가 되리라



凶

냇물이 앞에서
구비구비 흐르면
子孫代代로 英雄豪傑이
태여나
오나가나 예나 지금이나
가릴것 없이
高樓巨閣에 살며
벼슬은 五色구름같이 올라만 간다

吉

門前에 玉帶水가 있으면
벼슬은 높아지며 반드시 容易
하게 일어날 것이며
出生하는 사람은 代代로
讀書하는 소리가 나
이 家門에는 富貴와 榮華
를 누릴 것이다。

吉

속이 빈 큰 나무가
門앞에 있으면
婦人은 病들어
皇天을 찾고
百藥이
効가 없으므로
禍를 免하려면
禍根을 잘라버리는 길밖에 없다。

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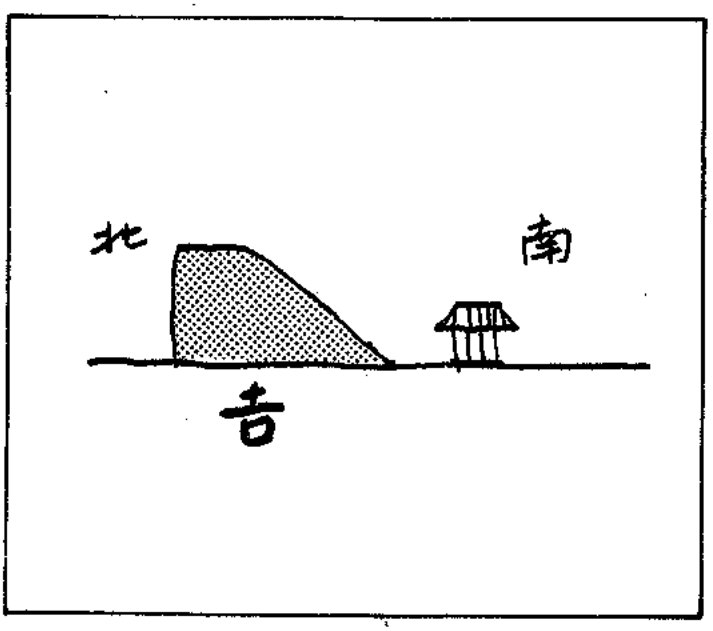
蒼蒼한 翠竹이
身邊을 가려주니
한 幅의 좋은
그림같은 그집을
어찌 羨慕하지 않으랴
크게는 高官이 나고
적게는 富豪 낳으니
많은 子孫들이 名聲을
떨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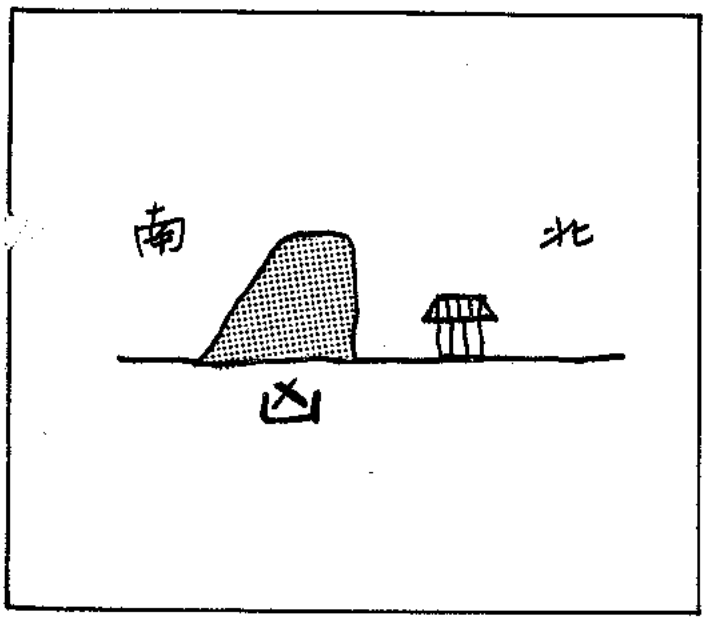
吉

屍形池

主人은 獄에가쳐 恒時
誣告、脅迫의 그물에 걸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거나
土石에 얻어맞거나 눌리어
傷處를 免할날이 없다。

凶





者라야 能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歷代帝王의 가장 重要한 使命의 하나가 바로 治洪水하는 일이었다.

大体的으로 말하면 屈曲이 甚하지 않고 緩和한 山과 구비 구비 흐르는 河川에 偏重하였다. 왜냐 하면 그 形狀이 自然的으로 緩和하게 形成되어 地理도 優良하기 때문이다. 景觀上으로 보아도 比較的 柔和해 보이고 大自然의 景觀과도 調和가 되어 大自然을 超越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尖形이나 經形으로 생긴 것은 凶하고 圓形과 바른 姿態는 吉하다고 한다. 例를 들면 「土」山은 山의 形態가 平坦하고 傾斜度가 緩慢하여 耕作과 建造에 有利하므로 吉山이라 하고, 뾰족한 「火」山이나 「金」山은 많은 岩石으로 形成되었으므로 耕作에도 不適當하므로 凶適이라고 한다.

九曲水 腰帶(허리띠)水, 또는 圓形 或은 玉帶形의 水池같은 것은 自然, 美觀, 어느 面으로 보아도 吉水라 하겠고 斜流나 急流, 直流, 三角形의 水池等은 凶水라고 본다. 五行의 配合에도 「五行相剋」說이 있듯이 그 配置가 事物間에 相対 或은 相合의 関係를 表示한다. 例를 들면 「金土」가 合하면 吉이 된다. 이를 文字上으로 解釈하면 鑛物의 「金」屬은 「土」中에서 産出되므로 서로 配合이 맞아 吉하고, 이를 다시 地理環境으로 말한다면 地形上으로 平坦한 곳에 있는 「土」는 耕作과 建築에 適合하고 背後에 「金」山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水源이 되므로 가장 좋은 土地라고 하겠다.

「水火」가 合하면 凶이 된다. 왜냐하면 「水」는 「火」를 撲滅하므로 相剋이 되어 凶하다. 또한 山이 疊疊峻嶺으로 된 地形이라면 耕作과 住居建築에 不適合하므로 좋은 土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水木」「水金」 等은 吉하고 「火木」「火金」 等은 凶하다고 한다.

이와같이 各其 文字上 또는 地理上으로 解說과 判斷을 하고 있다.

天然的인 配合과 地理的인 現象은 山과 水 또는 植物 어느 것을 莫論하고 모두 景觀建築과 建築学上에 密接한 関係가 있다. 風水說이라 함은 即 옛날부터 傳來한 이러한 関係의 経験과 智慧의 結晶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科学的인 眞理를 引用하여 說明하면 民間의 知識程度가 낮으므로 一般사람들은 理解하기가 어려우므로 風水說을 敎導하는데 使用한 文句는 모두 通俗的인 詩句를 使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迷信的인 말투로 널리 民間에 傳播되었으므로 風水를 迷信으로 誤解하게까지 되었다.

例를 들면 門前에 委曲形의 河川이 있으면 形態는 自然스럽고 물의 흐름은 緩慢하게 되므로 이는 吉하다고 判斷한다. 「만약 門前에 玉帶水가 있으면 벼슬(官)은 높아지며 반드시 容易하게 일어날 것이며 出生하는 사람은 代代로 讀書하는 소리가 나니 家門에는 富貴와 榮華를 누릴 것이다」. 또한 「家屋左右에 背水의 河川이 있으면 물의 흐름이 急하여 河川의 兩岸을 씻어 내리게 되어 宅地에 浸水, 내지는 建物이 倒壞될 우려가 있으므로 住居에 不適하므로 凶하다고 判斷한다」. 「左右兩쪽에 물이 서로 다른 方向으로 흐르면 子孫은 父母를 버리고 故鄕을 떠나게 되며, 兩쪽에 물이 서로 머리를 마주하지 않으면 家中의 財物을 鬼神이 와서 훔쳐간다」. 이와같이 천천히 흐르는물은 主人의 富貴를 감싸주고 兩쪽의 물이 서로 衝突되는 곳은 땅이 얕고 물이 높게되어 이런 집은 貧窮하고 搖乱하다고 한다.

建築의 位置와 山의 形態는 大部分 方向에 対하여 置重하여 風向과 太陽光線에 關한 것을 본다. 例를 들면 建築物의 北部에 높은 山이 있으면 北部의 寒風을 막아 주고 南部의 空間은 멀리 터어 太陽光線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런 位置는 吉하다고 하고, 만약에 높은 山이 南部에 있으면 反対로 太陽光線을 막아 줌으로 土地는 濕해 지므로 이런 位置는 凶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山의 高低, 傾斜度 傾斜의 方向等은 어느 것이나 位置撰擇上에 있어서 반드시 考慮하여야 할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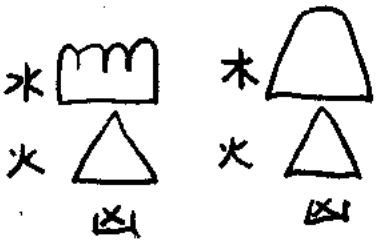
道路의 位置 역시 建築과 直接的인 関係가 있다. 自古로 強盜와 土匪가 盛行하였으므로 道路의 位置는 安全과 防守問題等을 보아 吉凶을 判斷한다. 例를 들면 家屋의 四面周囲에 道路가 있으면 凶이라고 한다. 그 理由는 敵의 來襲을 予防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環境의 汚染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이러 한 関係로 家屋前面에 横道나 옆에 側道가 있는 것을 吉하다고 하고, 家屋앞에 丁字路가 있거나 十字路 入口에 位置한 家屋은 凶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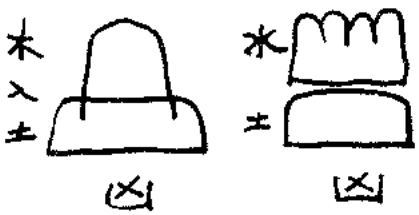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門前이 明淨하고 가리우는 것이 없고, 家屋뒤에는 푸른 나무가 무성하면 사시장철 露出됨이 없이 千秋万代 福祿을 누리며 安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風水上에서도 역시 樹木으로 吉凶을 論하고 있는데 그 뜻은 역시 方向과 景觀上에 置重하였다고 본다. 例를 들면 門前에 大樹가 있으면 凶하다고 하는데 理由인 즉 大樹가 太陽光線을 막고 空気의 流通을 阻害할 뿐만 아니라 行人의 出入에 不便을 주고, 또한 美觀上 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綠陰이 家屋뒤에 있고 竹, 桃가 兩側에 있으면 吉하다고 하여 이르기를 「蒼蒼한 翠竹이 身辺을 가려주니 한幅의 좋은 그림같은 그 집을 어찌 羨慕하지 않으리오. 크게는 大官이 나올 것이오, 적게는 富者가 나올 것이며, 많은 子孫들이 名聲을 떨치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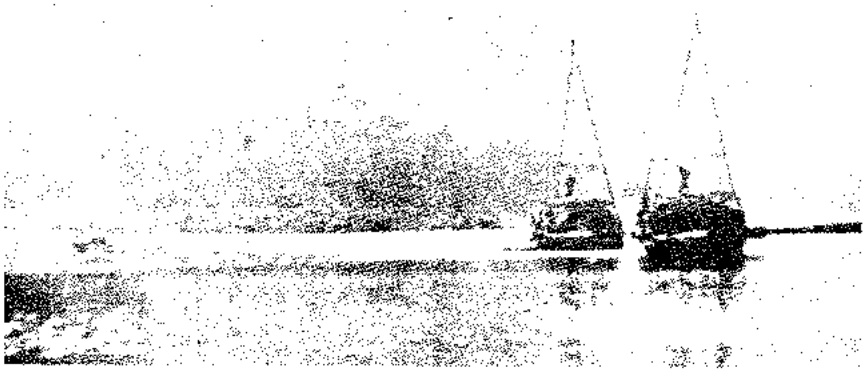
樹木의 位置뿐만 아니라 各種 樹木의 性質과 特徵에 따라서도 吉凶에 関係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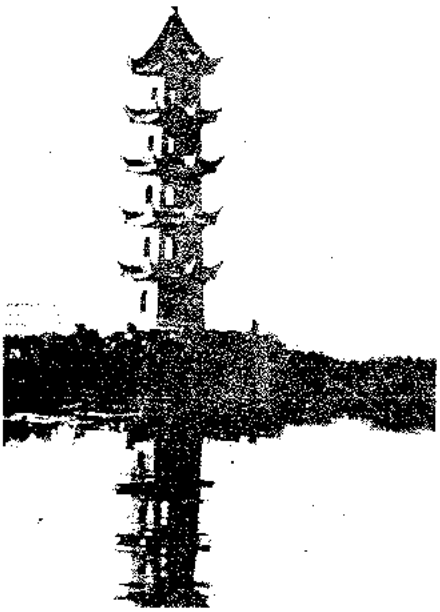
例를 들면 南쪽에 梅棗, 北쪽에 杏, 李, 東쪽에 桃, 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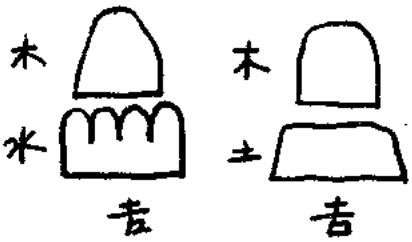
五行相尅說











西쪽에 치자, 느티를 植栽하는 것이 大吉大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各種 樹木의 特性에 따라 그 方向과 位置를 適合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梅, 桑는 陽光을 좋아하기 때문에 南쪽에 심어야 氣溫도 溫暖하고 太陽光線을 잘 받는다. 杏, 李는 서늘한 氣候를 좋아하기 때문에 北쪽이 適當하고, 桃, 楊은 아침 서늘한 때에 받는 햇빛을 좋아하고, 또 그 나무줄기가 가늘고 가지가 엉성하여 그늘이 많지 않으므로 東쪽이 適合하다. 이와는 正反対로 梔, 楡는 그늘이 많이 져 西쪽으로부터 비치는 強한 光線을 막아주므로 西쪽에 심는 것이 適當하다.

만약에 南李, 北棗, 東杏, 西桃의 格으로 樹木의 環境에 맞지않게 不適當하게 심는다면 이는 邪淫이라고 하여 이르기를 「樹木도 発怒하여 感情을 傷하는 格이 되므로, 禍, 福에 関係가 있다.」고 한다. 風水에서도 樹木의 形狀에 따른 理論은 역시 다를것이 없으므로 大体的으로 前述한바와 같은 形狀의 美觀과 盛衰에 따라 吉凶을 定한다. 例컨대 나무 줄거리가 속이 비게(空) 되면 美觀上으로 價値가 없게 됨은 勿論이려니와 또한 벌레가 먹을 憂慮가 있으므로 이런 것은 凶하다고 보아 「속빈 큰나무가 門前에 있으면 婦人은 病들어 皇天을 찾고, 百藥이 다 無効하므로 禍根을 除去하는 道理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樹木으로 둘러싸인 집은 깨끗하고, 고요하여 福樂을 누리고, 門前에 수양버들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棟 樑에 매여 놓은 것 같고, 한 나무가 門을 막고 있으면 寡婦가 되고, 子孫은 외로워진다. 竹, 木으로 둘러싸인 집은 衣食이 豊足하고, 나무뿌리가 病들면 사람도 病들어 혼미해지며, 後園에 樹木이 鬱蒼하면 財物이 생기고 秀才가 난다는 等은 모두가 風水의 道理라고 하겠다.

風水의 主要한 目的은 土地의 선택과 利用에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不良한 것을 改善할 수도 있어, 凶을 만나면 吉로 変化시키는 方法이라고도 하겠다.

例를 들면 못(池)을 파고, 메꾸는 것이나 나무를 베고 심는 것 等의 目的은 그렇게 하여 洪水를 防止하고 濕地를 乾地로 만들어 太陽光線을 많아 받도록 하고 交通을 便利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을뿐 만 아니라 한가지 더 重要한 것은 景觀을 더욱 좋게 하여 周囲環境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다.

例를 들면 하나의 寶塔을 建立하는데도 環境의 景觀에 調和가 되고 情緒에 맞도록 適地에 建立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大陸의 平原이나 楊子江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各樣各式, 높고 낮은 여러가지 塔들이 周囲의 風光과 調和를 이루어 奇景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風水의 眞理上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 眞理가 現代景觀建築設計上에 얼마나 많은 教訓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風水說에 따른 土地의 使用과 利用하는 原理를 가지고 目前에 建築基地 또는 高速道路를 開設하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 하는 問題, 또는 우리가 風水說과 같이 自然과 調和를 이루는데 重點을 두어 目前의 구획정리, 도시계획의 缺點等을 改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風水說을 採取하여 景觀의 調和를 이루도록 樹木의 植栽方法과 意義観念을 가지고 目前의 造景設計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檢討하여 改善하는 것이 可하냐 不可하냐 하는 問題等인데 科学知識이 極度로 発達된 二十世紀의 오늘날에 와서 旧態依然하게 迷信의 方法으로 우리들의 指針을 삼는다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參考로 하여 現実에 符合되도록 讀者 여러분의 裁量에 맡기는 바입니다.

都市計劃과 建築家

Victor Gruen

한 저명한 建築家는 자기의 직무에 있어 새로운 使命을 깨달았다. 그것은 富裕層과 權力層을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大衆을 위해서 빌딩과 環境을 창조하는 것이다. 都市化된 世界 안에 과학기술—특히 도처에 편재해 있는 자동차—를 인간의 從僕者로 만듬으로써 都市를 復旧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Victor Gruen은 Vienna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1938년 이후 미국에서 居住했으며 이곳에서 일해 왔다. 또 그는 미국의 主要 建築会社中 한 会社의 代表者로서 그는 Fort Worth(Texas)와 Boston(Massachusetts)을 포함하여 美国의 여러 都市의 再開発 計劃案을 計劃하는데 있어, 重要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著書로는 "The Heart of Our Cities and Centers for the Urban Environment 등이 있다.

〈編輯者 註〉

建築業務의 범위와 특징은 20世紀에 決定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이 業務를 遂行하는 建築家들도 이러한 變化의 性格과 影響을 充分히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다.

前世紀까지의 建築은 富裕層과 權力層에게 有用한 필수품이었다. 즉 그들의 自宅, 事務室, 官庁, 記念建物, 最後의 安息処를 위한장소 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都市나 地方의 建築物등 그들이 要求하는 建築物을 아름답게, 특징있게, 우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아랫부분에는 建築面積을 넓게 하는 반면 옥탑층은 건축면적을 좁게하는 피라미드형 원리에 의해 建築하였다.

이러한 피라미드형의 社会的 要求가 점점 희박해져, 이 型의 全盛期는 사라지고, 그 基底만이 남아 있었다. 建築主는 더이상 宮殿, 城, 맨숀을 원하지 않고, 大衆을 위한 施設 計劃을 願했다. 市民住宅, 産業工場, 学校, 事務室用 建物, 쇼핑기관, 空港, 버스 터미날등은 요즘 建築士들이 바쁘게 從事하는 일의 90%를 차지하는 建物型들이다.

그러한 建物에 対한 要求와 実際 만들어지는 建築物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거의 모든 곳에 存在한다. 最大의 빠른 工程과 最小의 工費節減이라는 책임이 주어진다. 建築主와 같이 建築家 자신의 表現이 이런 조건으로 상당히 減少되어 왔다. 실지로 大多数인 새로운 建築主 들은 自己에게 좋은 建築物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빠르고 経済的인 그들의 要求事項을 充足시키기를 바란다.

人間 対 機械

社会学的인 変化와 分離해서 第2의 要因들이 建築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우리는 人口 爆発과 機械文明이 急速히 発達하는 時代에 살고 있다. 全世界的으로 都市에는 空間이 不足한 状態다. 都市들은 急速히 팽창하는 人間의 洪水뿐만 아니라 온갖 機械들(特히 自動車)의 팽창으로 充滿되어 있다.

機械化한 奴隷의 数와 人間性 사이의 関係가 結局은 人種과 民族과의 関係, 政治的 制度의 차이로 오는 戰爭의 重要性을 약하게 한다. 人間이 機械奴隷를 実際로 支配할 수 있도록, 이를 성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이러한 機械와 人間 関係에 秩序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世代의 가장 큰 挑戰인 것이다.

人間 自身이 만들어 낸 技術的인 頭脳의 所産品에 의해 人間이 받는 가장 뚜렷한 威脅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를 戰爭으로 휩쓸 原子 爆彈같은 武器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런 機械的 奴隷를 다루는 것은 政治指導者들에게 달려있는 問題이다. 이것은 建築家의 領域밖이다. 하지만 이 悪魔的 存在를 잘 생각해 본다면 機械的 奴隷의 威脅은 남아 있을 것이며, 人類 環境의 形態를 附與하는 建築家에게도 関係가 있는 것이다.

科学技術—工場, 비행장, 公衆樓閣도 포함될 수 있는 비행기, 通行巻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는 鉄道들, 地球보다도 流星体를 더욱 괴롭히는 로켓트 일 수도 있는 産業機械 같은 것—의 時期라는 어떤 表現에 対比해서 대단히 自然스럽게 人間이 만든, 自然的인 環境을 害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科学技術의 한가지 表現은 自動車이다. 적어도 西欧에서는 人口보다도 自動車 生産量이 훨씬 超過되는 데 이것들은 人間을 좁은 구석으로 밀어붙일 威脅을 加하고 있다.

美国에서는 現在 自動車 人口는 全人口의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으나 그것들을 所有한 人間보다도 이 機械製品이 要求하는 空間이 훨씬 더 많다. 태어날때(工場)부터, 죽을 때(自動車 묘지)까지 要求된 空間과 自動車를 움직이고 車輛을 마련하고 修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機械를 돌보는 등 中間過程에서 必要한 空間은 自動車를 위해 [illegible] 總空間이 人間을 爲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과같이 [illegible]이 많은 空間이 必要하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建築家에게 가장 큰 問題点은 人間을 원상태 대로 都市環境의 主人으로서 復旧시키고 人間의 従僕者—自動車—는 有用한 機能을 수행하는 主要機構로서 알맞는 役割만 하게끔 하여야 한다.

오늘날 都市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成功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수로 한다. 自動車는 해마다 数千名의 [illegible] 者, 더욱 自殺者로 [illegible] 아니라 有毒가스와 [illegible] 騒音으로 [illegible] 危険을 曼延시키고 있다. 可動性의 한 방식으로 発明되고 만들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逆説的으로 그것들이 거리와 大道를 꽉 메우므로써 都市中心과 그 周辺에서 바로 그 可動性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간다.

都市 居住者들은 이 悪弊에 대해 두가지 方法으로 対応을 한다. 첫째로는 都市에서 빠져나와 먼 郊外로 移住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都市의 分散을 招來하게 된다. 둘째로 生活條件을 容易하게 하고, 거리를 넓히고, 人間의 慣習과 行動構造를 파괴하고 公園과 紀念碑를 부수고만들어진 社会를 分離시키고 自動車, 倉庫, 駐車場, 車庫, 注油所, 展示場등의 形態로 해서 人間生活空間을 機械的인 것에 더 많이 양도함으로써 이 機械独裁者를 滿足시키려고 努力해 왔다. 美国에서도 가장 많이 自動車를 意識하게 되는 Los Angeles에서는 都心地域의 흙가 人間이 아닌 이 機械的奴隷에게 빼앗기고 있다.

빼앗기고 양도하는 이 行爲들도 自動車의 한없는 要求를 滿足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바람직한 都市像과 大都市像을 거의 破壞하고 있으며, 많은 都心地域을 폐허화 시키고 있으며 郊外地域은 單調로운 文化의 砂幕으로 만들고 있다.

自動車 公害에 対한 反撃

攻撃의 물결은 우리가 아직 準備하지도 못했던 機械的인 힘을 가지고 불시에 닥아왔다. 그러나 反撃을 위한 時期도 왔다.

輸送手段으로서 自動車는 적어도 우리가 予期할 수 있는 未来에도 우리 人間에게 重要하게 될 것이며 우리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우리는 自動車 時代의 生活手段 方法을 궁리해야만 할 것이며 여전히 우리의 運命과 環境의 主人으로서 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達成하기 위해서 우리는 都市의 形態와 大都市地域에 있어서 土地使用을 全的으로 다시 研究하여 再調整해야 할것이다. 自動車와의 健全한 関係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科学技術의 機械装置를 創造한 바로 그 発明의 知能을 使用해야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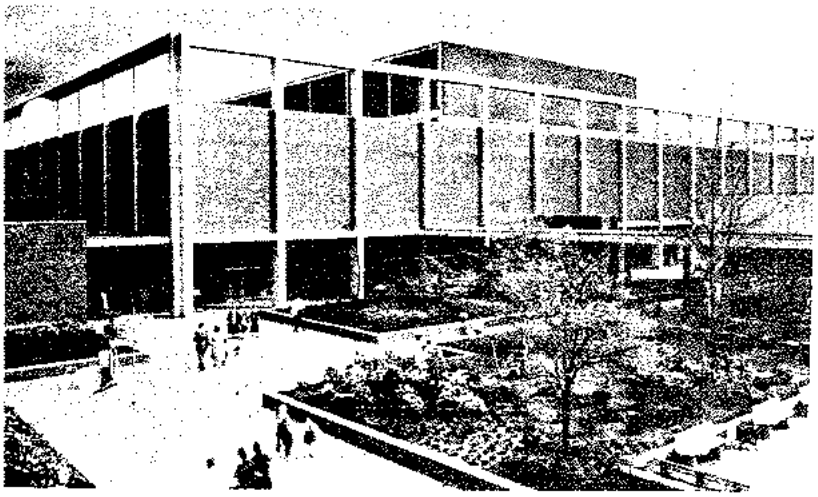
反撃의 根底를 이루는 基本 計劃的인 哲学은 單純한 細胞的인 狀態—가장 基本的인 表現—에서 太陽系에 이르기까지 自然 그 自体는 自然이 表明하는 어느 面에서도 有用하다는 假説의 性質과 類似하게 都市環境의 한 細胞의 形態로 再組織하는 것이다. 都市의 形態에서 細胞와 細胞模様의 形들은 必要와 要求에 따라 크기와 講成에 있어 多様해야 할 것이다. 간단한 細胞의 形態(즉 区劃)는 居住地域이 될 것이다. 크고 좀 더 복잡한 것은 居住, 勤務, 教育, 行政, 쇼핑, 文化와 娯楽活動을 할 수 있는 細胞의 多様한 形態의 무리(Constellations)일 것이다.

이렇게 細胞들(cells)은 덩어리(Clusters)를 形成할 것이고, 덩어리는 무리(Constellations)를 만들 것이며, 많은 무리(Constellations)는 大都市 地域의 銀河水같은 무리(galaxy)를 決定할 것이다. 각각의 細胞内에서, 숨실 空間과 스포-츠, 娯楽을 위한 地域과 自然과의 접촉등을 확약시켜 주듯 다양한 넓은 空間이 存在할 것이다.

이들 속에는 河川, 숲, 牧場, 農場, 果樹園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空間은 造園化된 地域内에서 兵站線의 通路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鉄路, 迅速한 運送, 高速道路(어느날 電子로 나루어 질지도 모르는)의 多様한 車線에 적합하다. 이러한 運送線은 여러 都市로 이끄는 많은 幹線道路를 가질 것이며, 또 循環道路도 Clusters을 둘러싸게 될지도 모른다. 活動範囲와 연관되는 輸送線은 Clusters 밑으로 나 있지만 간혹 地上위로 機械化된 輸送手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自動車를 위한 터미날 設備와 車庫는 Clusters 주변에 위치하게 되나 地下設備일 경우는 정류장이 그 地域中心地에 있을 수도 있다.

地域的 쇼핑센터

새로운 計劃 研究의 가장 劃期的인 것은 郊外에 地域的인 쇼핑센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Detroit北部와 東部地域, Minneapolis근처의 Southdale의 大規模로 가장 잘 計劃된 것과 약 50~60개 이상이 이미 전에 論議된 전반적인 計劃을 明白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北部센터



Detroit 북부쇼핑센터 — Victor Gruen 이 계획함. 보행지역은 연주회, 댄스, 회합, 미술전람회, 기타 시민활동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는 100에이커 地域 中央에 세워진 建坪이 1,000,000m² 이상이 넘는 建物들이다. 建物 사이에는 광장, 가로수, 정원들을 만들어 다양한 모양의 보도가 있다. 이 모든 地域은 잘 造園되어 있으며, 분수, 彫刻, 休息을 취할 수 있는 벤취, 기타 娛樂施設 等으로 쾌적한 場所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들의 都市環境에서 사라져버린 다른 것들과 함께 博物館이나 畵廊으로 밀려나버린 芸術은 여기서 建築造景과 統合된 表現으로 나타난다.

그 建物들은 주로 판매활동을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사회적, 文化的, 娛樂的 要求를 만족시켜 준다. 거기에는 公会堂, 集合室, 劇場, 展示場, 레스토랑, 카페가 있으며 建物사이의 빈터에는 연주회, 댄스, 집회 등 모든 種類의 野外 展示会 같은 市民活動을 위해 대단히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人間 活動地域 外郭은 多樣한 形態의 輸送活動範囲가 신중히 区劃되어진 輸送地域이다. 100에이커 주변에 循環道路가 있으며 10,000台의 自動車를 넣어두는 車庫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內部道路와 연결되어져 있다. 区劃된 道路들은 빌딩群 가까이에 있는 정류장들과 함께 버스運送 役割을 한다. 트럭과 운반 기구등의 모든 交通은 空中으로부터 소리나 냄새를 제거하고, 視野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人間의 活動群 밑에서 움직이게 한다. 오피스빌딩센터, 地域健康센터와 산업저장소등의 形態도 類似한 群이 이루어진다.

便利하고, 環境的 次元을 높여주는 地域쇼핑센터의 出現은 경제적 관심을 都心地域에다 둔 사람들에게 二重의 効果를 주었었다. 첫째 効果는 대단히 큰 것인데 좀 더 오래된 都心地域에서와 같은 利点과 便利를 제공하는데 成功만 한다면 경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자각을 준 것이다. 둘째번 効果는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즉, 이 地域 쇼핑센터들은 人間과 人間 의 技術科学으로 因한 機構들, 自動車와 人間사이의 関係를 마스터하는 일을 배우고, 완수하기 위해 実験的인 곳을 提供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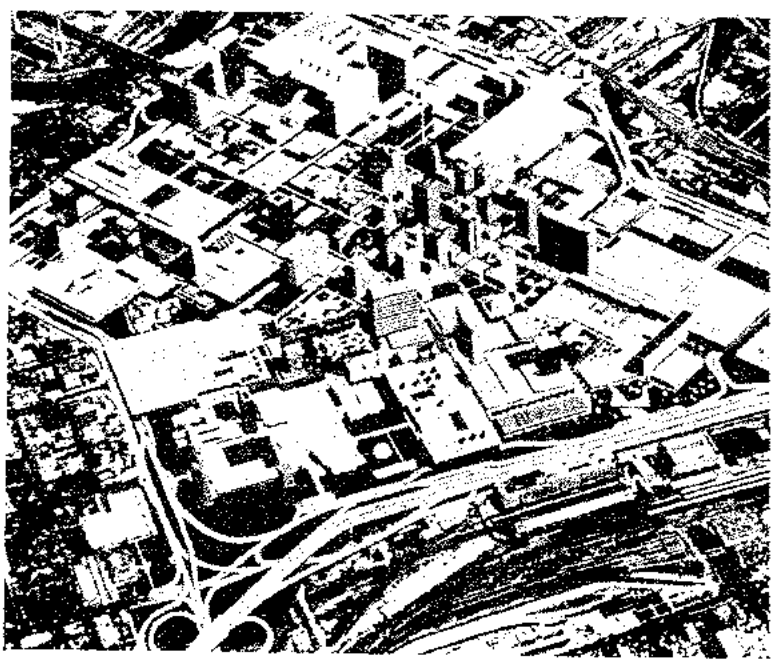
模範 都市 計劃

이 二重의 効果는 都心地域과 都市地域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鼓舞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사건보다도 더 有用한 것이었다. 例를 들면 直接的인 効果는 우리 회사가 10年 前에 받은 任務였는데 그것은 Texas의 Fort Worth 都心地域을 再計劃하는 것이다. 이 計劃은 다른 都市들의 完成을 위해서나, 作業 하는데 있어서나 100 個以上의 계획의 模範이 되었다.

우리의 顧客이 우리와 맞서게 되는 問題는 西欧世界의 거의 모든 都市가 이렇게 典型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都市에로의 뻗힘과 中心地域에로의 産業과 人口의 과잉으로 Fort Worth 都心地域은 経済的으로 悪化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앞에 놓여진 疑問点은 이러하다. 무엇이 이 悪化現状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이 潮流를 逆行시킬 수 있을까?

現状의 研究에서 보면 都市센타 中央의 印象的인 建物周囲에는 貧民街, 自動車販売場, 貧弱한 商業 및 産業会社들이 存在한다. 改善된 環境條件들을, 大都市 中心地域에서 가장 번창해야만 하는 여러 活動들을 그 都心地域으로 되돌려져야만 한다는 가정하에 20年後까지는 Fort Worth 都市의 都心에 健全한 中心地域 발전을 위해 必要와 要求事項을 計劃하므로서 이일을 着手했다.

Texas Fort Worth 의 도심 再開発을 위한 필자의 計劃은 都市中心에서 자동차를 없앴다. 교통시설은 지하로 하였고 지상은 나무, 꽃, 휴식벤취, 대중의 활동을 위해 자유로운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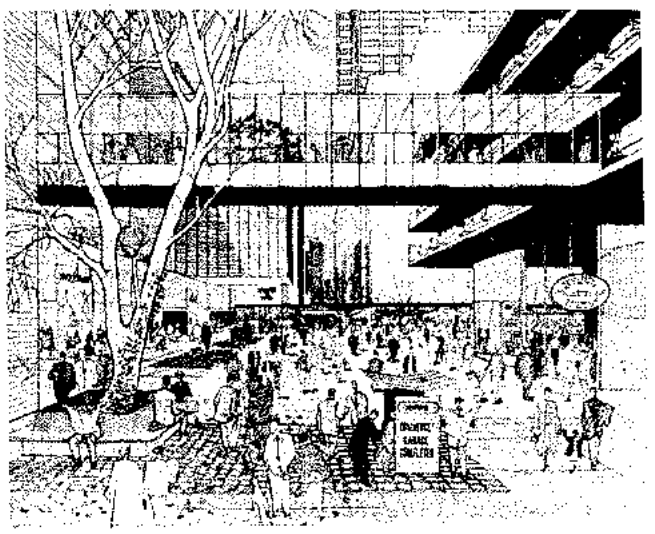


우리는 地域과 관련되는 높은 生産性 때문이거나 大都市의 文化的, 社会的, 宗教的, 娯樂的 活動의 重要性 때문에 中心都市의 心臟部에 꼭 所在해야만 될 모든 事業体들, 호텔과 상점, 교회와 극장, 公私의 各種 오피스 빌딩으로 要求된 토지이용을 表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 表에 家族의 地位나 生活樣式 때문에 活動中心地域과 可能한한 가까운 곳에서 生活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을 위한 居住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反面에 自動車의 修繕 및 販売와 연관되는 모든 施設이나 都売商과 같은 것은 地域과의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外殼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除外했다. 地域分析 結果 그 地域은 Fort Worth의 都心地域으로 現在와 予期할 수 있는 未來의 모든 要求와 必要에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輸送機関과 再復旧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地上의 交通手段은 都心地域에서 除去되어야만 한다. 따로이 취해야 할 運送手段을 위해 우리는 大都市의 모든 部分에서 中心地로 向하는 새롭게 改繕된 幹線道路와 大衆輸送의 좀 더 刺戟的인 改善을 提案했다. 超高速道路, 高速道路, 中心都市領域을 도는 循環道路, 버스를 위해 特定한 車道를 設定하는 등,

미술가의 이 그림은 Victor Gruen의 계획이 Fort Worth 도심의 한 거리를 차량의 폭주로부터 사람들의 산보길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를 보여준다.



여러 등급의 多樣한 車線制度를 設定한다. 循環道路와 함께 中心地域 自体内에는 60,000台의 自動車를 収用할 여러層의 車庫가자리를 잡았다. 이 車庫들을 위해 선정된 대지는 主要 建物을 파괴시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歩道入口에서 都心中央까지 1.5~2分 程度 所要되는 곳에 주의깊게 선정했다.

都心의 中央地域自体를 위해 우리는 物理的으로 좋은 條件下에 있는 모든 現存하는 建物들을 그대로 두고, 生産性이 높은 目的을 주는, 文化的, 娯樂的, 社会的 必要에 의한 새로운 建物들을, 中央地域에서 自動車는 제거하므로 有用하게 된 대지위에 세워지게끔 計劃했다. 우리는 現存의 거리를 表示하는 쓸모없는 鉄條網制度를 駐車場이나 車庫가 있는 광대한 광장등을 만듬으로써 興味와 多樣性을 주는 形態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交通의 地下道路 制度는 모든 建物에 알맞게 관련되는 식으로 成就되었다. 이렇게 하여 都心中央의 地上은 機械的인 交通妨害꾼으로부터 完全히 解放되어 나무와 꽃으로 덮인 花壇, 休息을 위한 벤취를 만듬으로서 地域쇼핑센터 에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게 대중을 위해 매혹적인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新興都市의 形態

Fort Worth 計劃에 있어 哲学的인 概要는 그 地方의 모든 部分의 政策을 刺戟시켰고, 많은 유럽都市의 政策에 영향을 주었다. 이 基礎的인 研究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은 거의 100余個의 美国都市를 위해 完成段階에 있다. 새로이 나타나는 都市形態의 다른 要素는 聯邦의 再開発과 새로운 法律을 통해 가능하여진 都市—再開発 計劃案 중에서 찾아낼 수 있다. 많은 이러한 計劃案에서 学校, 教会 商店, 놀이터등 갖가지 娯樂施設을 포함한 居住用 빌딩群들은 自動車가 支配하는 곳에서의 歩行環境의 아이디어를 참작해서 창안되어졌다. 都市의 再開発 計劃案 중의 最高의 것은超満員인 상황과 상당히 대조되나, 郊外로 뻗어나아가는 특징과 대조되는 都市生活의 새로운 패턴을 예시해 준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자체를 위한 都市를 되찾기 위하여 機械가 人間을 支配하고 있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決定的인 措置가 취해져야 될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새로운 示範 都市再開発을 위한 聯邦 法律이나 都心中央이 보행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California 洲에서 通過된 法律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示範들과의 適応은 開発을 한 후에 充分히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특히 建築的 計劃業務는 가까운 時期에 이 일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人間面에서 都市를 再復興하고 復旧하는 建築의 社会的 任務를 깊이 理解하는 創造的인 建築計劃者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形態의 教育訓練을 要求 하고 있는 것이다.

第二期 視察団　東南亜　紀行文

台湾 · 방콕 · 싱가폴 紀行 〈1〉

台灣省建築師公会에서 우리会員의 台灣訪問을 환영 하는 프랑카드

李康範

입춘과 우수를 훨씬 지낸 2월28일인데도 서울의 날씨는 그대로 겨울의 연속이다.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서울지부장 김만성씨를 단장으로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15명 (충북1명, 강원1명, 서울 13명)과 안내를 담당한 새한항공사 직원 1명 포함 16명은 타이페이, 방콕, 싱가폴, 홍콩, 오사까, 도꾜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오후 3시경 대한항공 605편으로 김포공항을 이륙하였다.

단원 15명중 반수정도가 외국여행의 경험이 있으나 나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은 초행이다. 모두들 동남아에 기대를 건 첫번째의 순간인 것이다. 구름 위를 완전히 벗어나 고도 3,000 피트 상공에 이르렀다는 기장의 설명이었다.

다시 안전벨트를 풀고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싸인이 들어왔다. 일행은 잠시 구속되었던 행동이 자유로워지며 서로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구명복 입은 방법을 설명한 후 곧 식사 가 지급되고 있었다.

단장은 room mate 를 짜느라고 메모중이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던 사무실을 벗어나 모든 걱정들을 김포공항에 두고온 기분이라서 마음은 날아갈듯하다.

〈대 만〉

약2시간 20분 비행 후에 현지 시간 4시40분(한국과의 시차로 인하여 1시간 후퇴시킴) 첫번째 방문지인 대만에 도착. 기내에서 내려다 보이는 녹색의 산과 물이가득찬 논과 맑은 저수지들이 5월경의 한국농촌 풍경과 흡사함을 갖게하다.

다만 저수지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행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훈훈한 바람은 춘추복으로 일찍갈아 입고 김포공항에서 떨던 몇시간전의 일을 잊게 해 준다.

대북은 인구 약170만 에 년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다.

일행은 입국수속을 끝내고나와보니台灣省建築師公会」에서환영을 나와주어 2층VIP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후에안 사실이지만 우리 일행의 대만도착이 그곳 TV뉴스로 전해졌다고 한다) 룸내에는 이미 준비된 우리들을 환영하는 빨간판에 노란 글씨로 「大韓建築士協会、台湾訪問歓迎」이라적힌 프랑카드 가 벽체에 걸려 있었다.

이곳의 풍습으론 빨간색과 노란 색의 글씨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 한다.

우리측에서 준비한 선물등을 전하고 마중 나와준 교포인 모대학교수의 통역에 의하여 환영사와 답사가 오고갔다.

마침 이곳의 "건축사년차총회"가 다음날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사, 간사, 상무, 건축사등 여러분만이 마중나와 주었고, 회장은 내일 회의준비관계로 현지에 가 있다고 한다.

총회관계로 우리를 일일히 안내하여 줄 수 없다며 몹시 서운해 하였다.

일행은 준비된 뻐쓰에 탑승, 호텔로 향했다. 대북 국제공항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호텔까지는 멀지않은 거리였다. 우리가 여장을 푼 호텔은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majastic hotel 이었다. 호텔간판은 "美琪大飯店"이라 적혀있는데 어떤 큰식당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것 같다. 大飯店이 호텔의 뜻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한 곳이다. 호텔로비에서 기다리는 중 방 배치가 끝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의 room mate 인 이의구씨와 몇마디를 나누며 TV스윗치를 켜 보았다. 의외에도 화면에 전개되는 장면은 천연색이 아닌가!..

말로만 듣던 천연색 TV가 바로 이것이구나!

다음날인 3월1일의 스케쥴은 시내도시 계획 및 건물, 명소를 돌기로 되었다. 마침 건축자재전시회가 있어 들러보았는데 특이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면 타당할 것같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질 못하고, 다음목적지로 방향을 돌렸다. 대만에서 제일 큰 고전건축양식에 의해서 지어진 「 grand hotel (圓山大飯店)」을 보았는데 이 호텔은 기둥이 외부로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기둥은 모두 빨간 색으로 페인팅 되었고, 지붕은 노란 색의 기와로 덮혀져 있는 거대한 중국고전양식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11층 빌딩이다.

고전적인 외부형식과는 달리 내부시설은 초현대식으로 장식되었고, 넓직한 1층로비는 시원스럽게 처리된 것이 마음에 든다. 이 호텔은 정부직영호텔로서 영빈관으로 사용된다 한다.

다음으로 찾아 본 곳은 국립박물관이다. 이곳의 위치는 산골에 위치하여 외부로 부터의 공습에 보호되도록 건축되었고, 「장개석」총통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올때 가져왔다는 각종 유물들 약 22만점 중 8만점이 전시되고 나머지는 특수처리된 동굴 속에 소장되어 볼 수 없었다.

筆者：李康範設計事務所 代表

이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란서의 "루브르"박물관 다음가는 곳이란다. 전시된 종류는 약3,500년전 토기류 및 청동 그릇, 특히 600여년전 백자기, 300여년전 청나라 시대의 청자기등 그 색채의 표현과 섬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인 안내원에게 저 조그만 술잔을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가격으로 환산이 안되고 공매에 부친다면 1억원 이상 나갈거라는 답변이다. 일행은 약간의 기념촬영을 끝낸 후 장총통이 집무하고 있는 총통부 광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빨간 벽돌로 건축되어진 근대건축양식이다. 대만은 산이 많은 나라이다.토지 이용율이 높고, 지난 세계적 유류파동때 국민이 약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량의 기름을 저장하여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도자의 현명함을 통감하게 해 준다.

총통부 광장에서 기념촬영에 바쁜 일행들이 이곳 저 곳으로 뛰박질하는 것이 시간의 촉박함을 알리는 것 같아 아쉽기 만하다. 다시 우리를 실은 뻐쓰는 대북시 변두리로 빠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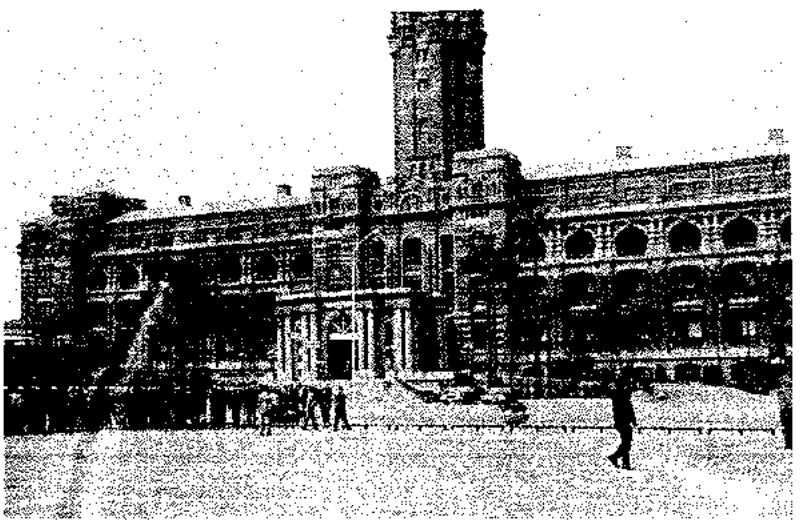
목적지는 유명한 대만원주민촌인 "우라이(烏耒)"이다.

이곳은 대북시내에서 동남쪽으로 27km지점. 산골에 위치하였으며 뻐쓰로 약1시간정도 거리였는데 시내를 완전히 벗어난 후 부터 뻐쓰는 고르지못한 비탈길을 통해 계곡의 강가를 거슬러 올라갔다. 강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채취기계는 서울한강에 설치된 철선 같았는데 큰 골재는 버리지않고 다시 쇄석기계로 옮겨지는것 같았다.

뻐스에서 내려 소형레일을 이용한 인력거 비슷한 2인용 동차를 타고 올라가니 파란색의 잘 가꾸어진 산림사이로 철쭉꽃과 같은 빨간 색의 꽃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다. 천정만 있고 벽체가 생략된 극장에 들려 민속무용을 관람하고, 흉할만큼 얼굴에 문신을 한 원주민들, 시원스런 폭포를 뒤로 바쁜 일정을 재촉하면서 하산.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 창문을 통하여 곳곳에 시공중인 건물이 많이 보였다. 비계목은 전부 대나무로 엮어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검정 색이 약간 나는 것으로 한국산보다 저질인 듯하다. 대북시가지는 도로폭이 넓고 도로 중앙선에는 나무를 심어 가꾸어 놓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차도 다음은 오토바이등의 이륜차 전용도로, 다음이 보도로 되어있고 보도 다음에는 건물속으로 인도를 다시내어 비가와도 건물내의 인도로 걸어다니면 비를 맞지 않도록 "베롯티" 처리하였는데 이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한다. 거리 사이사이 공터는 밭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고 잡초만 무성한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것같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공지가 있다면 하다못해 형틀장사라도 있었을텐데…….

총통부 정면. 의장대가 사열연습을 하고 있다.



대북 변두리에는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이 보였다. 대체적으로보아 우리나라보다 고층건물이 없고, 도시주위 환경은 서울보다 깨끗하며 잘 정돈된 상태다. 특이한 것은 다방을 구경하기조차 힘들만큼 거이 없는도시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많은 다방에 의아해 할 것이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배 정도가 된다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일본어가 어느 곳에서나 통할 수 있는 곳이다.

3월2일 자유시간을 가져 동료 몇몇과 대만생산의 과일을 사먹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과 한개에 500원정도).

다음 행선지로의 출발을 위해 짐을 챙기고 개인적 시내관광에 나섰다. 몇곳을 다니는 동안 그들의 강한 집념과 생활력을 알수 있었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을 역역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외국인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 콕〉

일행이 방콕행 KAL을 탄 시간은 오후 5시 40분. 서쪽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지평선 아닌 운(雲)평선을 따라 날았다.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 밤10시 정각이었다. (대만과 1시간차)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 말에 의하면 방콕의 날씨가 무덥고 모기가 많으며 냄새나는 지저분한 도시라고 귀띔 해준다. 비행기 타랍을 내려오는 순간 찌는듯한 열기가 온몸을 덮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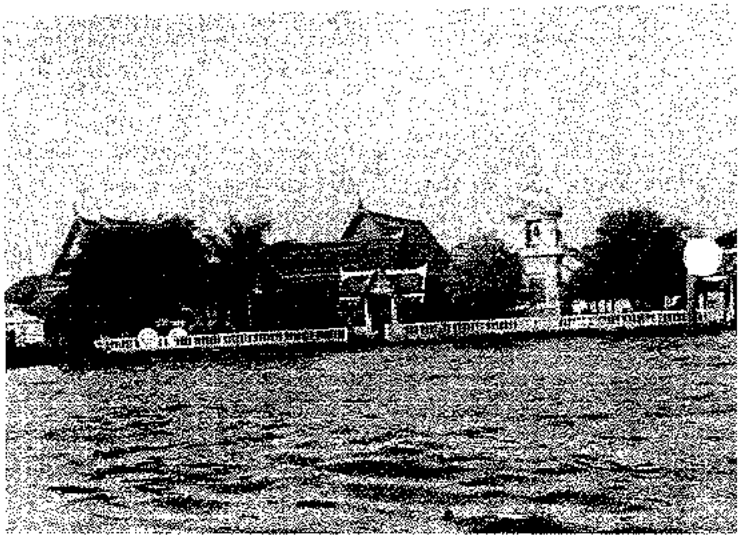
이곳의 년평균 온도는 30도 이상이라니 그 더위는 한국의 한 여름이다.

방콕은 인구 약310만 동남아시아와 구라파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로서 국제기구가 여러개 설치되어 있고, 국제회의, 국제경기등이 자주 열리는 곳이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이다. 비행장에서 호텔까지 냉방시설된 미니뻐쓰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중태국 고유의 불교사원들이 야간조명에 비쳐지고 있었다. 1시간이 채 못되게 달려 Manohra Hotel 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마누라"와 비슷한 어감이라서 구수한 친근감 속에서 모두들 여장을 풀었을게다.

호텔방의 내부시설은 보통이었는데, 이곳 종업원들에게서 느끼는 불친절감에 모처럼만의 푸근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방마다 TV하나 비치 되어있지 않고 냉수마저 짐짐하니 않는 기분뿐이다. 내일의 바쁜 일정에 대비해서 그대로 침대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방콕시내 강가에 있는 불교사원



盛市를 이루고 있는 水上市場

3월3일 오전 7시 이른 아침식사를 끝내고 Floating market (수상시장)로 가기 위해서 강가에 도착 모타뽀트를 타고 강을 내려가며 강변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만 보았던 배경들이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식 건물과 불교사원과 야자수등으로 그려진 그림 그대로이다.

시내를 약간 벗어 나면서 모타뽀트는 야자나무와 잡목들로 이루워진 장글사이를 달려 약40분만에 수상시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옛부터 자기배에 물건을 싣고와서 그대로 물위에 띄워 놓고 상호간의 물물교환을 하는 곳으로 지금도 아침일찍부터 고단한 몸을 강제로 일으켜 달려온 것이다.

태국정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곳의 개발은 제한되어 있고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안내원의 이야기다. 이곳에서 값싼 빠나나와 야자를 먹었다. 빠나나의 값은 서울에서 2,000원정도 나가는 한나발이 여기선 200원정도다.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올땐 다른 외국인들의 모타 뽀트에 밀려 수상교통이 잠시 마비되었다. 돌아오는 도중 강가에 위치한 사원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방콕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서 높이82m의 탑이었으며 서기1800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건축된 사원이라 한다.

태국사원의 건축양식은 처마의 끝부분과 용마루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하늘로 치솟아 오른 형태가 특징이다. 이것은 용이 승천하는 것을 상징으로 노란 색이 채색되어 있었다.

사원의 사탑건축의 묘는 어마어마한 정도로서 그 당시에 어떠한 재료로서 골격의 내부가 구성되었는지 이 나라의 불교건축술을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면에는 시멘트제품 비슷한(석회질인지 알 수 없다) 면에 조그마한 사기류 같은 것으로 부치고, 각종 색깔이 있는 타일 비슷한것으로 모자익 해 놓아 가까이서 볼 때의 정교함은 나를 매혹시켜 배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잊고 말았다.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과연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다운 사원의 면모였다.

주어진 시간에 좀 더 많이 보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다보니 다리는 아프고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남방샤쓰차림의 온몸을 땀투성이로 만든다.

우리는 방콕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국식당 "식도원" 에서 한식을 먹었다. 이국에서 먹어 본 김치 찌꾸기의 맛은 [illegible] 김치가 몇 그릇이나 더 추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오후에 시내도로변에 위치한 사원에서 누워있는 큰 불상을 볼 수 있었다.

이 불상의 길이는 150휘트. 방콕의 여인들이 향을 피우면서 염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와 순금제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무게가 4톤이 넘고, 눈에는 두개의 큰 사파이어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냉동된 아쿠르트 한병씩을 사마시며 더위와 피곤에 지친 몸을 달래며 호텔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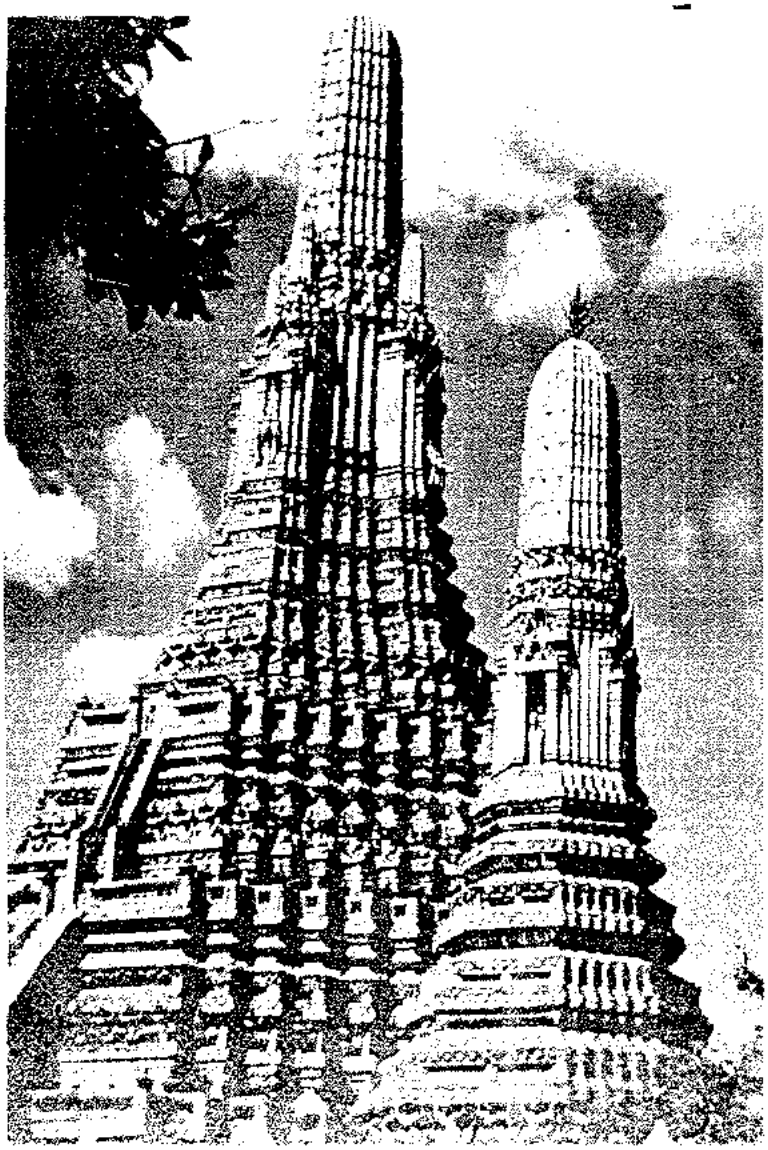
호텔에 도착 후 자유시간이 있어 한국인 교포를 만날겸 "라자호텔"에 있는 그의 집포를 찾았다.

보석과 가죽제품을 팔고 있는데 작년엔 재미좀 보았다는 얘기다.

호텔로비 소파에 앉아 우연히 천정을 바라 보았는데 어느 곳으로 부터 기어들어 왔는지 백색 천정에 붙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조그만 도마뱀들이 신기했다. 저녁에는 나의 Room mate 와 방콕의 야경을 보기 위하여 호텔을 나섰다. 밤이었는데도 날씨는 무더워 걷기가 힘들 정도다. 야외 커피 숍 비슷한 곳에 무대를 설치하여 놓고 음료수와 주류등을 팔고 있는 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곳 아가씨들의 노래를 들어 보았다.

3월4일 일행중 4명이 그곳 교포의 자가용을 타고 snake farm 에 가서 각종 파충류를 보고 직경 15cm를 넘는 큰뱀을 어깨에 걸고 사진도 촬영.

방콕에서 가장 큰 82m 높이의 寺院



그 후 유명한 룸피니공원과 옛 궁전에 들렸다. 궁전의 본전물에는 옛날 태국왕이 살던 곳으로 그 건축양식이란 설세하기 말할 수 없고(불교 건축양식과는 약간 시대적으로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음) 강열한 태양 빛 아래 이글거리는 건물의 장식등은 천연색 사진으로 밖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카메라는 항상 촬영준비완료다. 사진이 잘 나올런지 의문이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거리의 이곳 저곳을 찍으려니 바쁜 마음에 담배 피울 시간마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 필림을 아끼지 말라는 누구인가의 얘기가 옆에서 들린다. 호텔로 오는 길에 방콕의 과일을 시식해 보았다.

수박과 청포도 걸쭉하게 생긴 배등 또 다른 것은 이름도 모를 과일들이다.

방콕시내에 세워져 있는 사원이 8천여개나 된다니 거대한 사원의 도시이다.

시내에는 고층건물이 별로 눈에 띄질 않았고, 특히 현대건축은 볼 것이 없었다.

좀 더 많은 고전건축과 저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유감이었다.

싱가폴로 가기 위해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3시경.

일행 중 한 사람이 호텔에 백을 놓고와서 한참 진땀을 뺐다. 일행은 모두 그대로 출발하고, 백은 다음 비행기 편으로 싱가폴 숙소인 호텔까지 보내졌다. 방콕 국제공항은 시내 쪽에서 차편으로 들어와 2층 공항 현관까지 Lamp way 로 시공되어 차량이 통과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이륙, 방콕의 상공을 날았다. 상공에서 본 방콕시내의 강은 꾸불꾸불, 농촌은 경지 정리가 잘 된 농토. 다시 말레이지아 상공을 지나면서 아래로 보이는 장글지대가 신비롭기만 하다. 대한항공에서도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우리가 탄 "싱가폴 에어라인"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스튜어디스의 독특한 마레이지아 의상이 인상적이고, 비교적 대한항공 보다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

〈싱 가 폴〉

방콕으로 부터 1시간 30분정도 비행하여 싱가폴도착은 현지시간 오후 6시40분 경, 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방콕과의 시차 30분) 비행기가 마레이지아반도의 남단에 도착 싱가폴과 마레이지아 국경 주위를 맴돌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한다.

저녁 노을에 비춰진 마레이지아반도와 싱가폴을 갈라 놓은 푸른 물빛이 어두움이 서린 가운데 하얀 빛을 반사 시키며 멀리 싱가폴시내의 불빛이 아름답게 수 놓아져 보인다.

덜커덩하는 Landing 소음과 함께 스피드는 갑자기 줄어든다.

비행장 주위는 밝혀진 불빛으로 많은 비행기들이 이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도 더운지방이라 에어콘 시설이 된 비행기내에서 있었던 더위가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다시 덮치기 시작한다. 방콕과 너불어 싱가폴 홍콩등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입국 수속중 싱가폴은 경유지로서 우리의 여권에 표시 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대기실에서 세계일주중인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먼저번 어떤 한국인이 이곳에 들어오려다 우리와 같은 이유로 입국허가를 못받고 24시간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큰일이다. 싱가폴 문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된다니…….

걱정을 하고 있는 중 우리의 입국허가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건축사의 위치는 세계각국에서도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의 수준과 동등한 후대를 받는다는데 이곳에서도 그런가보다.

건축사 싱가폴시찰이라니 즉석에서 허가되었다.

서울변두리 부동산업자속에 끼어 치열한 경쟁으로 덤핑을 사수 해 오며 허가만을 뽑아 주는 시시한 기사로 밖에 생각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안다면 입국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콘베어벨트 위에서 돌아가는 각자의 짐을 챙겨들고 공항밖으로 빠져나오니 이미 뻐쓰는 대기하고 있었고 싱가폴 여행사의 일본여인 안내로 Royal Hotel 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한국 여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지배인의 배려로 시간이 아닌데도 노래를 불러 주었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한국가요 노란샤쓰의 사나이를 들으면서 저녁식사를 끝냈다.

그 후로 자유시간이라서 Roommate 와 싱가폴의 야경을 보기 위하여 택시로 드라이브 해 보았다.

인구250만의 이 도시는 중국계가 70%, 마레이지아계가 10%, 인도계가 10%, 기타 영국 일본등으로 구성되었다하는데 사용어로선 마레이지아어, 영어, 중국어등이 사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도 일본어가 잘 통하는 곳이다. 년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단다.

3월 5일 아침 9시 호텔을 출발하여 뻐스로 시내를 돌아보았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고 푸른 수목 사이사이에서 고층빌딩이 하늘로 치솟아 도시 미는 더 말할 수 없다. 아마도 이곳의 건축공지비는 10%정도도 안되는 것 같다.

시내 일원이 대단이 깨끗하고, 담배꽁초라도 버리게 되면 4만원정도의 벌금이 규정 되었단다.

일행은 식물원으로 향하였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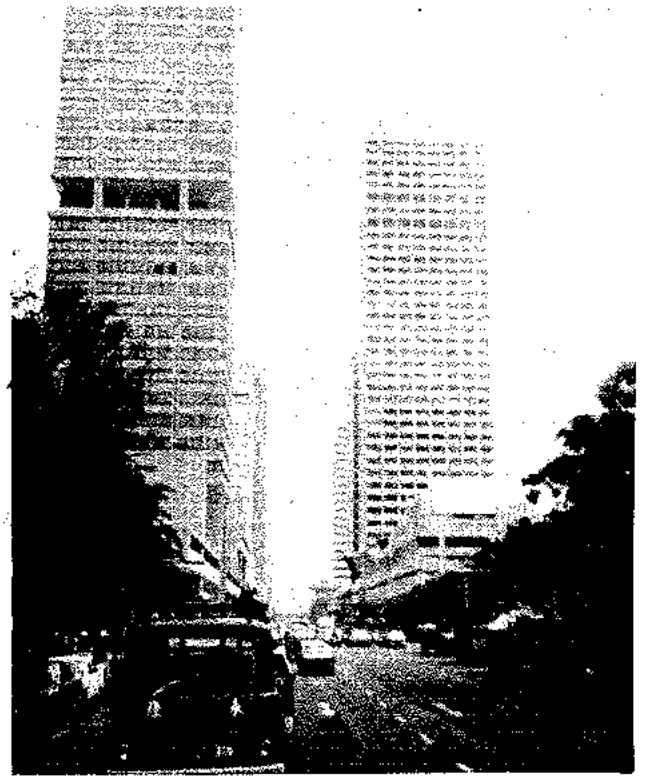
하루에 한번씩 소나기가 오고 온도가 높아 열대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라서 별도의 온실이 필요없고 공원자체가 식물원인데 그곳에서 본 난초는 이 나라의 상징이라며 지폐에도 난초가 인쇄되어 있었다. 높이 40cm정도의 난초가격을 물어보니 4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난초의 뿌리는 바람을 통해야 자란다고 하는데 화분에 담겨진 것은 흙이 아니고 숯과 자갈인데 그 사이사이로 뿌리가 엉켜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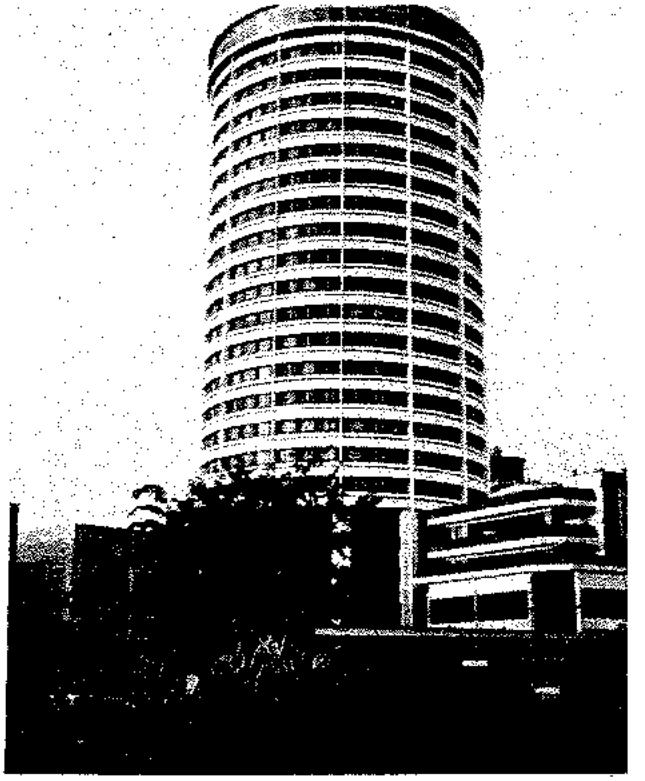
이곳은 적도 근처이기 때문인지 정오경에 태양의 고도는 머리위로 올라가 있어 사진찍는데 역광을 고려 할 필요가 없었다. 부두 근처에 들려보니 일본건설회사 「大林組」가 항만준설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부두근처에 초고층빌딩이 많아 바다에서 보는 싱가폴은 퍽이나 아름다울 것 같다. 이곳에서 떠나 싱가폴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Mount faber 에 도착 사진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서울의 남산격이 되는 이곳 주위는 각종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싱가폴 부두 근처의 고층건물



원형의 고층빌딩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찾은 곳이 바닷가 마레이지아 식당인 Paradise 인데 단층 건물인 이 식당은 평면의 계획이 정원과 어울리는 여유있는 설계였고, 지붕처리는 함석 종류로서 독특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 건물을 일행중 누군가가 新建築 잡지에서 본 일이 있다고 말한다.

실내에 자리를 한 손님들 중 우리들을 제외 하고는 거의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떠들어 대는 소리는 식당 전부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식사 후 자유시간이 있어 일행 몇명은 밀집된 시내 빌딩사이로 차를 몰았다.

차이나타운, 퀸스타운 아파트단지를 경유하며 Haw Pavila 를 보았다.

숙소인 Royal Hotel 은 톰슨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중 택시 운전수에게 톰슨가의 로얄호텔이라 이야기 해 주었더니 얼마쯤인가 시내를 맴돌다가 로얄호텔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는가.

돌아갈 시간은 약속되어졌는데 이 운전수 목적지를 모르니 큰일났다. 운전수는 중국계인으로서 영어는 우리보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련지 알 수 없다. 이곳은 일방통행이 많아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도 뒷쪽으로 돌아야 할 때가 많다.

호텔옆에 우뚝 솟아있는 둥그런 빌딩을 눈여겨 보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운전수에게 그 빌딩 근처에 대어 달라 손짓하니 고개만 끄덕이면서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다.

운전수가 길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 더 이상 이 택시를 타고 우물쭈물 할 수 없는 촉박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어 다른 차로 갈아 타고 호텔로 향하다가 일행 한명이 "앗"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 안에다 카메라를 놓고 내렸다지 않는가!.

바쁘긴한데 어이없는 일이다.

호텔로의 직행을 포기하고(다행이 그 택시의 번호를 기억할수 있었기 때문에)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향하였다. 숙달되지 못한 영어솜씨로 나마 신고를 하니 아주 친절한 태도로 한번 잊어 버리면 찾기 힘들고 운전수가 자발적으로 가져오기만 기다려야 한단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일행은 이미 Queen garden 으로 떠난 후 였다.

싱가폴 지도상에 미리 위치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20여분 이상이 걸려 고생없이 Queens garden 주차장에 대어 주었다. 일행은 벌써 식사 중이었다. 이곳은 야외식당으로 음악을 들어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고생이 많았으니 특별히 벌금을 안받겠다는 단원들의 이야기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호텔에 돌아와 보니 카메라를 찾았다는 연락이 경찰서로 부터 전달되었다. 몹씨 반가운 일이다.

싱가폴의 경찰이 친절하더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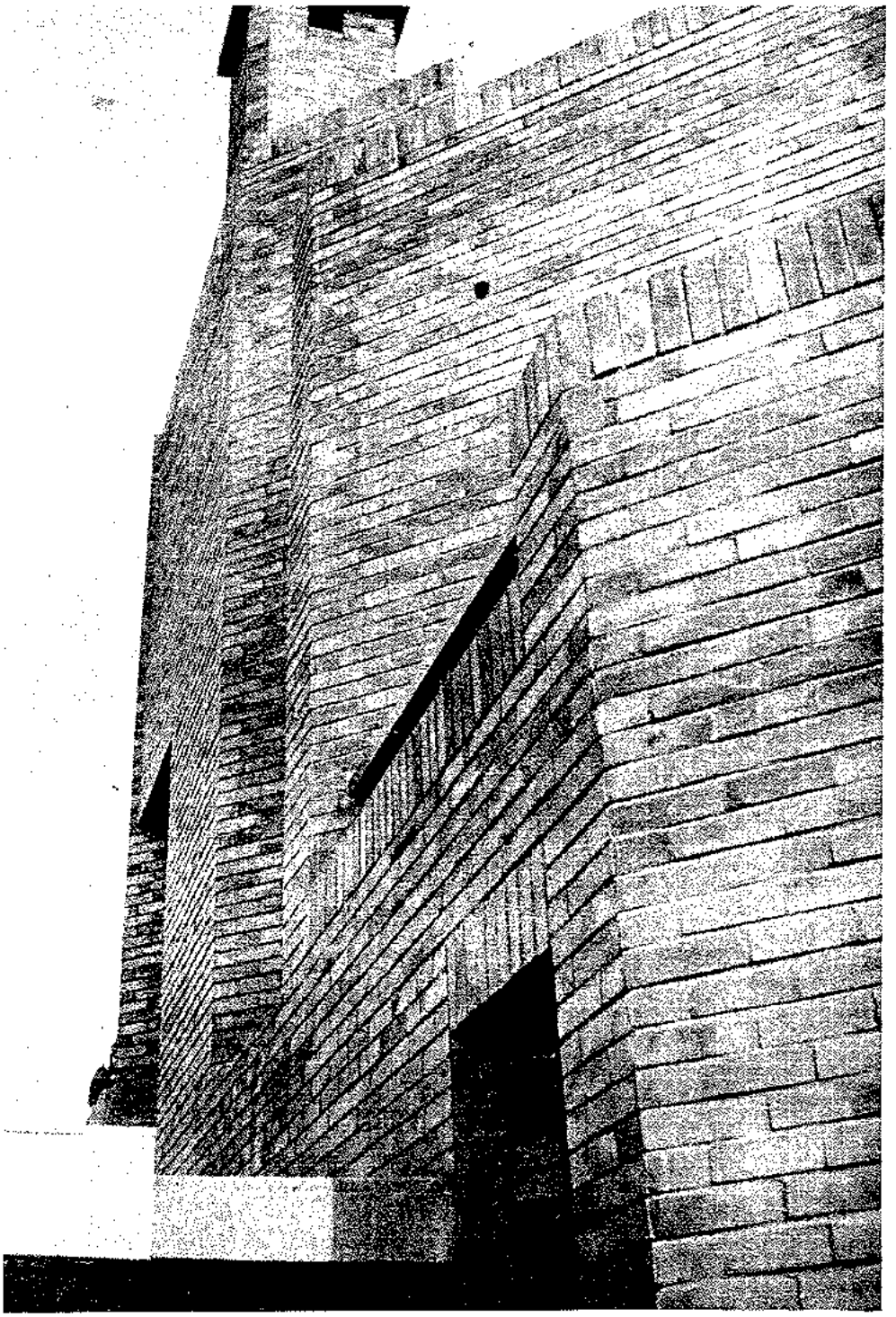
싱가폴은 방콕과는 달리 깨끗하였고 건축중인 고층건물, 고층맨션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일행은 시공중인 맨션아파트 현장에도 들려 볼 수 있었다.

25층 정도의 Tower 식 맨션이었는데 발코니의 조개껍질 같은 곡선이 재미있었다.

인구는 늘어가고 영토는 적고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니 고층아파트를 건축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은 우리나라와 다를바 없었다. 일부에서는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동남아 시찰중 가장 건축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50여층의 Core system 건축물이 시내에 많이 건축되고 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선 좀 더 머물면서 설계, 시공에 관한 여러가지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 싶은 마음이나 계획대로의 움직임에 미련을 두고 떠날 수 밖에…… (계속)



設計概要

대지의 향은 동남향이고 건축주의 요구 조건은 4명의 아들들은 2層에서 生活케하고 1層은 부부만 의 생활공간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다.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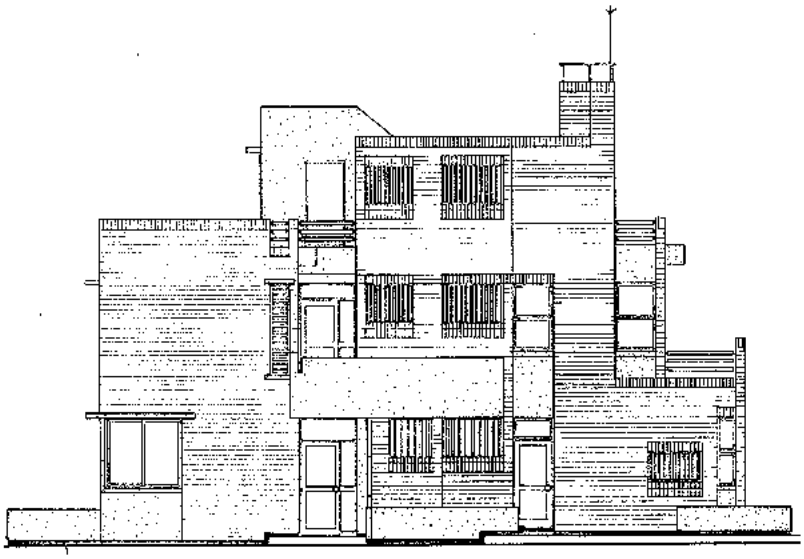
전외상 북측면(뒷면)은 진입로에 평행으로 잡어놓고 기타의 면은 뒷면과는 관계없이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동측과 남측을 동시에 면하도록 계획했다. 어느한 공간을 위하여 어느 다른 공간이 희생당하여서는 않되겠다. 또 4명의 아들들은 전부 학생들이며 공부시간이일치하지 않을 것을 감안 소음에신경을 써서 각실의 독립성에 신경을 썼다. 결과 외형에서는 북측의 135°의 벽면조화가 신비로움을 주며 기타의 면에서는 기능과 미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팬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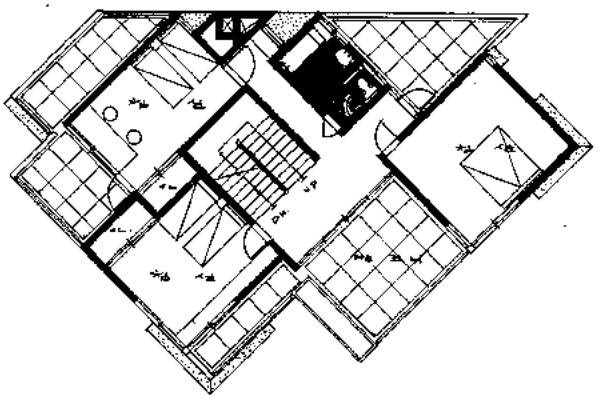
設計 : 曺亀鉉
(曺亀鉉建築設計事務所)

대지의 위치 ; 용산구 효창동
착 공 ; 1972년 3월
준 공 ; 1972년 8월
구 조 ; 벽돌조벽, 철근콩크리트스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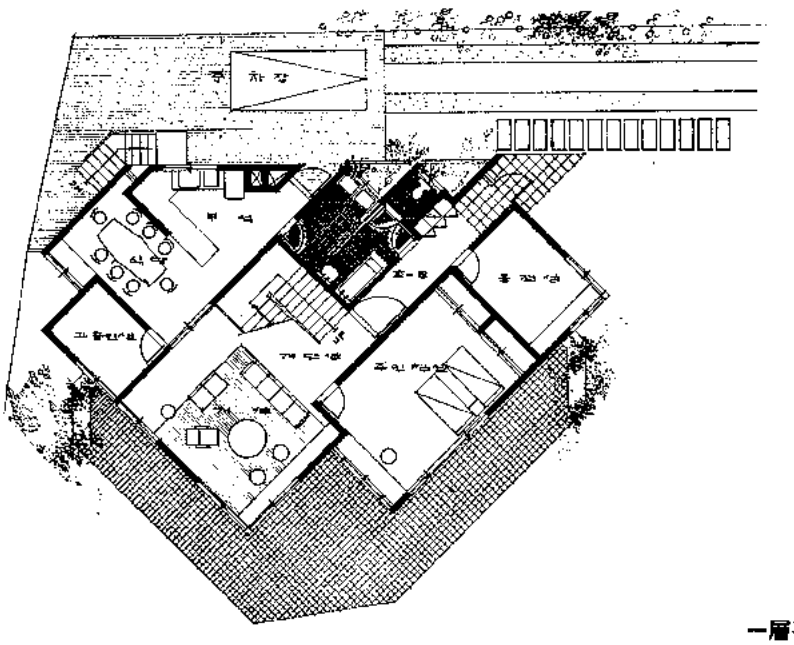
대 지 면 적 ; 210평
지 층 면 적 ; 10평
1 층 면 적 ; 45평
2 층 면 적 ; 25평
옥 층 면 적 ; 11평
연 면 적 계 ; 9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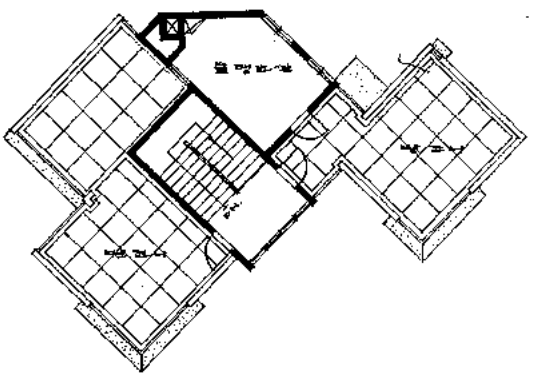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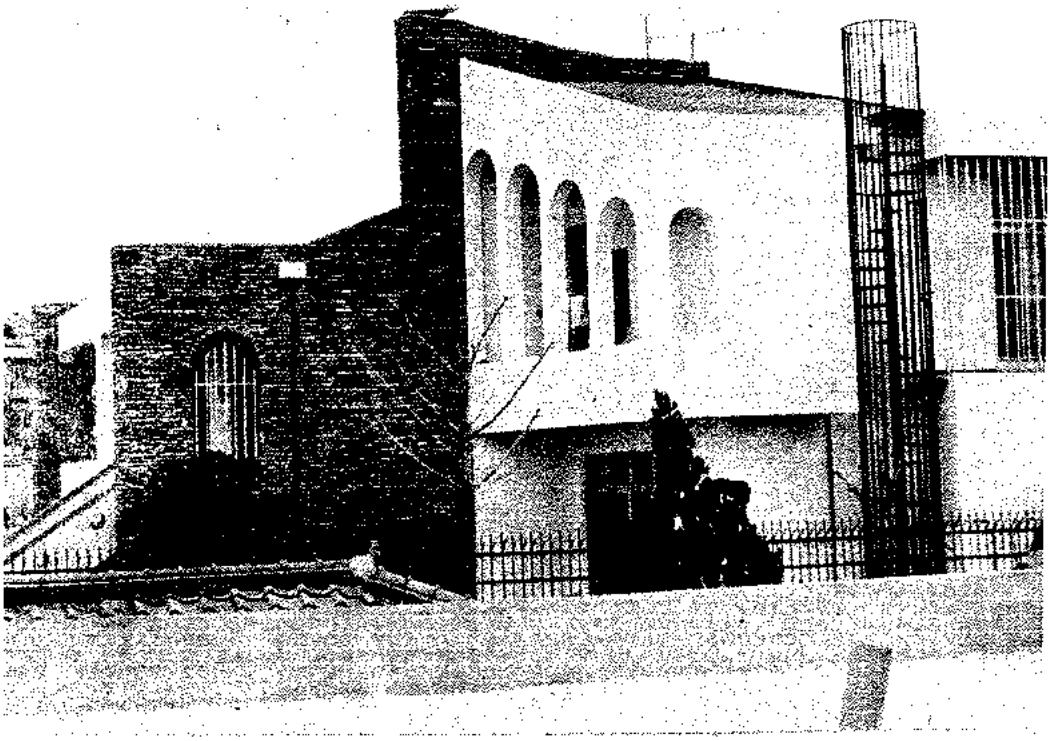
二層平面図



一層平面図



펜트하우스 평면도



設計概要

주위에 퍼지는 自然의 입김은 우유빛 계곡을 이동시켜 이곳 천호동에 L氏로 하여금 주추를 놓게 하였다.

73년 후반기부터 "한국일보"에 주택과 환경란과 생활의 지혜란에「熱管理住宅」에 관한 본인의 원고를 보고 찾은 L씨의 요구조건은 첫째 열관리를 철저히 한 주택, 둘째 유행에 따르지 않은 주택, 셋째 이상적인 평면구성과 외관 고려란 조건이었다. 그중 세번째에 이상적인 평면구성으로 많은 신통을 겪은 결과 주인과 접대+식사와 오락+교육과 서재+관리와 보관의 四分으로 배치했으며, 주위의 여건에 맞추어 외관의 배색을 검은색과 백색으로 한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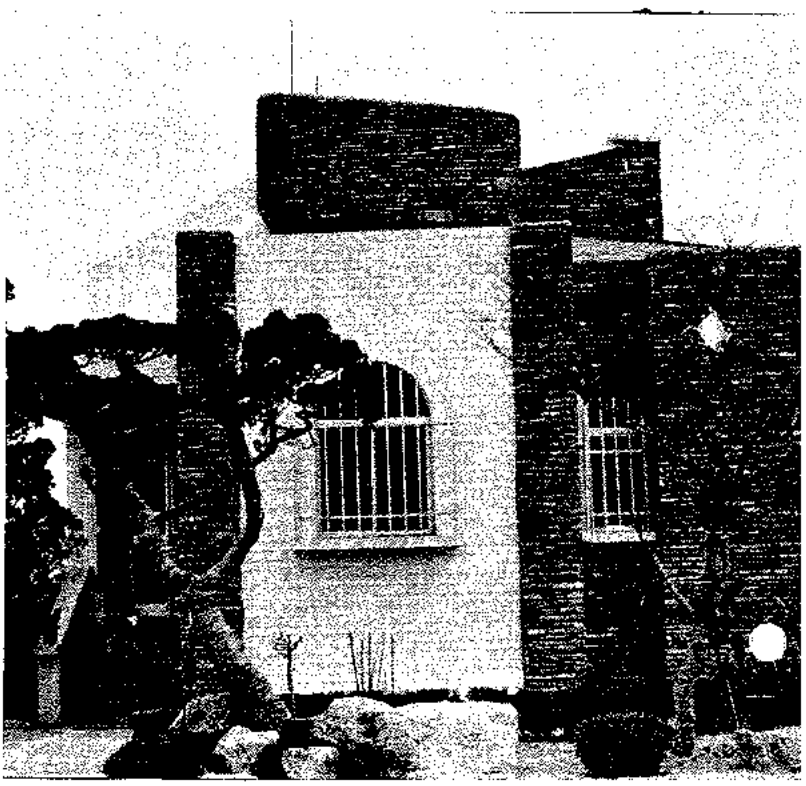
물론 여러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도 고려하였다. 평면공간에 유실을 피하 고 좌측 측면에 비교한 단순함을 카-바하기 위하여 지붕부분 물탱크와 보수통로, 연결을 위하여 비상계단 구축에 이른것은 工事가 70%까지 공정에 이른 후였다. 1층 거실과, 중2층 서재에 天井板 은 같은 높이에 반수직으로 처리했으며, 배치카벽측엔 자연석으로 고전에 풍미를 더했으며 Dining room 과 Recreation area 를 G.L과 연결 시킨 것은 수평동선을 고려함에서였고 中2 2층에 서재와 교육공간을 둔 것은 조용함 과 연결 동선을 피했고, 어른들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였다. 熱管理는 외벽에 공간쌓기+스티로폴 25M/M使用 天井에 스티로폴 25㎜ 와 인슈레숀 25㎜ 바닥엔 인슈레숀 25㎜ 와 질석 50㎜ 를 使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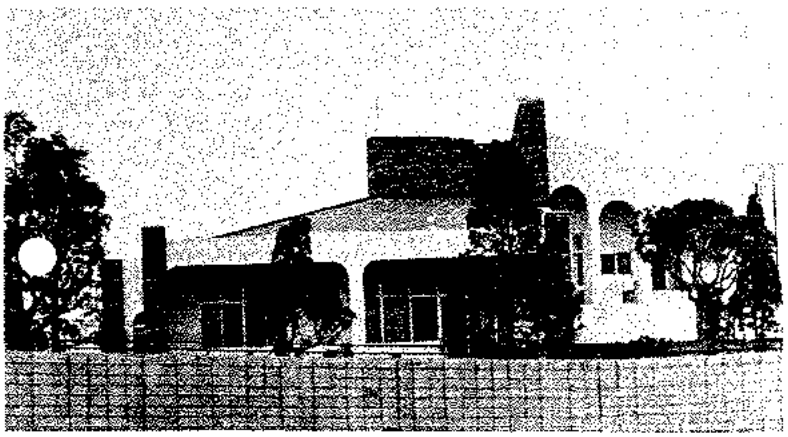
李氏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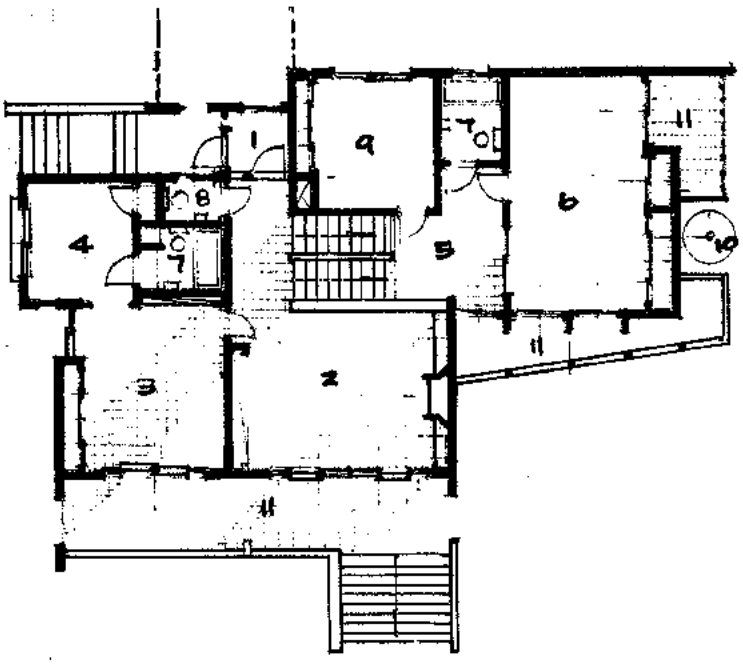
設計：李鐘寬

(韓國建築技術研究所)

位置：서울 城東区 千戸洞
構造：철근 콘크리트 연와조
規模：1層 52평
　　二層 25평
　　地下層 13평
建地面積：370坪
設　　備：공기조화 온수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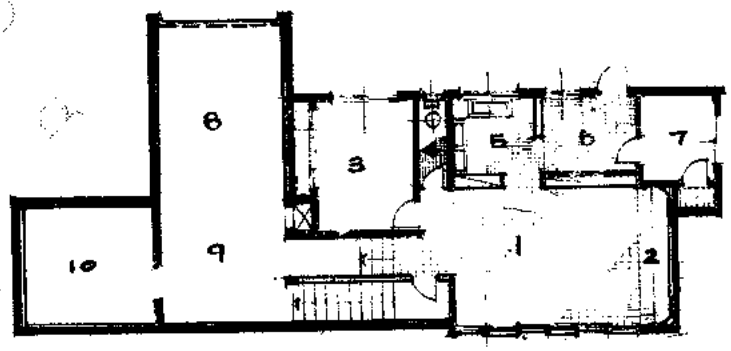




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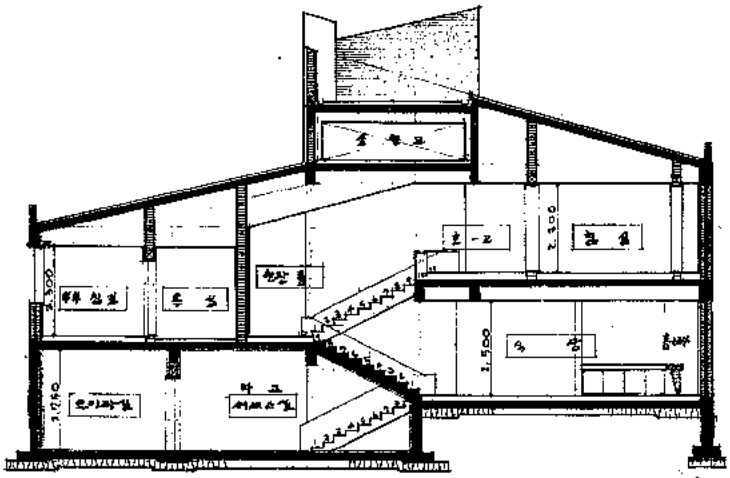
1. 현 관
2. 거 실
3. 부 부 방
4. 부부침실
5. 계단홀
6. 가족실
7. 욕실·변소
8. 변 소
9. 서 재
10. 비상계단
11. 테러스

주단면상세도



1. 식 당
2. 홈 빠
3. 침 실
4. 변 소
5. 부 엌
6. 세 탁 장
7. 고용인실
8. 차 고
9. 써비스실
10. 보이라실

一層平面圖



Ukay 高地의 六角形 住宅

설계 : M/S Roya Group Akitek Sdn.

소유주 : Mr. Lai Lok Kun

구조기사 : M/S. Kumarasivam & Lim Consultant Engineers.

設計內譯 :

Kuala Lumpur의 북동쪽 교외에 있는 Ukay 高地는 로얀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이다. 이 지대는 자연으로써 경사져 있지만 주위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 斜面에 적절한 構造기술을 실험할 기회로서 Mr. Lai는 여기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대지를 매입했다.

이 구조방법에서 바닥에서부터 두개의 콘크리트 받침대를 세우는 것이 있다. 금속 Sheets로 된 육각형 목재틀은 Suspension Cables의 도움으로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다.

받침대들은 주실, 에어콘설비실, 공냉탑실, 하수소통, 탱크실을 포함한 지하층으로 이로 인해졌다. 제거된 흙덩어리는 지하층 바닥, 주인방, 이런이 방으로 구분된 1층 생활 공간이 된다.

이 건축은 건축의 외관과 세련된 상세한 구조를 통한 미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더욱 더 이것은 순수한 구조원칙은 자연의 원칙적인 형태를 실현하는 기하학적 형태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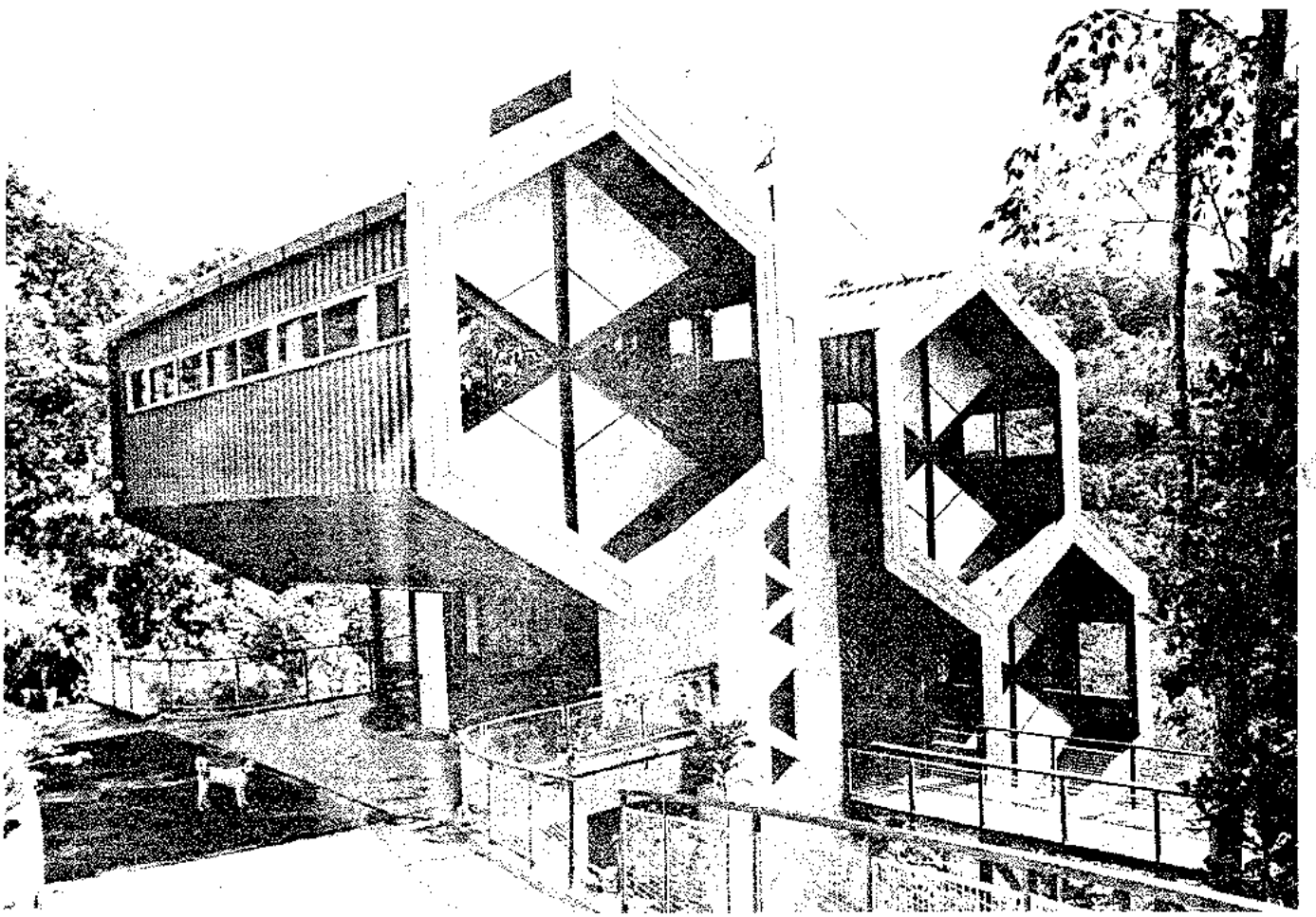
자연속에 서있는 이 建物은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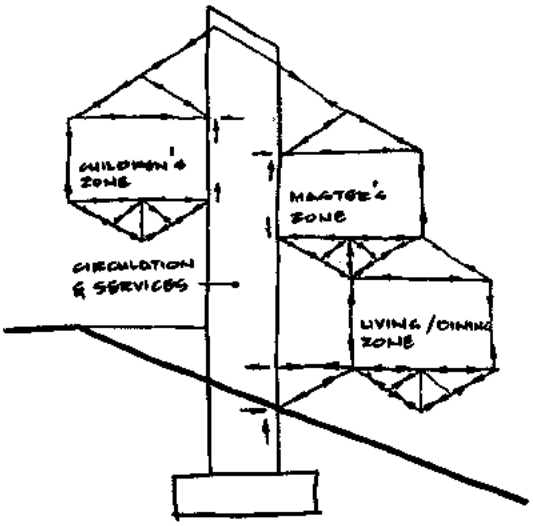
위 치 : Lot 1639, Jalan Tebu, Ukay Heights, Kuala Lumpur Malaysia.

대지면적 : 14,000sq. 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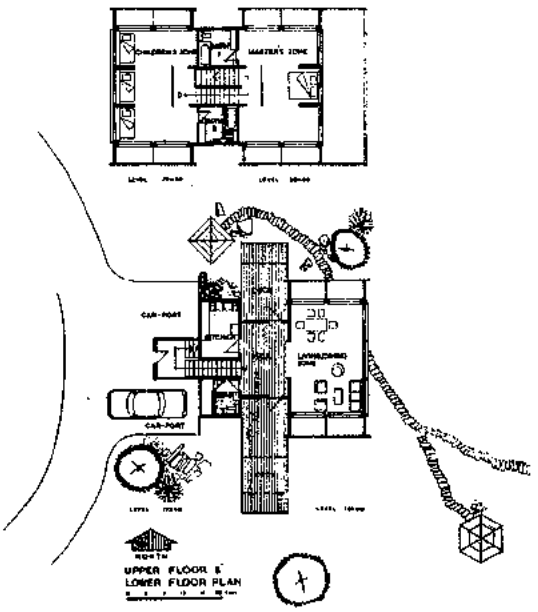
건축면적 : 2,240 sq. ft – Covere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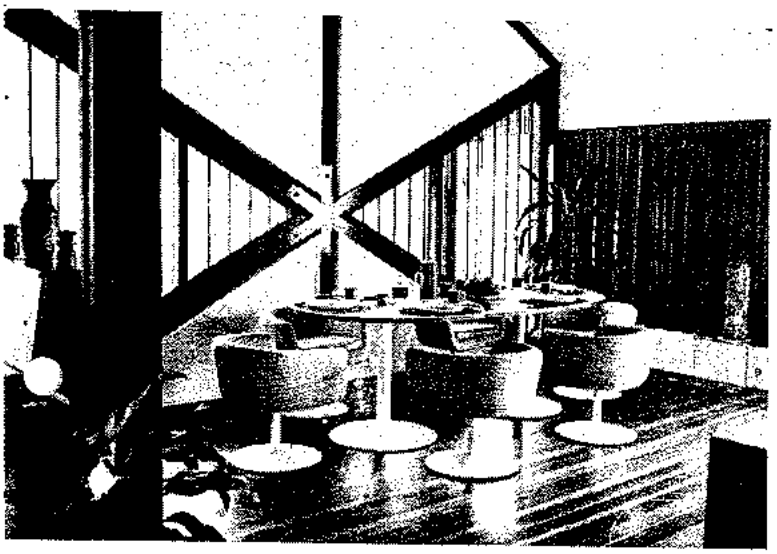
320 sq. ft – Open entertainmen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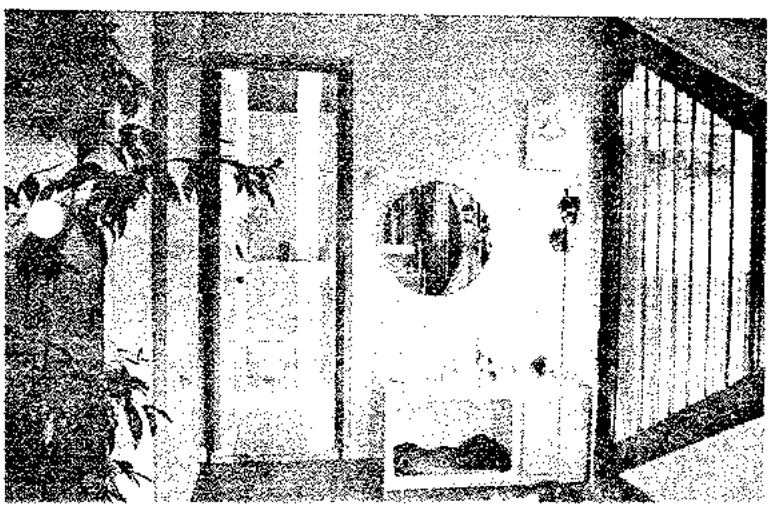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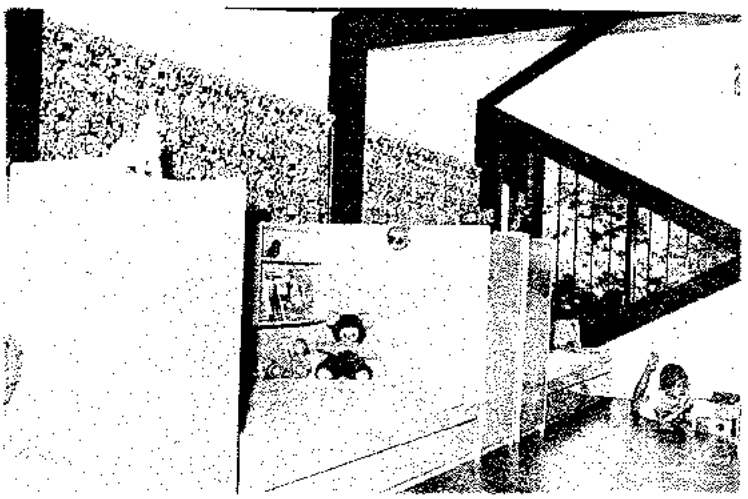


STRESS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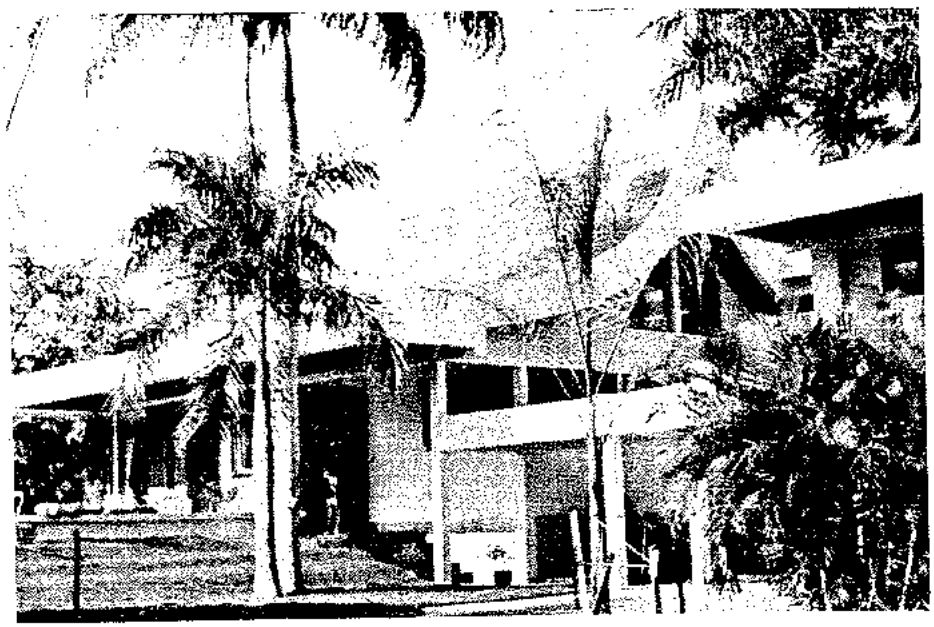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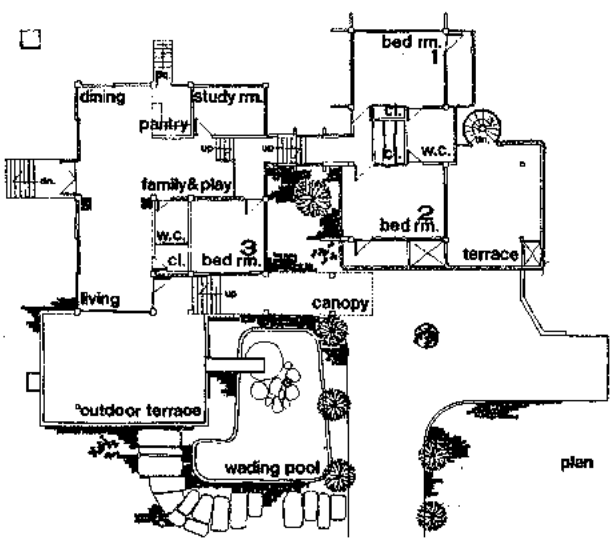




House for Khun Suebchai Chainuw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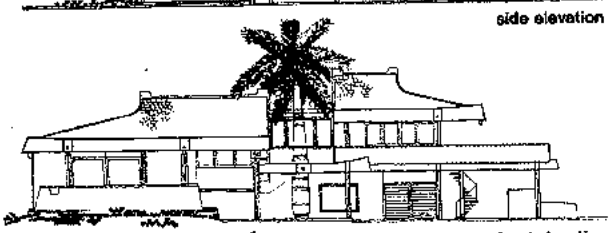
(泰國 編)　設計：MANOP PONGTHAT





plan

sid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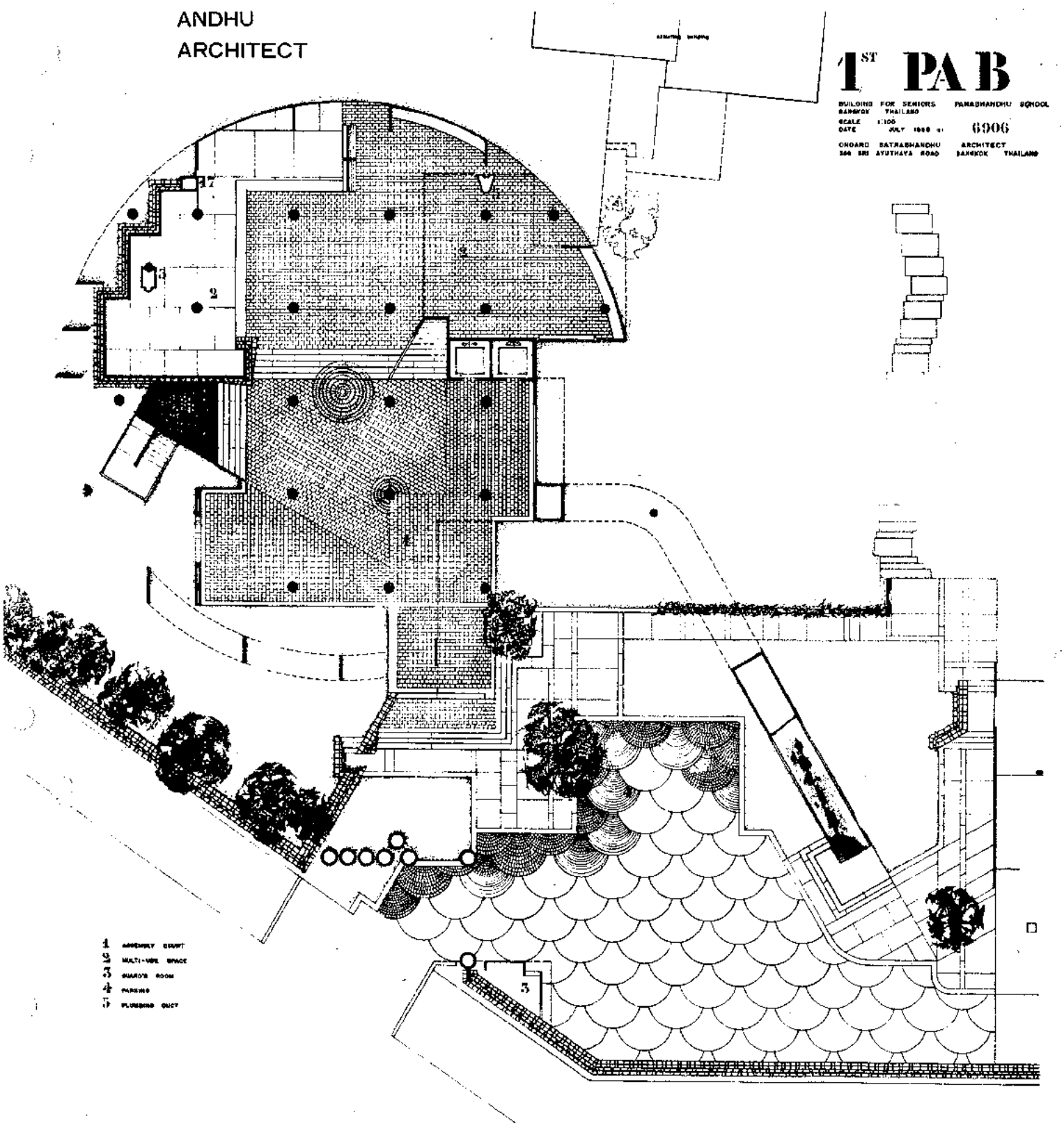


fron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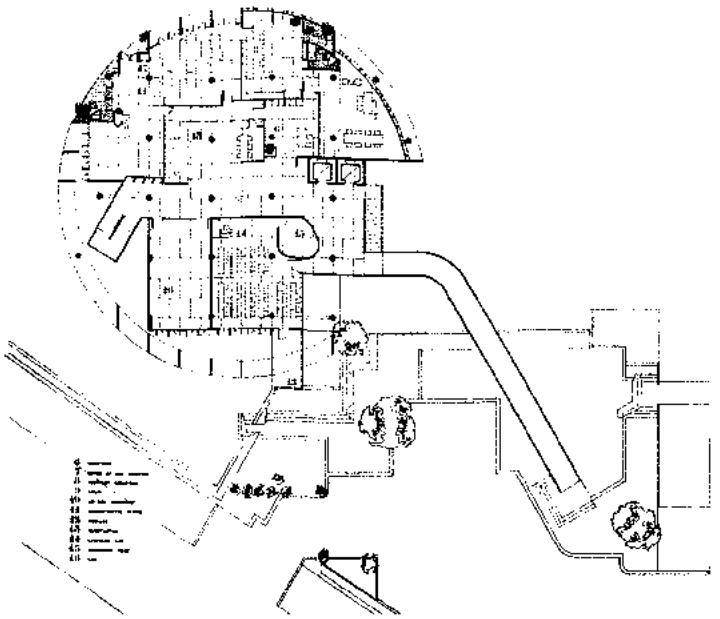
โรงเรียนปานะพันธุ์
panabhandhu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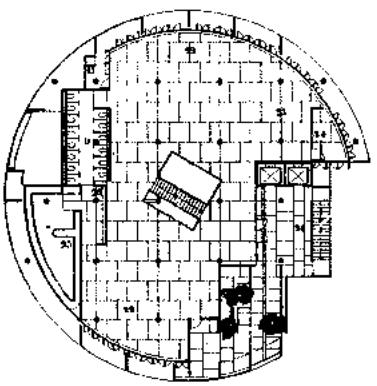
(泰國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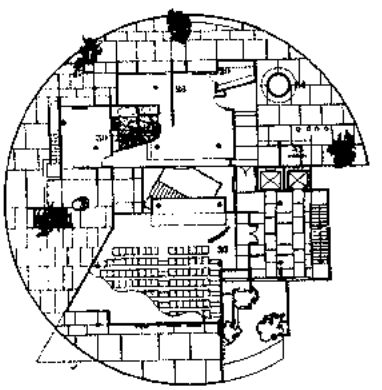
設計 : ONGARO SATRABH-
ANDHU
ARCHITECT



2nd P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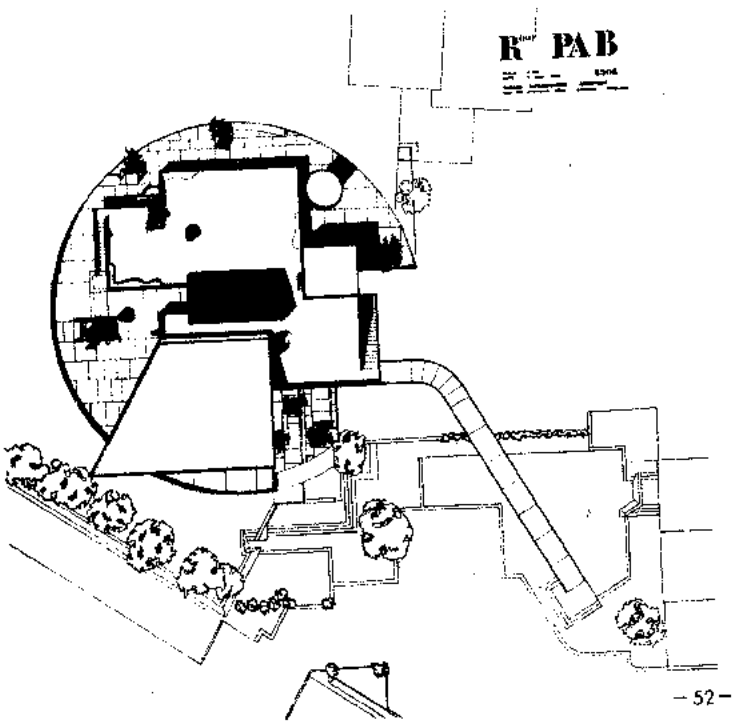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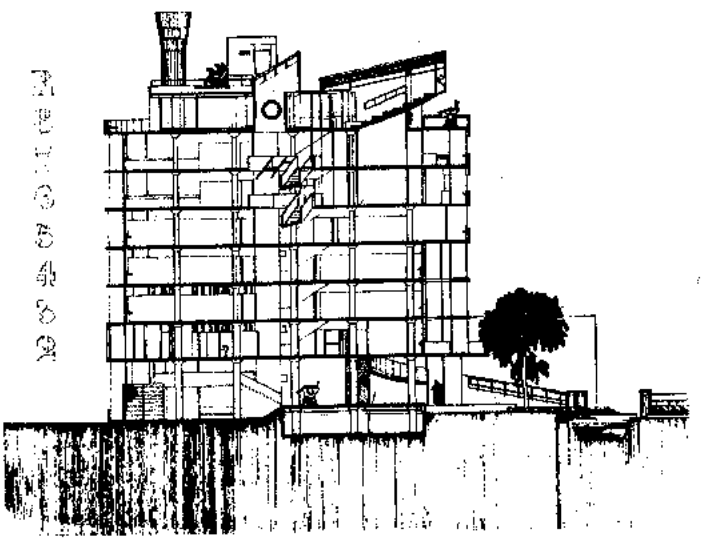
6th PAB

8th PAB

8th P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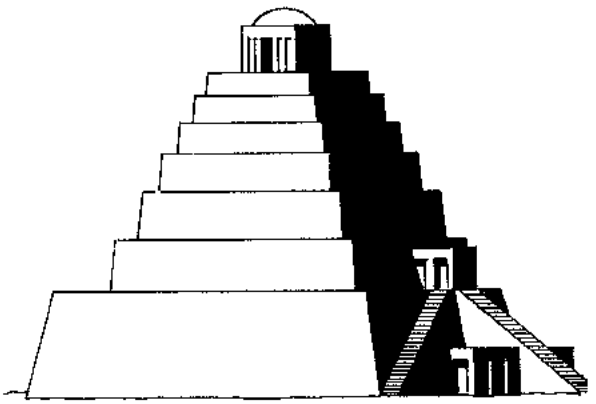
5th P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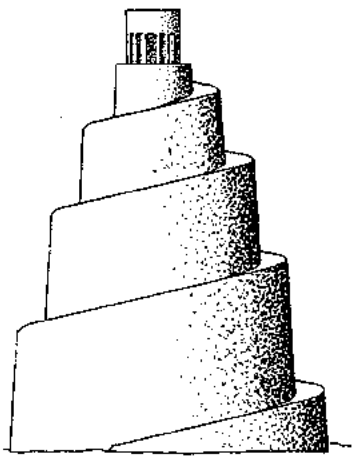


西洋建築樣式의 比較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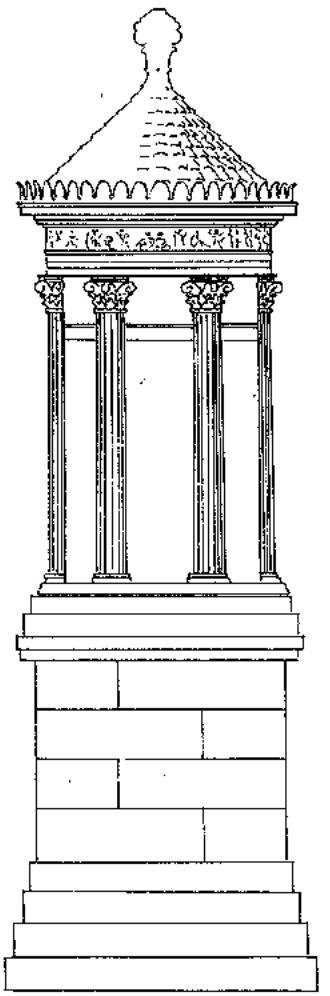
塔 編

Tower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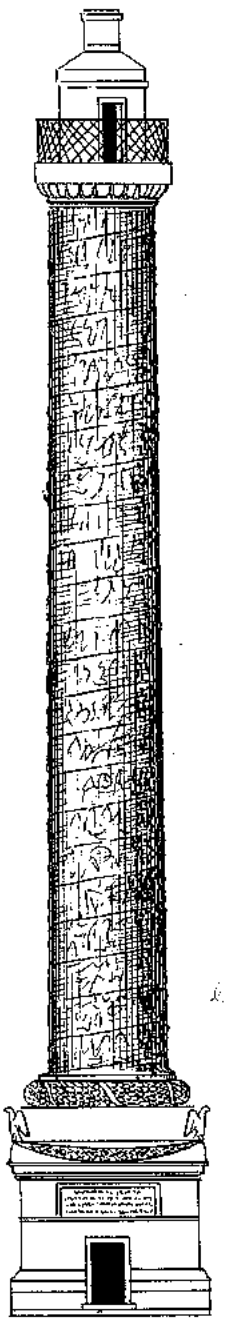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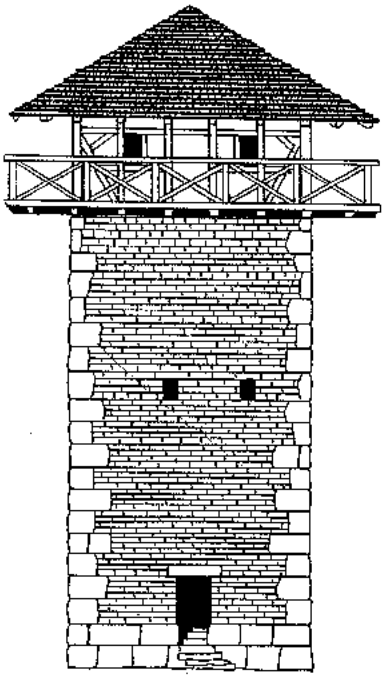
오리엔트탑의 초기형태
(上) 지구라트(바빌론)
(下, 左) 나선형 탑
(下, 右) 전투시 방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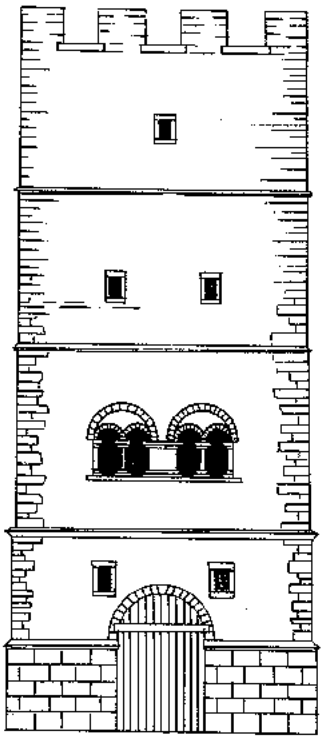
그리이스式
개정된 둥근 사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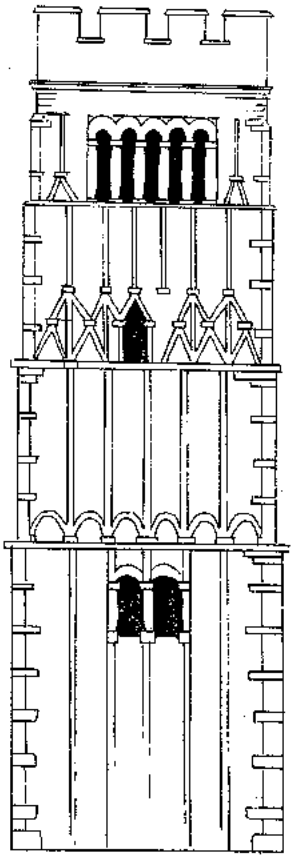
로마式
독특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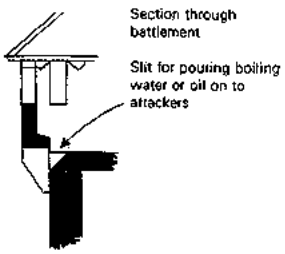
로마式
상부구조는 나무로 한 망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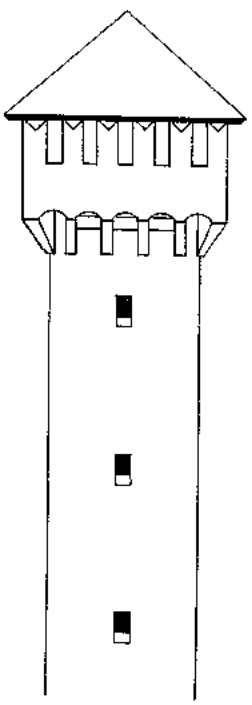


프랑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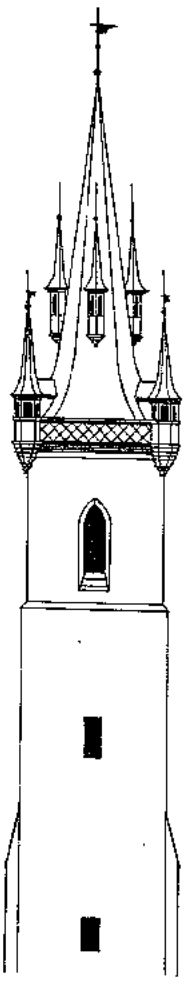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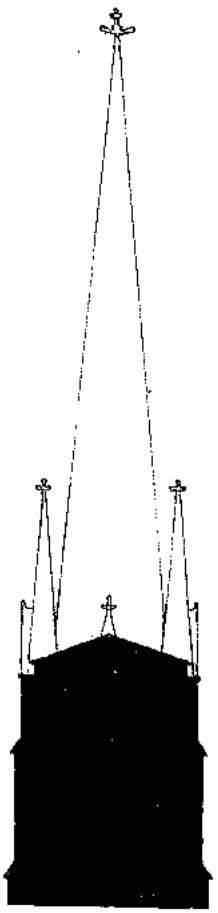
색슨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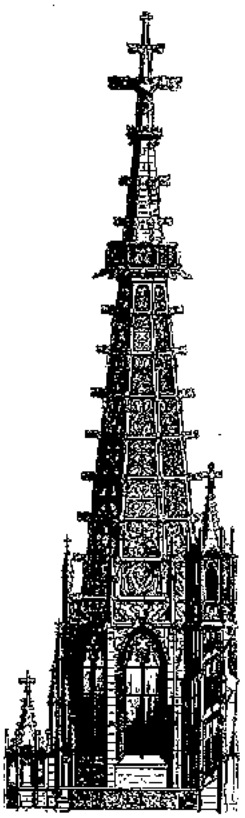


고딕式
전투時 방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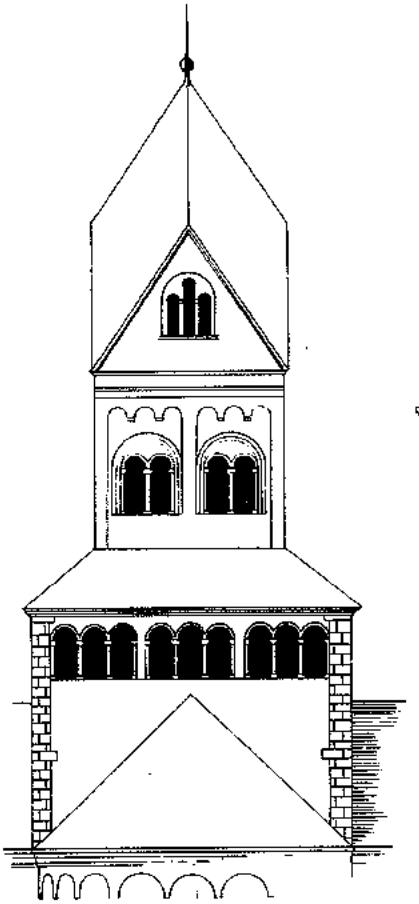
고딕식
프라그의 Teyn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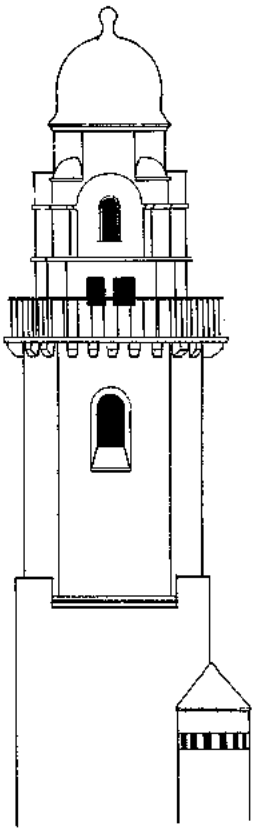
고딕式

Towers 2

로마네스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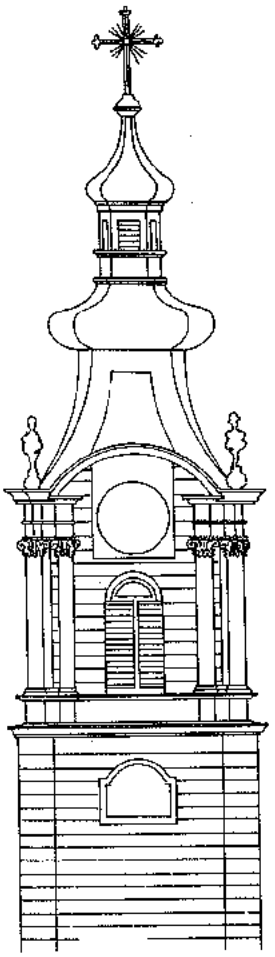


조그만 종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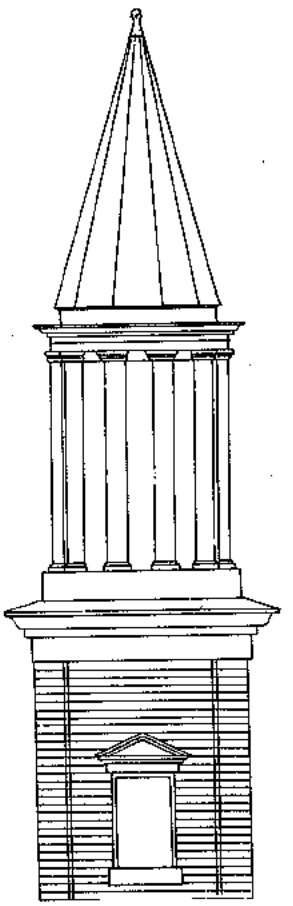
마호멧교式

회교사원의 뾰족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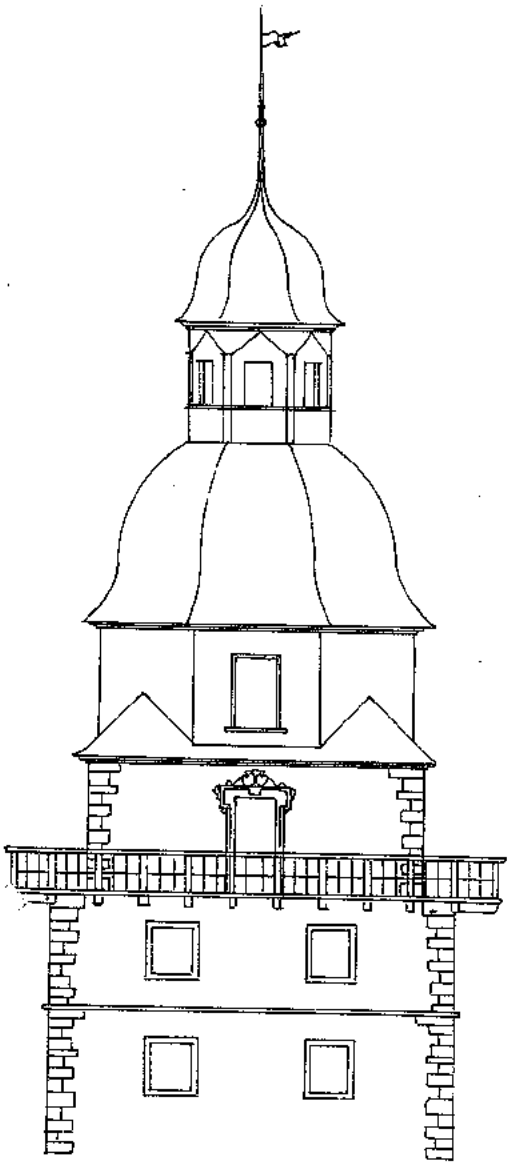
바로크式

바로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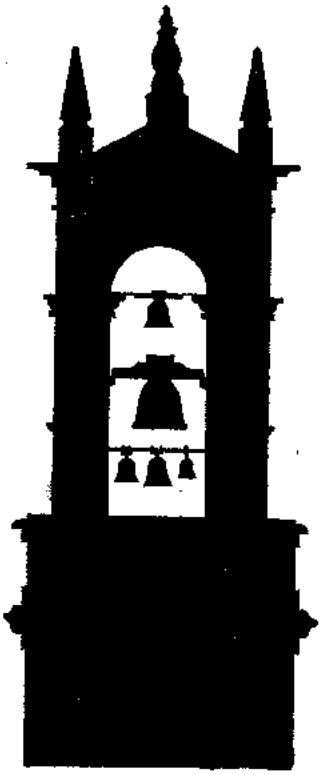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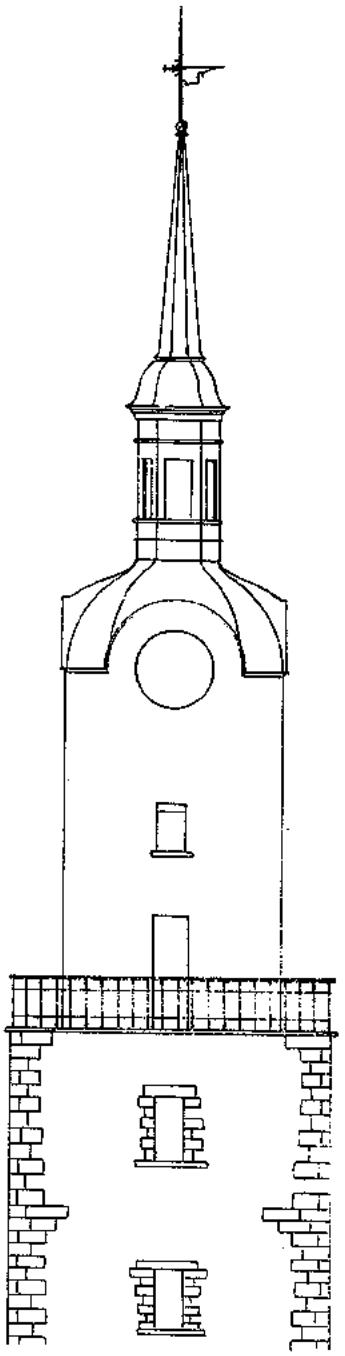
신고전

Towers 3



르네쌍스式





르네쌍스式

規格資材使用指針

건 설 부

1. **적용범위**

   국민주택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85평방미터 미만의 일반주택에 적용한다.

2. **표준창호 개구부**

   창호 개구부는 별표 I 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만을 위한 것과 같이 특수한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규격조적재의 사용**

   벽, 기둥, 기초 등 주요구조부용으로 사용되는 조적재는 별표2 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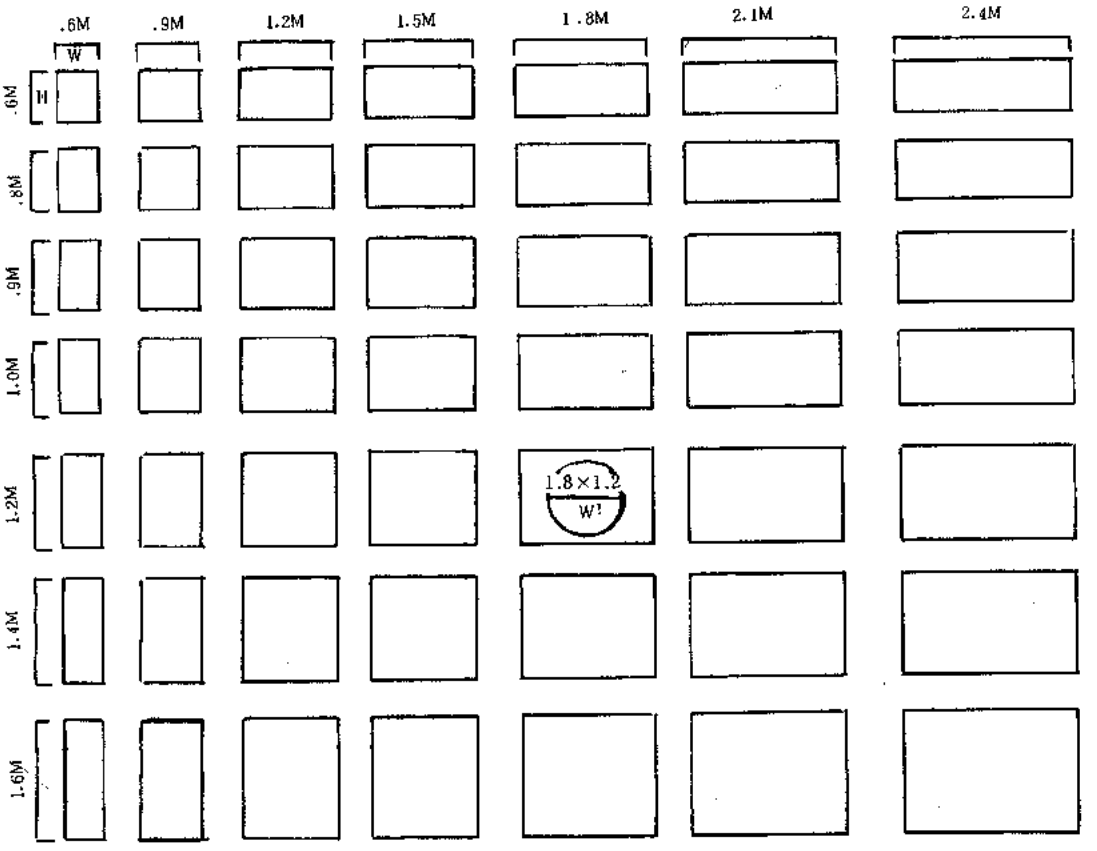
4. 건축허가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는 표준화된 개구부의 규격과 규격자재로 설계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허가 및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심사와 공사 검사결과 본 지침에 위배될 때는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지침적용은 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창개구부의 규격**



(1) 1 M = 100 cm

(2) 허용치는 ± 5 ‰

(3) W는 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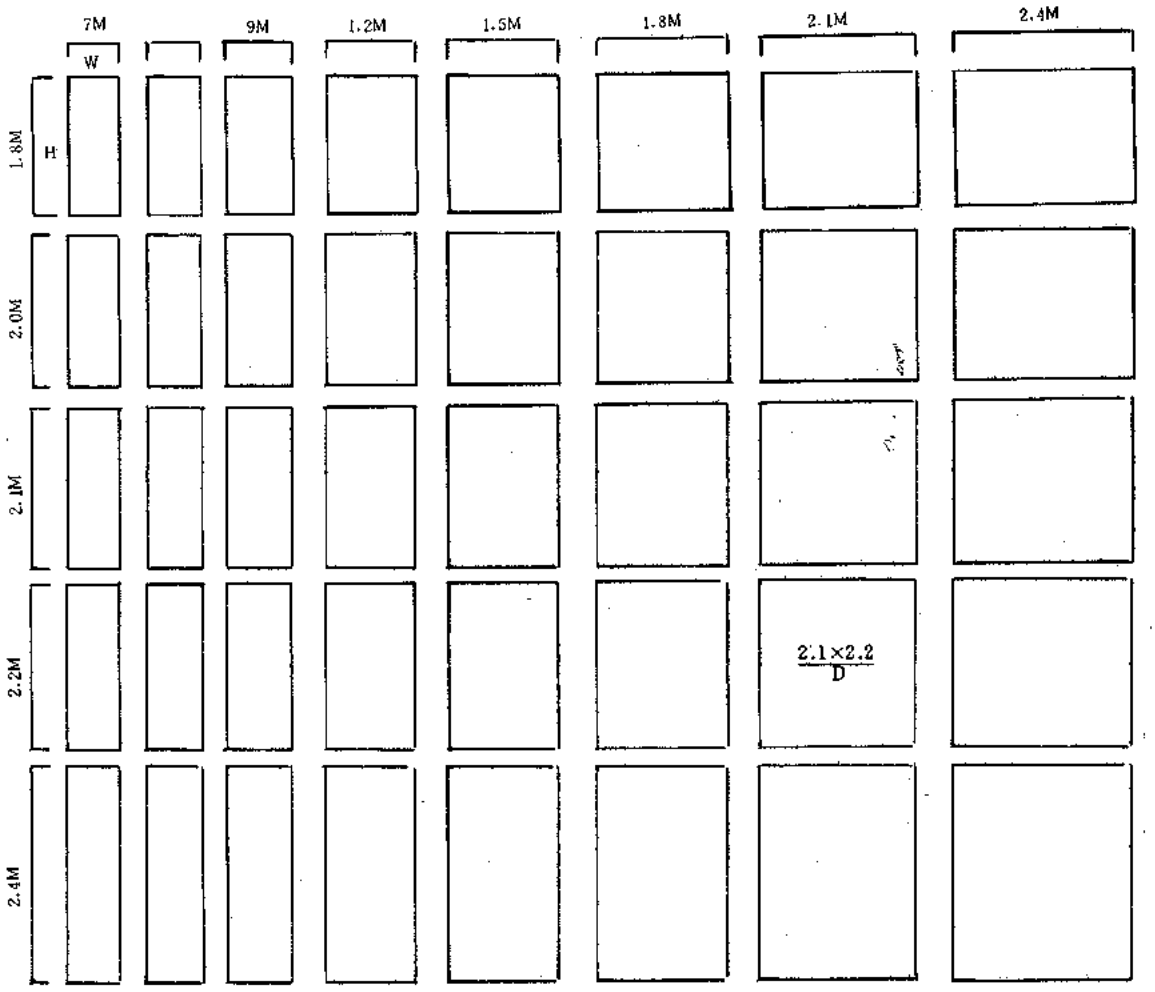
(4) 규격은 외각치수임. ※도면상에는 기호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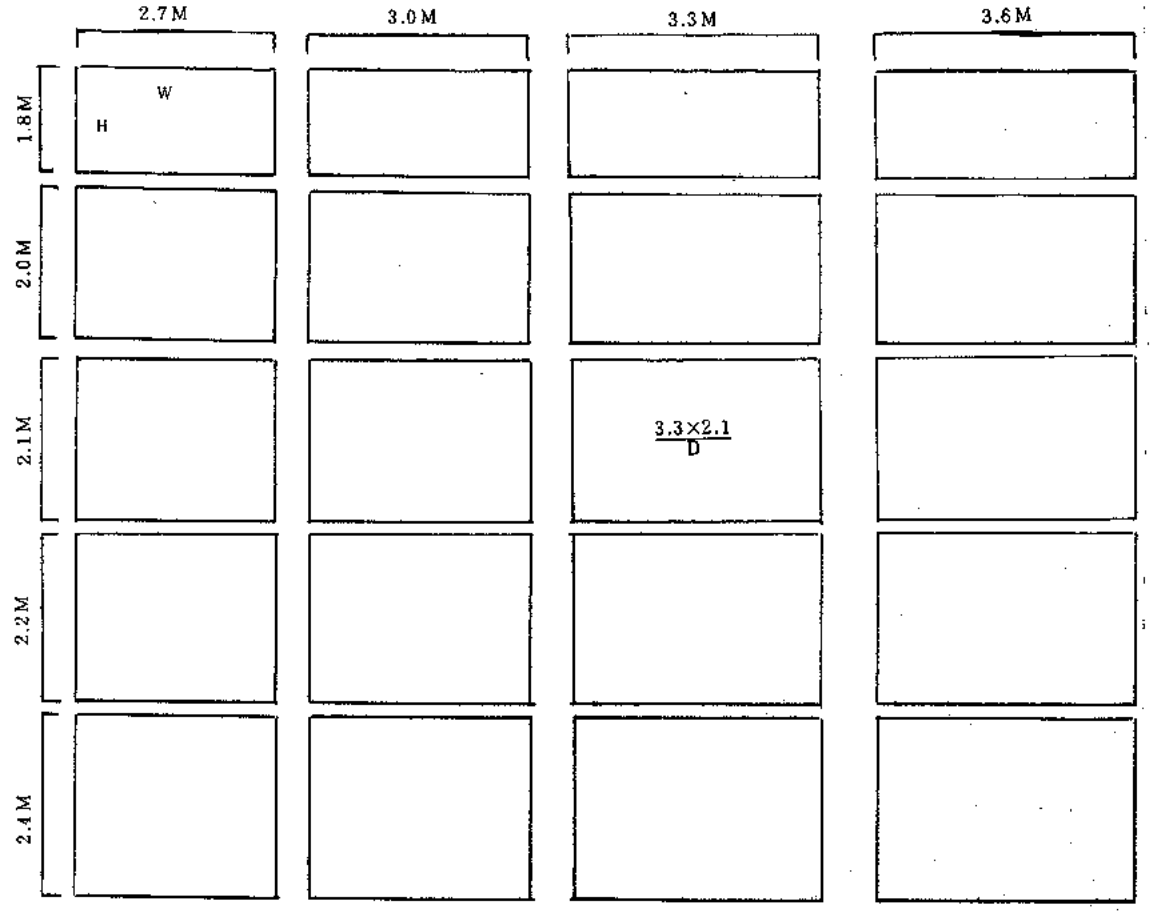
(예) $\frac{18\times12}{W}$ 18은 수평방향 12는 수직방향

(1) 1 M = 100 cm
(2) 허용치는 ±5 ‰
(3) W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4) 규격은 외각치수임. ※ 도면상에는 기호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예) $\frac{21\times18}{D}$ 21은 수평방향
18은 수직방향

2) 문개구부의 규격





(별표 2)

1) 소성벽돌(보통벽돌)

(단위 : ㎜)

구 분	길 이	폭	두 께	비 고
규 격	190	90	57	압축강도 100kg/㎠ 이상
허 용 치	±3	±3	±4	흡수율 13% 이하

2) 소성블록

(단위 : ㎜)

구 분	길 이	높 이	두 께	비 고
규 격	290	150	90	압축강도 60kg/㎠ 이상
	290	100	90	흡수율 16% 이하
허 용 치	± 4	± 4	± 4	

(단위 : ㎜)

3) 시멘트 벽돌

구 분	길 이	폭	두 께	비 고
규 격	190	90	57	압축강도 50kg/㎠ 이상
허 용 치	+ 3 − 2	+ 3 − 2	+ 3 − 2	

4) 시멘트 블록

(단위 : ㎜)

구 분 / 규 격	길 이	높 이	두 께	비 고
190	290 390	190 190	190 190	압축강도 40kg/㎠ 이상
150	290 390	190 190	150 150	
100	290 390	190 190	100 100	
허 용 치	± 2	± 3	± 2	

내 祖國 내 民族은 우리가 死守한다

너도 나도 總力安保 北傀蠻行 粉碎하자

大韓建築士協会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특정지역의 범위) 영 제3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0조의3 (면허받지 아니한 자재의 사용 승인 신청) 영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면허받지 아니한 주요구조부용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 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1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하수도 통신 및 시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말미에 우편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별종류	규 격
부대시설 하수도	단지 전체의 우수, 유수, 오수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서 도시전체의 기본하수도 계획과 합치되는 시설
통 신	300세대당 공중전화 1대의 비율(전화가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복리시설 시 장	1,000세대 이상일 때 1개소(다만, 1,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200세대당 1점포(45평방미터 기준)의 비율의 점포
우편함	500세대 이상일 때 1개소 (다만, 500미터 이내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자재생산업면허기준

〔별표2〕

업종별	면허기준 (시설별 기준)	
점토소성 제품(벽돌 블록) 생산업	1. 배합 및 토련 시설	(1) 분쇄기 : 1대이상 (2) 토련기 : 1대이상 (3) 성형기 : 1대이상 (4) 절단기 : 1대이상 (5) 콤베야 : 1대이상
	2. 소성 시설	터널롯(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윤요(14문이상) : 1개소이상
	3.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 : 6,600평방미터 이상 (2) 콤베야 : 운반차량 대차 수차 등 운반에 필요한 시설
시멘트가공제품(벽돌 블록 기와)	1. 배합 및 혼연시설	(1) 유압기 또는 진동기 : 1대이상 다만, 시멘트기와 생산업체는 제외한다.
	2. 양생 시설	(1) 증기양생실 33평방미터 이상 (유압기 또는 진동기 5대증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또는 수중양생실 66평방미터 이상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증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3. 기타 필요시설	(1) 대지 : 990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증가마다 900평방미터 증가) 다만, 시멘트기와 생산업체는 660평방미터 이상
PC판생산업	1. 콘크리트제조 및생산장치	(1) 밧차프렌트 : 1식 (2) 파렛트 및 부품 : 1식
	2. 반송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시설 : 1식
	3. 증기양생시설	보이라·시설 : 1식
	4.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 : 9,900평방미터 이상 (2) 물저장탱크 : 1식 (3) 철근가공설비 : 1식 (4) 시험실 : 20평방미터 이상 (5) 압축강도시험기 : 1대이상 (6) 건조기 : 1개이상 (7) 공기량측정기 : 1개이상

〔별표 3〕

주택용 자재의 품질 및 규격

항 목	규 격	품 질
소성벽돌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규격 : 길이 190, 폭 90, 두께 57 표준형 190 90 57 허용치 ±3 ±3 ±4	1. 압축강도 100키로그람/평방센치미터 이상 2. 흡수율 23%이하
속성블록	1. 외 부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규격 : 길이, 폭, 두께 표준형 150 290 150 90 100 290 100 90 허용치 ±4 ±4 ±4 2. 내부(속빈부분) 구분 : 기본블록(중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단면적(평방센치미터), 최소폭(센치미터) / 철근용블록(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의 최소지름)(센치미터) 두께 100미리미터 이상의 블록 : 30이상, 5이상, 5이상 두께 150 미리미터이상의블록 : 60이상, 7이상, 6이상	1. 압축강도 (단위 : 키로그람/평방센티미터) 중공블록 : 기본블록 100이상, 철근용블록 60이상 / 철공블록 60이상 2. 흡수율 : 15%이하
P.C판 판재및 상판	주택의 형,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생산업자가 정하되 그 생산품의 치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허용치 : 벽판, 스팬 리브판, 기둥판, 계단판 / 거푸집 판의 길이 ±5 ±5 ±5 ±5 ±3 판의 구경 ±3 ±3 ±3 — ±1 판상유리레이트위치 : 판길이방향 ±3 — — — — 두께방향 상단 ±2 — — — — 두께방향 하단 ±2 ±3 ±3 ±3 ±3 비틀림 5 5 — — — 만곡 6 6 — — — 휨 5 5 — — — 대각선의 차이 10 10 20 — —	압축강도 210키로그람/평방센치미터이상
시멘트벽돌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규격 : 길이, 폭, 두께 표준형 190 90 57 허용치 +3 −2 +3 −2 +3 −2	압축강도 50키로그람/평방센치미터이상
시멘트블록	1. 외 부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규격 : 길이, 높이, 두께 표준형 390 190 190 390 190 150 390 190 100 290 190 190 290 190 150 290 190 100 허용치 ±2 ±3 ±2 2. 내부(속빈부분) 구분 : 속빈부분 — 기본블록(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단면적(평방센치미터), 최소폭(센치미터) / 철근용블록(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의 최소지름)(평방센치미터) / 최소살 — 방음구 확우에 나타나는부분(미리미터), 기타의 부분(미리미터) 두께 150미리미터 이상의 블록 : 60이상, 7이상, 5이상, 25이상, 20이상 두께 100미리미터 이상의 블록 : 30이상, 5이상, 5이상, 20이상, 20이상	압축강도 40키로그람/평방센치미터이상
시멘트기와	(단위 : 미리미터) 구분 \ 규격 : 길이, 폭, 두께 표준형 340 300 15 허용치 ±3 ±3 +3 −1	1. 휨파괴하중 80키로그람/평방센치미터 이상 2. 흡수율 12% 이하

별지 제1호서식중 3소화대상별 국민주택채권 자금 조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번호) 19 . . .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주택과장
제목 : 소화대상별 국민주택 채권자금 구성내역 발신기관장 관인

(단위 : 천원)

소화대상별 \ 구분		자금조성내역 : 전기분까지	14 : 금액	14 : 구성비%	누계 : 금액	누계 : 구성비%	비고
계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건축가설							
과중한 허가	식품영업						
	숙박업						
	사행행위						
	유기장						
	목욕탕업						
	기타						
자중면허	건설업						
	공유수면매립						
	주택자재생산업						
	기타						
중기등록							

2804—05—28D
1975.3.24 승인

190mm×268mm (산문용지 54g/m²)

별지 제 2 호서식중 4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 2 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19 . .

분류기호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주택과장
제목 :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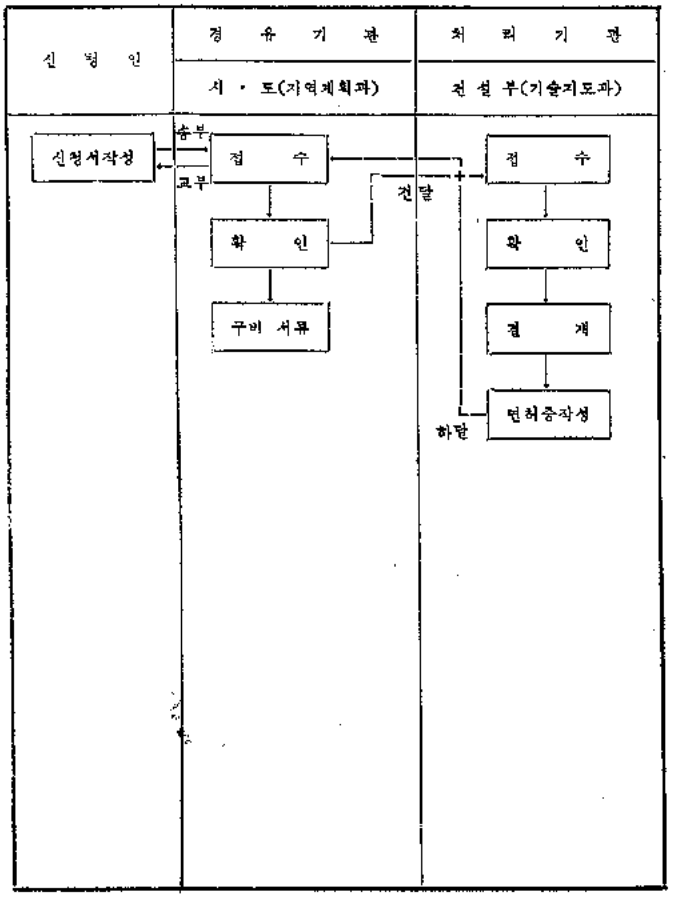
발신기관장 관인
(단위 : 원)

부대시설			복리시설		
시설비	사업비	시설내역	시설별	사업비	시설내역
전기			어린이 놀이터		개소 평방미터 그네 개 미끄럼대 개 철봉 개 모래판 개 기타
도로			시장		신설 : 개소 평방미터 인근 : 미터지점에 시장있음
상수도			의료시설		신설 : 병원 개소 약국 개소 인근 : 미터지점에 병원약국 있음
하수도			공중목욕탕		신설 : 개소 평방미터 인근 : 미터지점에 학교등있음
통신시설			집회소		신설 : 개소 평방미터 인근 : 미터지점에공원운동장있음
보안등			오물및지게수거시설		개소
테레비전			운동장또는체육시설		신설 : 개소 평방미터 인근 : 미터지점에운동장공원인음
기타			우편함		신설 : 개소 인근 미터 지점에 우편함 있음
계			계		

2804—05—29D
1975. 3. 24 승인

190㎜×268㎜(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4 호서식〕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상호또는명칭		⑤전화번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자본금 또는 재산					
⑧생산품목					
⑨주요시설 및 장비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전원) 1부
3. 대지,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 1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10,000원

2804-05-198E
1975. 3. 24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 5 호서식〕

국민주택자재생산업면허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또는명칭		④전 화 번 호	
	⑤영 업 소 재 지			
⑥ 면 허 번 호			⑦면허년월일	19 . .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⑧대 표 자		
	⑨상호또는명칭		
	⑩영업소재지		
	⑪주요시설및장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 9 7 . . .

신청인 ㊞

건 설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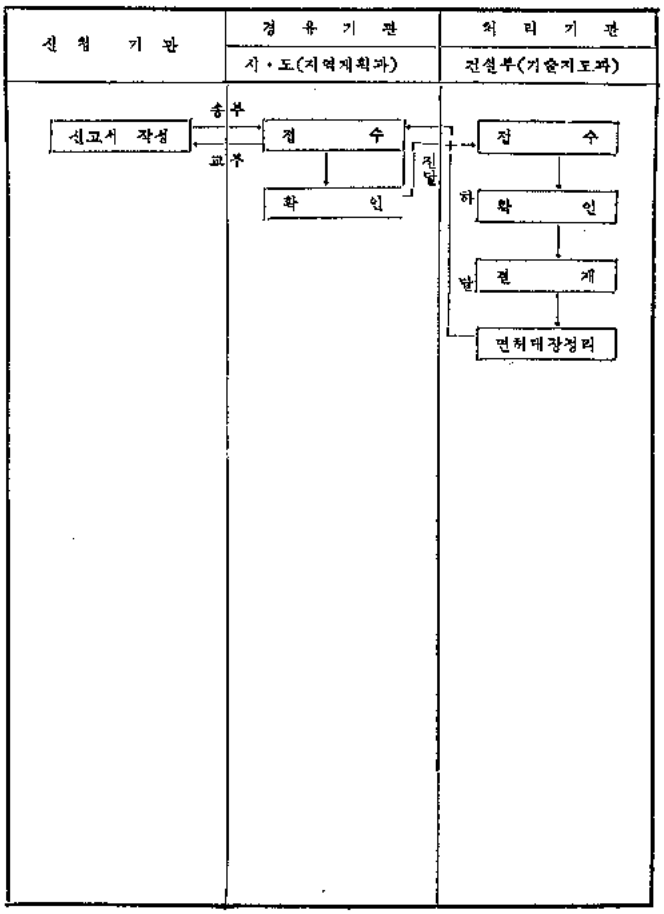
1. 대표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신원증명서 1부 재산증명서(개인에 한함) 2부
2. 상호 또는 명칭인 경우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영업소재지인 경우는 영업소재지 증명서 1부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주요시설 및 장비인 경우는 대지, 시설 장비 보유변경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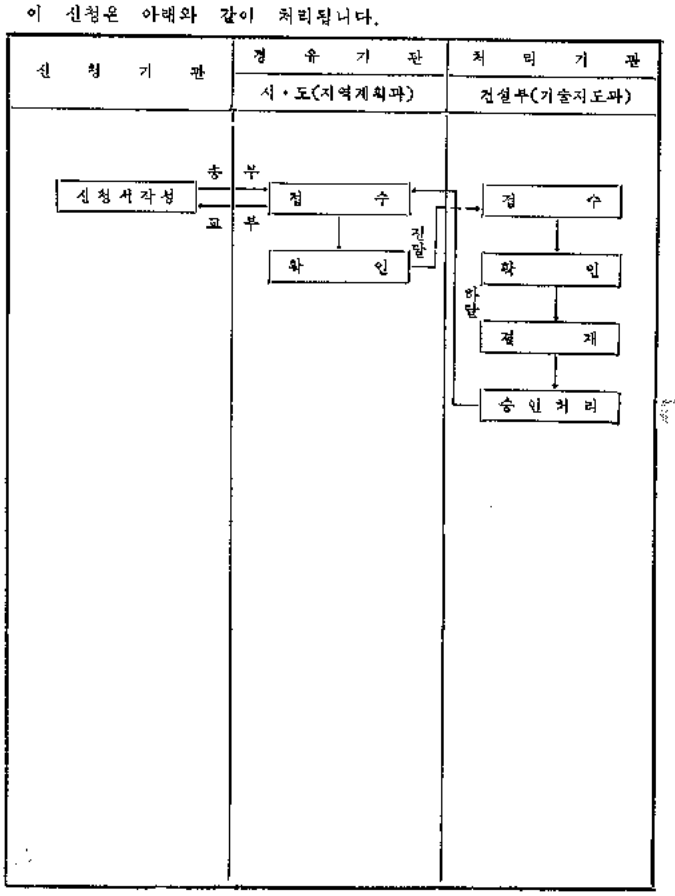
2804—05—20E
1975. 3. 24승인

190㎜×268㎜(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면허받지아니한자재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1. 대표자		2. 주민등록번호		
	3. 상호명		4. 전 화 번 호		
	5. 주 소				
6.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19 . . .			
7. 사 업 위 치					
8. 사 업 기 간		19 . . . ~19 . . . 까지			
사 업 량		구 조 내 역		승인신청자재내역	
9. 단 독	동	13. 기 초		17. 품 명	
10. 아파트	동 세대	14. 벽 체		18. 수 량	
11. 연 립	동 세대	15. 지 붕		19. 품 명	
12. 계	동 세대	16. 기 타		20. 수 량	
시멘트제품 등록업체	21. 등록번호		23. 상 호 명		
	22. 대 표 자 명		24. 소 재 지		
25. 신청이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⑪

건설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804—05—27 E
1975. 3. 24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建築界뉴ㅡ스

本協会 韓昌鎭 會長 建築士 海外進出 問題協助 建議

本 協会 韓昌鎭 會長은 建設部 海外協力官室을 礼訪하고 建設輸出에 建築分野가 점하는 比重을 감안, 建築士協会 活用과 建築士들의 海外進出問題에 적극 協助해 줄 것을 建議했다.

光復 30年 記念 綜合展示館 起工

4月 25日 汝矣島에서

光復 30年의 民族의 歷程과 國家発展相을 한곳에 모아 展示할「光復 30年 記念綜合展示館」이 4月 25日 上午, 서울 汝矣島에서 着工됐다.

1만4천坪의 敷地위에 民族館, 光復館, 6.25館, 現在館, 未來館 等 1천5百坪 넓이의 展示館을 비롯하여 5百坪의 野外劇場, 5천3백坪의 野外展示場으로 꾸며질 이 綜合 展示館은 오는 7月末에 竣工되여 8月1日부터 開館되어 100日間 一般에게 公開한다.

展示会가 끝나면 이 綜合展示館은 貿易振興公社의 輸出商品展示場으로 使用할 予定이라고한다.

建築許可 竣工検査 不許

政府規定 規格문틀 시멘트製品 안 쓰면

建設部는 오는 7月1日부터 建築許可를 받는 住宅에 対해서는 政府에서 規定한 規格 문틀, 문짝 및 시멘트製品을 안 쓰면 建築許可와 竣工検査를 해 주지 않을 方針임을 市道 및 住宅建設業者들에게 示達했다.

建設部는 지난 3月29日字로 49種의 문틀 規格과 벽돌, 불럭 等 시멘트 製品의 規格, 強度를 決定 告示한 바 있다.

이같은 措置는 建築資材의 浪費를 막기 위해 取해진 것이며, 앞으로 다른 建築資材에 対해서도 規格品使用을 拡大해 나갈 方針이다.

主要産業施設等 建設部에서 建築許可

專門家들로「建築計劃委」設置

工団 内 小工場 任意 增築 허용.

建設部는 建築法을 改正, 建設部안에 各界 專門家들로 構成된「建築計劃委員会」를 두고 主要産業施設과 國家的 象徵物이 될 主要建物의 建築은 이 委員会의 議決을 거쳐 建設部가 直接 許可業務를 取扱하기로 했다.

4月 25日 建設部에 依하면 이제까지 建築許可의 權限이 모두 市·郡에 委任되어 있어 建築專門職 公務員이 不足한 市·郡에서 國家的 主要 施設을 許可할 때는 設計図 확인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指摘하고 앞으로 主要 施設物의 建築은 建設部가 直接 許可를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建設部의 직접 許可対象이 될 建築物은

△ 産業基地 開発区域안의 主要工場

△ 그 밖의 國家基幹産業施設

△ 政府 및 地方自治団体의 庁舎

△ 全国의 主要団体

(例 : 労総, 商工会議所 等)의 庁舎

△ 將來, 國家의 象徵이 될 建物(例 : 記念館 等)

△ 其他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主要美観地区 建物等이다.

또한 建設部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일이 市·郡의 許可를 받아야 했던 工団안의 小規模 工場 增築 等은 앞으로 市·郡의 許可없이 할 수 있도록 建築法을 改正하여 다음 國會가 열리는 대로 同改正案을 提出할 方針이라고 한다.

大韓建築学会 理事陣 改選

大韓建築学会(会長 金熙春)는 任期滿了된 15名의 理事를 새로 選定했다.

이번에 留任 및 新任된 理事는 다음과 같다.

(留任理事)

金光文 朴麟浩 鄭日榮 金正澈 吳雲東 辛鉉植 朴秉瑢 尹定燮 尹一柱

(新任理事)

朱京在 趙炳琪 元正洙 朱鍾元 李鍾相 趙恒九

'75年度 第12回 建築士資格試験 一級474名, 二級 821名이 応試

今年度 第12回 建築士 資格試験이 지난 4月 26, 27 兩日間에 弘益大學校와 京畿工高에서 各各 実施되었다.

이번에 総 志願者는 一級이 605名中, 応試者는 474名(78%), 二級 総 志願者 971名 中応試者는 821名(84%) 이었다.

기존 建物에도 消防 施設

内務部 消防法 等 14個 改正案 마련.

内務部는 5月7日 現行 消防法上 기존건물에 対해서도 경과규정을 두어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규정을 폐지하고, 建築許可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등을 内容으로 하는 消防法 改正案등 14個 対民関係法의 改正案을 마련했다.

이번 内務部가 마련한 政正案에 따르면 消防法의 경우, 新築이 아닌 공연장, 집회장, 카바레, 유희장, 호텔, 병원, 위험물 제조소 等 기존 건축물에 대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스프링클라」 옥내소화전 等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한 消防法 附則 第3項과 同施行規則 附則 第3項을 삭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消防施設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治安本部 당국과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消防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한 경과조치는 '72년 10월 1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무더기로 法案을 통과시킬 때 입법화됐으나 이는 사실상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건물에 이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개수가 불가피 해 사실상 무리한데다 지난번 法改正 後 2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해당건물이 改修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경과 규정의 해당고층건물은 全国에서 4천棟에 이르고 있다.

이 改正案은 또 新築·改築·移転·修繕·構造 및 用途変更때 건축허가 동의를 必要로 하는 규제대상을 크게 완화, 消防法 施行令 제2조에 규정된 진료소, 조산원의 경우 延面積 200m² 以上을 300m² 以上으로, 車庫는 現行 延面積 50m² 以上을 200m² 以上으로 했다.

식당, 工場, 독서실, 의원의 경우, 現行法上, 크기에 상관없이 建築許可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을 延面積 100m²(33坪) 以上일 때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消防施設 기준(규칙 제20조 2항) 가운데 「스프링클러·헤드」는 대상건물의 계단, 욕실, 변소, 통신기기실에는 설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大韓建築士協会　　1975年 4月 24日 制定

寄 稿 内 規

1. 目　的

이 内規는 大韓建築士協会 会誌(以下 "会誌"라 한다)의 寄稿에 関係되는 事項을 規定함으로서 寄稿活動을 助長 向上시키고, 建築士 業務의 健全한 発展과 読者의 便利를 도모하며, 아울러 建築文化発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寄稿者의 資格

寄稿하는 者의 資格은 本協会 会員 및 建築関係 專門家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原稿의 청탁은 本会 編纂委員会에서 정한 編輯計劃에 依한다.

3. 原稿의 接受

原稿는 本協会 出版部에서 接受한다.

4. 原稿의 受理

1) 原稿의 受理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編纂委員会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는 受理하지 아니한다.

ㄱ) 本協会의 目的에 위배되거나 関係없는 것.

ㄴ) 이미 発表된 것으로서 게재의 意義를 喪失하였다고 認定되는것.

ㄷ) 会誌의 品位를 損傷하는 内容의 것.

ㄹ) 補完이 要求되는 것.

ㅁ) 原稿 作成 規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

3) 原稿의 受理日은 編纂委員会에서 掲載를 決定한 날로 한다.

5. 原稿 作成의 形式

原稿의 作成은 別途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連載 回数의 制限

同一人이 寄稿하는 同一 主題의 原稿의 連載 回数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二回 以内로 한다.

7. 原稿의 返還

일단 接受된 原稿를 掲載하려는 号의 会誌가 出版되기 以前에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8. 原稿의 校正

ㄱ) 原稿의 校正은 印刷 前에 寄稿者가 한다.

다만 寄稿者의 事情에 따라 編纂委員会에서 協助할 수 있다.

ㄴ) 編纂委員会는 別途 규정하는 原稿作成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에 対하여 校正을 할 수 있다.

9. 稿　料

1) 稿料는 別途 규정하는 바에 따라 寄稿者에게 支拂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에 対한 稿料는 無料로 할 수 있다.

ㄱ) 請託 原稿가 아닌 것.

ㄴ) 筆者의 請願에 따라 掲載되는 投稿의 原稿.

ㄷ) 이미 다른 機関을 통하여 発表하였거나 다른 機関에 提出된 原稿.

ㄹ) 協会의 公式 記事

3) 必要한 資料에 対하여는 그에 必要한 収集費를 予算의 범위 안에서 支拂할 수 있다.

10. 其　他

이 규정에 없는 事項은 別途 定하는 内規에 따르며, 其他의 것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原稿作成基準

1. 一般事項

1-1. 原稿의 分類

原稿(번역 원고 포함)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이를 原稿表題 위에 表記하여야 한다.

1) 學術 論文

2) 一般 論文

3) 會員 作品

4) 資料(各種 統計, 海外作品 및 海外技術 情報)

5) 會員文芸(詩, 随筆, 紀行文 等)

6) 協会記事

1－2 原稿의 構成

1) 学術 및 技術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 (国文 要旨)

ㄴ) 本文 ① 序 論
② 本論(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③ 結 論

ㄷ) 参考文献

2) 一般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国文 要旨)

ㄴ) 本文(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ㄷ) 参考 文献

3) 会員文芸의 原稿는 会員에 限하되 編纂委員会에서 추천되는 原稿에 限해서 掲載할 수 있다.

4) 会員作品 寄稿者는 다음과 같은 図面과 사진을 提出하여야 한다.

ㄱ) 平面図(켄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잉킹한 것)

ㄴ) 配置図(〃 〃)

ㄷ) 断面図(상세도 포함)

ㄹ) 実際建物의 全景 사진과 屋内 사진.

ㅁ) 建築概要(편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

1－3. 原稿字数의 標準

ㄱ) 諸般 原稿의 面数는 200字 原稿紙로 하고, 会誌 一面의 枚数는 12枚로 한다.

ㄴ) 掲載되는 原稿는 会誌 8面 以内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会에서 특별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原稿의 共通 記載 状況

原稿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ㄱ) 表 題

ㄴ) 著者名

ㄷ) 著者의 所属機関 및 職位

ㄹ) 主要目次(간단한 경우에는 생략)

1－5. 原稿紙의 規格

ㄱ) 原稿는 200字 原稿用紙에 作成한다.

ㄴ) 原稿는 가로쓰기로 하며 띄어쓰기는 高等学校 国定 教科書의 例에 따른다. 外国語 또는 算用 数字는 붙여 쓰며 한 칸에 一字式 쓰지 않해도 된다.

2. 使用語 및 表記

2－1. 使 用 語

使用語는 国語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会에서 특별히 外国에 紹介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使用文字

ㄱ) 国語를 使用하는 것에 対하여는 한글과 漢字를 섞어 쓸 수 있다.

ㄴ)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6)에 따른다.

2－3. 外来語의 表記

ㄱ) 外来語는 한글로 表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表記함으로써 難解한 外来語는 原語 그대로 쓴다.

ㄴ) 外来語의 表記는 문교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1958) 및 "국정교과서 외래어 일람표"에 따른다.

ㄷ) 다음 사항은 原語 그대로 쓴다.
① 人名
② 文献名

ㄹ) 本文中 外来語의 表記는 첫머리자는 大文字로 하고 나머지는 小文字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고유명사인 경우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③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2－4. 専門用語

専門用語는 다음 순위에 따라 統一하여 쓴다.

ㄱ) 大韓建築学会 制定用語

ㄴ) 韓国工業規格에 쓴 用語

ㄷ) 文教部 科学技術 用語

2－5. 数字 및 数式

ㄱ) 数 字
数量을 표시할 때에는 算用数字(아라비아 数字)를 쓴다.

ㄴ) 数 式
数式은 줄(행)을 바꾸지 않고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單位 및 記号

3－1. 單 位

ㄱ)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統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前項 以外의 必要한 관용 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주기 한다.

(例) : 페인트 1통(20ℓ)
시멘트 1포대(40kg)

3－2. 記 号

数学記号는 KS A 0101(수학기호)
單位記号는 KS A0102(단위기호) 의 규정에 의한다.

4. 그림, 사진 및 표

4－1. 그 림

ㄱ) 그림의 작성

① 그림은 순백의 켄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 또는 검정잉크로 제도하되, 문자 기입은 모두 연필로 임시 기입한다.

② 그림 및 도표의 크기는 가급적 인쇄 크기의 1.5배 ~ 2.0배(선 확대율)로 확대한 크기로 정한다.

③ 그림의 제도 중 KS F 1501 건축제도(통칙)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그림의 첨부 방법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되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기재한다. (例 : 그림 1. 에너지 감소에 대한 받침대의 방진 효과)

4－2. 寫 眞

ㄱ) 사진의 製作

모든 원고의 사진은 선명하게 印刷될 수 있는 것을 첨부한다.

ㄴ) 사진 첨부 方法

모든 사진은 그 사진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여 원고의 本文 中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4－3 表

ㄱ) 表는 本文 原稿紙에 직접 記載하거나 別表에 作成하여 제자리에 붙인다.

ㄴ) 모든 表의 상부에는 그 表의 번호를 붙이고 반드시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例 : 表1. 公共住宅 年度別 現況表)

ㄷ) 表 中의 註記는 그 表의 바로 밑에 記載한다.

5. 參考文献의 記載方法

参考 文献의 記載는 그 원고의 本文뒤에 일괄 記載한다.

寄稿의 受理

1. 本協会 出版部에 接受된 원고는 그 掲載 如否를 編纂委員会議에서 決定하되 違背如否를 検討하기 위하여 各 編纂委員에게 按配하여 決定할 수 있다.
2. 原稿의 送達을 받은 編纂委員은 寄稿 内規에 対한 違背 如否를 検討한 후 受理 可否에 관한 所見을 붙여 返送한다. 다만, 그 所見이 否일 때에는 再次 이 節次를 反復할 수있다.
3. 編纂委員長은 前條의 결과를 綜合하여 編纂委員 会議에서 受理 如否를 議決한다.

稿料의 支拂

1. 稿料의 基準

稿料는 당해 年度의 予算의 범위 안에서 그 基準을 定한다.

2. 稿料의 算出 方法

受理된 原稿의 枚数를 基準으로 한다.

3. 稿料의 支拂時期

稿料(자료수집비 포함)는 그 原稿가 掲載된 후 支拂 결제가 필한 3日以内에 支拂함을 원칙으로 한다.

※ (本誌에 꼭 掲載하여야 할 청탁원고는 受理와 同時에 支拂할 수도 있다.)

新刊

建築技師 및 技能士를 為한

建築設計製圖

延 濟 振 著

4 · 6倍版 195面
附録製図例, 칼라판 삽입
定價 1,800원

発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建築學總覽

監修 工学博士 洪 鵬 義
建 築 家 金 在 哲
執 筆 延 濟 振

1975 年 4 月 10日 発行 값 15,000원

発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TEL. 26—0509

韓國建築史大系 全10巻

2. 韓国古建築断章 上 · 下

申榮勳 · 金東賢 共著

● 各巻 352頁 46倍判
図版 及 図面 1,000余点収録
● 各種 新資料 豊富히 収録
● 新建築 設計, 施工에 応用될 친절한 図解의 収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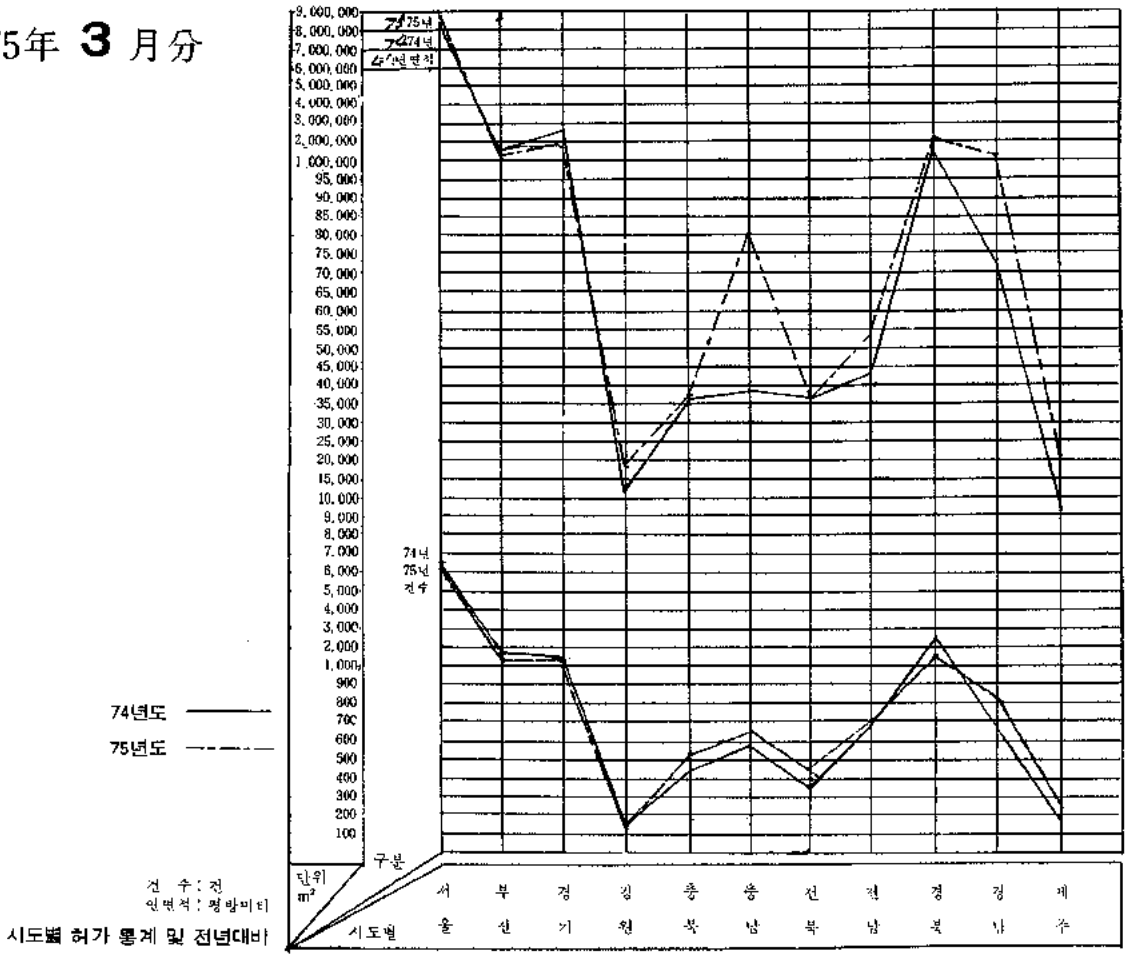
各巻 定価 6,000원

＊大学教材用
(建築科, 美術科, 考古美術史 人類学科, 家政科, 歴史科)
＊専門学校 教材
＊団体注文 特別割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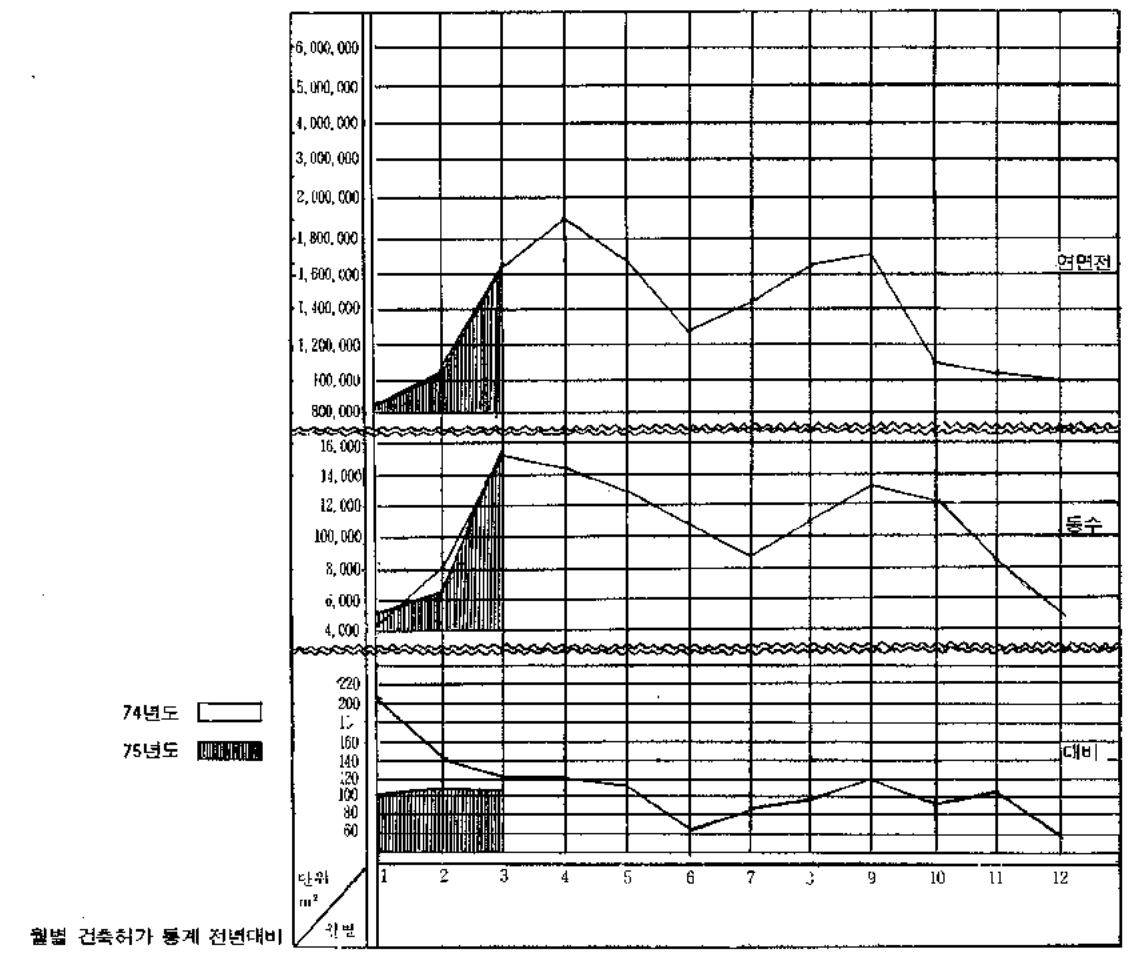
● 注文은 ☎ ㊳ 6325로

全国建築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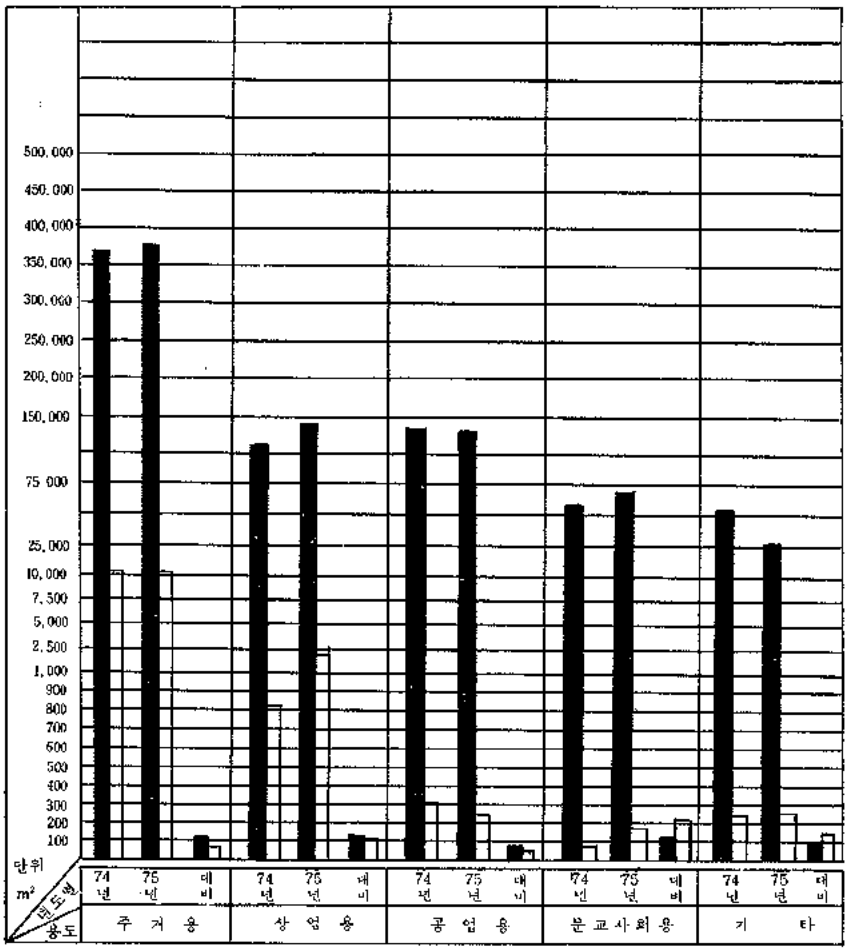
1975年 3 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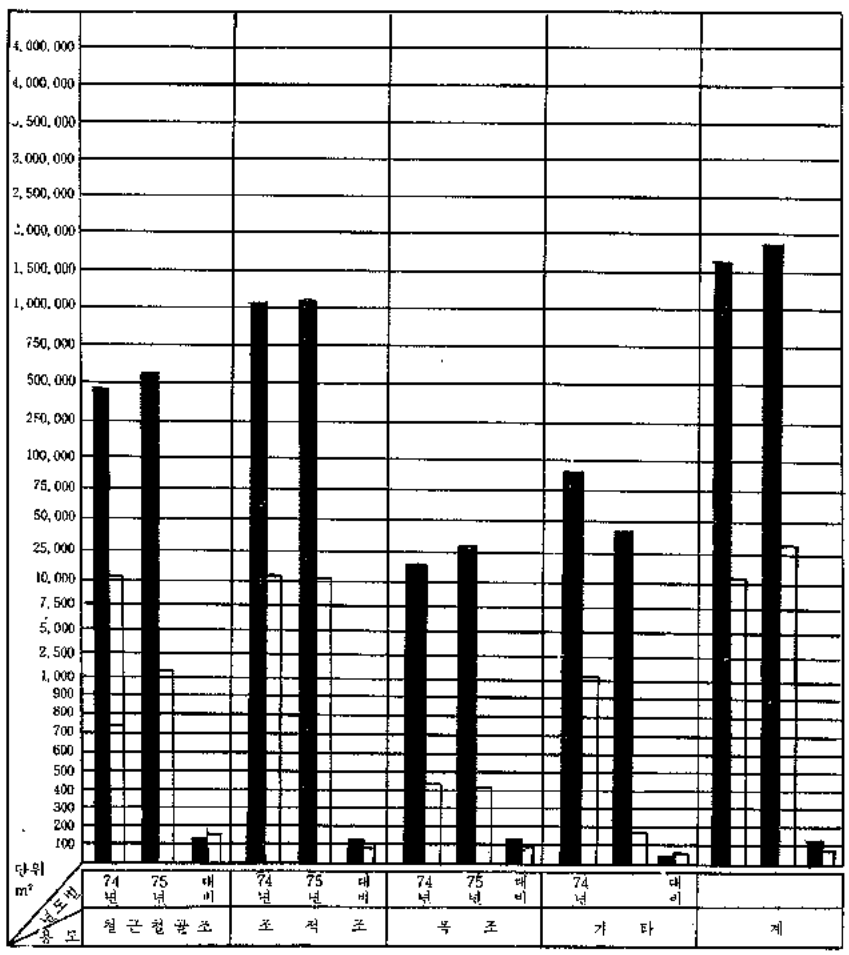
시도별 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월별 건축허가 통계 전년대비



용도별 허가통계 전년대비



구조별 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協会記事

430余 우리会員 参加
総力安保서 울市民蹶起大会에

本協会 및 서울特別市支部任職員 全員과 서울市内会員 400余名은 5月10日 5.16광장에서 開催된「総力安保 서울市民 蹶起大会」에 参加하여 滅共救国을 다짐하는 建築士로서의 굳건한 決意를 表明했다.

구 호

1. 총력안보 굳게다져 남침흉계 분쇄하자
1. 사천만이 일어섰다. 침략망상 포기하라.
1. 우리에겐 힘이 있다. 뭉쳐서 승리하자.
1. 도전하면 자멸한다. 포기하고 굴복하라.

永登浦区 鄕土守護 反共蹶起大会 参加
5. 7. 서울市支部 江南分所 会員들

'75. 5. 7. 永登浦区 鄕土守護反共蹶起大会가 永登浦工業高等学校 뒤 광장에서 開催되었다.

이날 서울市支部 江南分所 会員 一同은 鄕土守護反共蹶起大会에 참가하고 鄕土守護의 決意를 더욱 굳게 했다.

総力安保 다짐하며 建築人 親睦体育大会(축구)
5. 11. 서울市支部 江南分所에서 開催

本協会 서울特別市支部 江南分所(分所長 金鎭成) 180余 会員은 내고장 내직장 내가정을 나의 힘으로 지킨다는 自主防衛의 결의아래 우리의 맡은 使命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으로 建築人 親睦体育大会를 영등포구 신길동 所在 장훈중고등학교교정에서 개최했다. 本協会 李圭福 総務理事, 成一永理事 참관하에 서울特別市支部長 金萬盛 支部長의 시축으로 경기를 시작, 시종 열띤 응원과 함성과 웃음속에서 建築人의 体力을 과시했다.

(사진설명은 p. 75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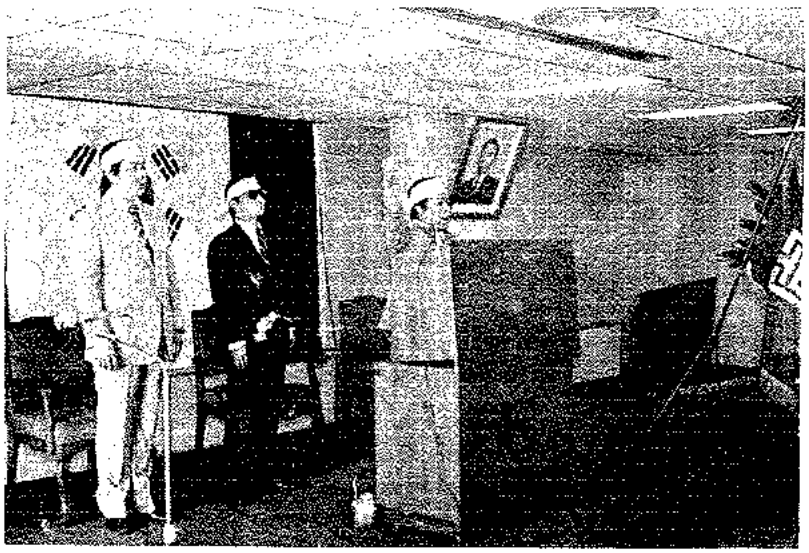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建築職 公務員 및 建築士 合同 教育 盛了
5. 12~13 両日間 国民銀行 本店大講堂에서

本協会 서울特別市支部 傘下 会員460余名은 非常時局에 處한 建築士의 義務와 使命感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서울特別市 建築職 公務員 및 建築士 合同 教育을 國民銀行 本店 大講堂에서 서울市都市計劃局長 郭厚燮氏 建設部 金永哲氏, 서울大学校 工科大学 이 건교수를 초빙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開催했다.

아 래

교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1	16:00~16:50	現時局에 임하는 우리의 姿勢	서울市都市計劃局長(郭厚燮)
2	17:00~17:50	建築法 解說	건설부과계관 (金永哲)
3	18:00~18:50	새마을精神과 우리의 姿勢	서울工大 李 鍵 교수

総力安保를 為한 建築士들의 決意



建築士 滅共 궐기대회 開催

5．12． 國民銀行 本店 大講堂에서

'75年 5月 12日 午後 3時 30分 国民銀行 本店 15층 大講堂에서 本協会 및 서울特別市支部 共同主催로 「建築士 滅共 궐기대회」를 開催했다.

이날 本協会 任職員 및 서울特別市支部 任職員과 傘下会員 560余名이 参如한 가운데 本会 会長을 대신해서 李主福 總務理事의 궐기사에서 「……우리는 월남과 크메르의 처참한 종말을 보고 두가지 교훈을 얻었읍니다. 그 첫째는国論分裂은 共産集団의 戰爭意慾을 돋구는 最適의 자양소이며 우리 사회 내부의 混乱은 바로 그들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내나라 내祖國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주체적 안보의식과 현실을 직시한 안보관의 확립없이는 그들과의 대결에서 이길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고 말했다.

또한 「……내 나라의 수호를 위해 우리 建築士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야겠읍니다.」고 말할때 장내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서울市支部 金萬盛支部長의 결의문 채택과 成一永理事의 「내 祖國, 내 民族은 우리가 死守하자!」는 口号제창과 만세삼창으로 建築士 滅共궐기대회를 성황리에 끝매졌다.

決議文

우리는 印度支那 半島의 悲劇的 終末을 보고 이를 계기로 노골화하고 있음을 重視하고 全 国民의 総和団結과 統一을 다짐하면서 우리 670명 서울支部 会員들은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1. 侵略野慾을 한시도 버리지 않은 北韓傀儡로부터 国家를 보위하고 民族自存을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国論統一의 긴급함을 공감한 全 国民과 더불어 勝共理念과 総力態勢確立에 全力을 기울인다.

2. 国家와 民族을 危難으로부터 守護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国家安保가 우선임을 강조한 4월29일자 朴 大統領 閣下의 特別談話를 絶対 지지한다.

3. 우리는 建設의 役軍으로서 国家建設에 총력을 기울여 努力하고 北傀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여 生命을 다하여 国家를 守護한다.

1975. 5. 12.

大韓建築士協会 会員一同

蹶起辞

六·二五 動乱의 뼈저린 経験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最近 印度支那 半島의 悲劇的인 事態를 보고 다시 한번 戦慄을 느끼는 바이며 아울러 殘悪한 共産徒党의 蛮行과 그들의 兇計에 다시 한번 憤怒를 禁할 수 없읍니다.

會員여러분!……
共産集団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惨酷한 戦爭과 殺傷이 있으며 그들이 主張하는 「平和共存」이니 「民族統一」이니 하는 것은 共産化라는 目的達成을 위한 한낱 기만적인 口号와 手段에 不過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우기 가장 殘悪한 北傀集団과 対峙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印支事態를 계기로 한 金日成 徒党의 심상치 않은 動態에 다시 한번 警覺心을 높이지 않을 수 없으며 얼마전에 発見된 休戦線의 땅굴 하나만 보드라도 北傀徒党이 이제 南侵野慾에 불을 부치려 함은 疑心의 余地가 없읍니다.

會員 여러분!
우리는 越南과 "크메르"의 悽惨한 終末을 보고 두가지 教訓을 얻었읍니다.
그 첫째는, 国論分裂은 共産集団의 戦爭意慾을 돋구는 最適의 慈養素이며 우리 社會 内部의 混乱은 바로 그들의 安息處가 된다는 事実이고, 둘째는 내나라 내 祖國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主体的 安保意慾과 現実을 直視한 安保観의 確立없이는 그들과의 対決에서 이길수 없다는 点입니다. 이러한 教訓을 거울삼고 "죽기를 決心한 者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先祖의 말씀을 銘心하며 國民総和로 이 難局을 克服해 나가야 하겠다는 굳건한 国民的 決心이 時急한 때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建築士들은 어떠한 国論分裂的 言動도 排撃하고 注視할 것이며 依他的 安保観이나 自潮的 敗北主義를 一掃하고 철저한 反共意識과 "싸워 이기겠다"는 必勝의 信念으로 大同団結하여 総力安保 国民総和 隊列에 앞장설것을 決意하는 바이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決意를 実践하는 하나의 当面課題로서 政府가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庶政刷新 運動에 呼応솔선 垂範할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現下의 諸狀況이 寸刻의 放心도 解弛도 容納될 수 없는 時点에 이르렀다는 이 厳然한 現実과 祖國守護를 위해서는 國民 모두가 힘을 絶対로 必要로 한다는 事実을 다시 한번 깨닫고 勝共을 위해 "내 나라의 守護를 위해"!
우리 建築士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바치겠다는 決心을 다시 한번 해야겠읍니다. 우리가 살길이야말로 이 한 곳에 集約되어 있다는 것을 再三, 再四, 認識하고 우리의 団結된 힘을 祖國繁榮을 위해 바칩시다.

一九七五年 五月 十二日

大韓建築士協会
会長 韓 昌 鎮

① 全南 順天市 버스터미날에 나부끼는 大韓建築士協会 全羅南道支部 総会 프렌카드

① ② ③ ④ ② 서울特別市支部 江南分所의 総力安保 建築士 親睦大会의 本部席

③ 江南分所 建築士 親睦大会旗를 授與하는 金鎭成 分所長

④ 永登浦区 管内 建築職 公務員 代表팀과 建築士 代表팀.

決 議 文

印度支那에 있어서의 悲劇的 終末과 北傀 金日成의 中共訪問 및 予定되는 蘇聯訪問, 그리고 南侵野慾이 立證되는 北傀의 땅굴 掘鑿, 長期化된 國論의 分裂 등 最近의 國内外 情勢를 直視하면서 韓國雜誌協會會員 一同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決意를 밝히고 國民総和의 隊列에 앞장서서 邁進할 것을 闡明한다.

1. 우리는 冷嚴한 最近의 國際情勢에 비추어 오로지 有備無患의 結束된 自衛力만이 武力南侵을 擊退하는 열쇠이며 勝共의 지름길임을 確信한다.
2. 우리는 國家安保를 沮害, 弱化케 하는 一切의 政治的, 社會的 行動의 自粛, 根絶을 促求한다.
3. 우리는 雜誌言論人으로서 國家的, 社會的 使命感을 再認識하고 보다 더 健全 明朗한 雜誌言論의 창달로써 國民総和에 寄與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韓國雜誌協會 月刊「建築士」

会員動静

서울特別市支部

転入会員(京畿道支部에서)

姓名	名稱	所在地	電話番号	免許番号	登録番号	月日
김 대 성	都市環境建築研究所	성동구반포동산6－1	75－1129		1－629	75. 4. 21

再開業

이 창 남	삼성종합기술단	중구충무로2 가52－10	27－3768		1－639	75. 4. 14

閉業

안 화 성	안화성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동2가143			2－265	75. 4. 12

事務所移転

조 행 우	동인건축연구소	관악구봉천동399－1	68－6577		1－155	
채 용 운	대현건축연구소	도봉구미아동323－4	98－5494		1－210	
최 제 윤	운성건축기술공사	관악구봉천동399－4	67－0891		2－336	
민 병 휘	대형건축설계사무소	도봉구수유동174－17	99－6544		1－481	
황 의 진	이진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무학동1	52－4141		1－571	
송 학 조	남성건축설계사무소	도봉구수유동191－35	99－3615		1－294	
이 해 성	이해성종합설계사무소	종로구수송동46－18	73－0572		1 329	
김 서 환	국제종합건축사무소	종로구청진동251	75－2210		2－205	
송 형 진	신탁건축사무소	영등포구독산동308	8－5217		2－187	
김 태 성	홍인건축연구소	종로구낙원동138－1			2－379	
김 영 경	건양건축기술연구소	성동구역삼동43	57－1128		2－158	
김 수 학	김수학건축연구소	영등포동1가97－1			2－369	

新入会員

林 永 義	신 아 건 축	龍山区 갈월洞 18	42－7566	1－424	1－558	75. 4. 26
李 悰 相	正友建築研究所	종로구 종로1가 19	74－0336	1－563	1－610	75. 4. 27
李 武 夫	평화건축연구소	영등포동2가158	62－7302	2－1222	2－398	75. 4. 30
李 英 弼	육조건축연구소	영등포동1가94－2	62－2118	2－1518	2－396	75. 4. 30
李 致 瑞	서진건축연구소	중구다동131 삼덕빌딩 910	22－1555	1－1216	1－654	75. 5. 7
徐 仁 洙	연방건축연구소	관악구봉천4동59－31	68－8758	2－1418	2－388	75. 5. 7
李 鍾 振	빌건축설계연구소	西大門区홍은동8－24	39－2717	1－619	1－646	75. 5. 3
박 정 태	성창건축연구소	마포구동교동138－48	32－2369	1－858	1－650	75. 5. 2
林 憲 彦	그랜드건축설계사무소	중구충무로1가25의5	22－6302	1－428	1－652	75. 5. 2
丁 海 俊	광익건축정해준사무소	성동구논현동129 구획 215	57－0791	1－393	1－653	75. 5. 2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話番号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宋 時 俊	삼연사건축연구소	중구수표동11－1	29－1415	1－1001	1－649	75. 5. 9
李 相 哲	世進建築技術研究所	中区乙支路3街295－4	26－4267	1－1319	1－655	75. 5. 10

釜山直轄市支部

新入会員

朴 明 厦	유니온·에이建築研究所	釜山鎭区釜田洞259－19	3－3433	2－1618	2－220	75. 4. 28
金 政 寬	미조건축연구소·	釜山市中区 富平洞1가36	22－4385	2－1684	2－222	75. 4. 28
도 상 도	선명건축설계사	釜山市東萊区광안동89		2－1683	2－218	75. 4. 28
姜 信 七	유니온·신신建築研究所	釜山鎭区釜田洞259－19	2－3433	2－1673	2－219	75. 4. 28
高 忠 英	신광건축설계사무소	釜山市東萊区礙泉洞385－4	53－1300	2－1672	2－225	75. 4. 28
金 浩 鍾	金井建築設計事務所	釜山市東萊区거제동618	52－3815	2－1685	2－223	75. 4. 28
宋 泰 云	東南建築研究所	釜山市東萊区明倫洞341－1	52－4913	2－1680	2－217	75. 4. 28
朴 智 遠	유니온·智遠建築研究所	釜山市釜山鎭区釜田洞259－19	3－3433	2－1675	2－221	75. 4. 28

事務所 移転

趙 成 來	祥明建築事務所	부산진구대연동329－15	6－6216	2－533	2－74	75. 4. 18
安 光 模	三 友 設 計 社	서구괴정동896		2－840	2－121	75. 4. 22

再開業 및 事務所 移転

黃 仁 成	和成建築設計事務所	부산진구 부전동 535	8－3607	1－406	1－95	75. 4. 30

再開業

黃 英 哲	二和建築事務所	부산진구범천동1253	8－8101	1－689	1－212	75. 4. 30

商号変更 및 事務所 移転

朴 亨 泰	青 潮 建 築	동래구명륜동595－2	52－0336	2－1612	2－202	75. 4. 24
朴 基 道	三道建築設計社	影島区大橋洞5가103	49－1174	2－229	2－106	75. 4.
黃 琮 鎬	(旧) 耕進建築事務所 (新) 세일建築事務所	釜山鎭区괘법동820－6	9－0135	2－1496	2－197	〃
申 源 鎬	広信建築事務所	西区괘정동896－5	43－9087	2－1674	2－215	〃
申 年 純	三進建築設計社	西区괘정동746－9	43－1247	2－1162	2－163	〃
鄭 鎭 洪	大也建築研究所	釜山鎭区凡一洞948－7	6－4984	2－1264	2－157	〃

休業 및 事務所 移転

文 貞 奎	現代建築研究所	釜山鎭区凡一洞839	8－1867	1－792	1－51	75. 3. 1

再 開 業

朴 明 洙	亜細亜建築設計社	釜山鎭区대연동1741－6	6－5656	2－1604	2－203	75 3. 9
金 鎭 哲	香土建築設計社	동래구 복천동 374－1	52－1809	2－537	2－46	75. 4. 1

転入会員(慶南支部에서)

朴 周 連	東萊建築設計社	동래구명륜동594－1	53－4859	2－1610	2－224	75. 4. 9

京畿道支部

事務所 移転

崔 炳 天	国民建築設計事務所	水原市梅山路2 가2	교 3339	2－1044	2－4	75. 4. 20
申 恩 國	부국건축설계사무소	시흥군 서면 광명동158－809	62－0131	2－879	2－52	75. 4. 15
朴 俊 熙	富川建築設計事務所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575		1－83	1－2	75. 5. 6

忠清南道支部

新入会員

오 영 치	오영치건축설계사무소	대전시 오정동223－38	3－3135	2－1097	2－18	75. 4. 23

慶尚北道支部

事務所 移転

金 相 雄	新新建築技術研究所	大邱市南区南山洞716		2－1069	2－82	75. 4. 23
李 武 祥	협동건축설계연구소	大邱市中区東城洞1 가8－2	3－1238	2－1693	2－81	75. 4. 23

慶尚南道支部

事務所 移転

李 致 圭	曉南設計社	馬山市倉洞118－17	2－1743	1－34	1－1015	75. 4. 28

月間協会動静

第六回 (임시) 理事会

3月15日(土) 10:00 本会 会議室

議案:

1) 75年度 第1回 추가갱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제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3) 기타사항

出席: 会 長 韓 昌 鎭
総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李 興 雨
監 事 尹 希 俊

第七回 (임시) 理事会

3月 28日(金) 14:00 本会会議室

議 案:

1) 총회집행부서 결정의 건

2) 홍보사업계획 승인의 건

3) 분소실태조사계획 승인의 건

4) 충남지부 보령분소 업무구역 변경 승인의 건

5) 기타사항

ㄱ) 감사패 수여의 건(서울지부 요청)

ㄴ) 벽돌규격협의의 건

出席: 会 長 韓 昌 鎭
総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朴 成 圭
理 事 李 興 秀
理 事 成 一 永
監 事 尹 希 俊
監 事 康 晋 參

第八回 理事会

4月3日(木) 13:00本会 会議室

議 案

1) 予算집행에 관한 건

2) 기타사항

出 席: 会 長 韓 昌 鎭
総務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朴 成 圭
監 事 康 晋 參

第三回 編纂委員会

4月3日(木) 16:00本会会議室

議案

1) 前月号 合評

2) 4月号 편집계획안 검토

3) 원고 기고규정(내규)안 토의

4) 기타사항

出席: 委員長 李 丞 雨
委 員 金 仁 錫
〃 馬 春 景
〃 俞 景 哲
〃 尹 道 根
〃 李 廷 德
〃 李 文 輔

第二回 業務研究委員会

4月7日(月) 15:00 本会会議室

議案:

1) 建築許可 制度 改善方案

2) 其他事項

出席: 委員長 成一永
委 員 金永哲 朴瑀夏
宋覚植 李明煥
安仁模 李丞雨
李周浩

第九回 (임시) 理事会

4月24日(木) 14:00 本会 会議室

議案:

1) 추갱예산 편성원칙 결정의 건

2) 제2회 임시총회 개최일자 및 회순 결정의 건

3) 회지 "건축사" 기고 내규제정의 건.

5) 경남 김해 분소 및 충남보령 분소의 분소업무 잠정중단 조치의 건.

6) 기타사항

出席: 会長: 韓 昌 鎭
理事: 李丞雨, 朴成圭
李興秀, 成一永
監事: 康晋參

第十回 理事会

5月8日(木) 15:00 本会 会議室

議案:

1) 第2回 임시총회 및 관련회의 개최일자 변경의 건

2) "안보" 광고 게재의 건

出席:

総務理事: 李圭福

理 事: 李丞雨, 李興秀
: 成一永

監 事: 康晋參

서울市支部長: 金萬盛

第二回 在京 会舘建立委員会

5月 14日(水) 14:00 本会会議室

議案: 1) 会舘一層 修理의 件
2) 其他事項

出席: 金萬盛, 朴成圭, 成一永
俞景哲, 李圭福, 李丞雨
李興秀, 金斗燮, 李長馥

편집후기

○一印支事態의 悲劇的인 終末을 계기로 北傀의 南侵野慾이 더욱 露骨化 하자 共産徒党의 凶計를 粉碎하고 내나라 내 祖國은 내가 지키자는 온 國民의 외침이 全国方方谷谷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이 때, 本協会 1,500余 会員들도 総力安保隊列의 先頭에 나섰다. 5.16廣場에서 벌어진 蹶起大会에 서울会員 擧皆가 参加한 것을 필두로 5月12日에는 近 600余 会員들이 國民銀行 大講堂에 모여 「建築士勝共蹶起大会」를 열어 우리의 굳건한 決意를 나타냈으며 本会傘下 各市道支部소속 会員들은 各 地方 蹶起大会에 빠짐없이 連달아 参與했다.

国民総和·総力安保·庶政刷新을 이제는 生活信條로 간직한 会員들의 기개는 드높고 決意는 공고하다.

会誌 5月号에는 이러한 会員들의 決意를 寫眞으로 엮어 보았다.

○…5月도 지나가고 이제 6月이 온다. 6月이면 올해도 절반이 흘러 갔다는 이야기다.

建築士法 改正建議·設計報酬料率 理実化등 굵직한 課題로 点綴된 많은 일들을 上半期에 벌여 놓았고, 会員作品展示会·各種刊行物 発刊등 下半期에 해야할 일들의 準備도 거의 끝나간다.

下半期에는 벌여 놓은 일들에 対한 結末을 내야 하고 準備한 課題의 着手와 結実을 서둘러야 할 것이니, 무척이나 바쁘게 되었다. 따라서 会誌를 펴내는 손길도 流星을 쫓는 望遠렌즈처럼 분주히 돌아가야만 하겠다.

○…忠南支部에 이어 全南支部에서도 5層빌딩을 新築, 어엿한 会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6月 5日에는 竣工式을 갖는다. 光州市内 会員들이 땀흘려 모은 돈이 맘모스·빌딩으로 영글었다.

壯擧! 全南会員들의 그간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고, 뒤따라 지어질 또 다른 支部의 会館竣工을 꿈꾸어 본다.

○…会誌「建築士」및 会員名簿発刊에 物心兩面으로 協調해 주신 建築 資材메이커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精誠어린 支援에 報答하기 위해서도 더욱 알찬 刊行物을 꾸며 내기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変함없는 協調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계속 本誌의 発展을 위해 玉稿를 보내어 주신 諸先生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리면서…… **(編輯部一同)**

自主國防 이룩하여 共産集團 打倒하자.

創立10周年記念

大韓建築士協会賞 施賞 및 会員作品展示会

開 催 要 綱

1. 趣 旨

올해는 本 協会가 創立10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65年 不過 200餘 会員으로 發足한 本協会는 이제 1,500餘 会員이 모인 長足의 發展相을 보이고 團体의 年輪으로서도 成長期에 접어들었읍니다.

이같은 成長과 發展은 會員여러분들이 其間 온갖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協会를 아끼고 알뜰히 가꾸신 結實인 同時에 全 建築界여러분들이 本協会를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택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本協会에서는 建築界 發展을 加速化하는 하나의 礎石이 될것을 念願하면서 創立10周年記念行事의 一環으로 会員作品展示会와 아울러 "學術 및 技術論文" "建築界 發展에 크게 寄與한 業績"과 "優秀한 建築作品"에 對하여 施賞하고저 하오니 많은 應募와 推薦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施賞 및 應募要領

摘要	建 築 作 品	建 築 論 文	作品 論文 以外의 業績
(1) 推薦 또는 應募作品	1974年以後 主로 国内에 竣工된 建築物의 設計(庭園, 其他 工作物을 包含한다)로서 技術 및 藝術의 進步 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度以後에 研究發表된 論文으로서 學術 및 技術의 進步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以後에 完成된 다음에 該當되는 學術 및 技術의 進步向上에 寄與하는 業績. ㉠ 施工技術에 関한 것 ㉡ 發明考案에 関한 것 ㉢ 都市計劃과 같은 計劃으로서 價値있는 것.
(2) 推薦 應募 또는 資格	㉠ 会員이 推薦 또는 応募하는 것. ㉡ 本 協会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 建築人으로서 推薦 또는 応募하는 것. ㉡ 本 協会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 研究機関, 建築団体 또는 職場에서 推薦하는 것.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3) 出品図書 및 資料	㉠ 寫眞 및 主된 図面과 説明書(図面은 青寫眞도 無妨함) ㉡ 審査上 必要할 때는 보다 詳細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 資料의 作成費는 本協会에서 負担하지 않음.	㉠ 研究論文이 発表된 刊行物 또는 資料(論文은 内容을 간추려 発表한 刊行物도 無妨함)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 業績의 内容이 説明되는 資料 ㉡ 左의 ㉡과 同一 ㉢ 左의 ㉢과 同一

(4) 接受期間……1975年 7月 1日~1975年 9月 30日

(5) 接 受 處……本協会 事務處

(6) 審 査……本協会 理事會에서 推薦依頼된 人士로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함(接受期間後 審査委員 名單 公示)

(7) 受賞者發表……1975年 10月 10日(受賞者에게 個別 通知하고, 本協會傘下 各市道支部와 有関機関에 通報하고 同時 本誌 "建築士"에 發表)

(8) 施賞區分

ㄱ. 大韓建築士協会 大賞

建築作品 中 1点

ㄴ. 大韓建築士協会 賞 (大賞 受賞者는 協会賞 受賞対象에서 除外한다.)

ㄱ 建築作品 中 1点

ㄴ 研究論文 中 1点

ㄷ 業績中 1人

ㄷ. 其 他

ㄱ 優秀建築作品 数点

ㄴ 出品記念메달 : 出品 및 応募者 全員

(9) 施 賞 日……1975年 10月 23日(本協会 創立10周年記念式席上)

(10) 出品資料返還…出品図書 및 資料의 返還을 希望할 때는 追後 定하는 期間內 返還함.

3. 会員建築作品 展示会

(1) 展示対象……出品된 作品 中 審査委員会에서 選定한 作品

(2) 展示場所

ㄱ. 서 울 : 本協会 会館1層 展示室

ㄴ. 地 方 : 展示会開催를 希望하는 支部所在地(場所 日時 追後 発表)

(3) 展示期間

ㄱ. 서 울 : 1975年 10月 15日~10月 30日(16日間)

ㄴ. 地 方 : 1975年 11月 1日~12月 31日(2個月 間)

其他 詳細한 것은 本協会 및 傘下 各市道支部에 問議하시기 바람.

1975. 5.

大韓建築士協会

서울特別市鍾路区瑞麟洞89

電 話 | 74 1045 番
| 73 9491~2 番

永一홀딩도아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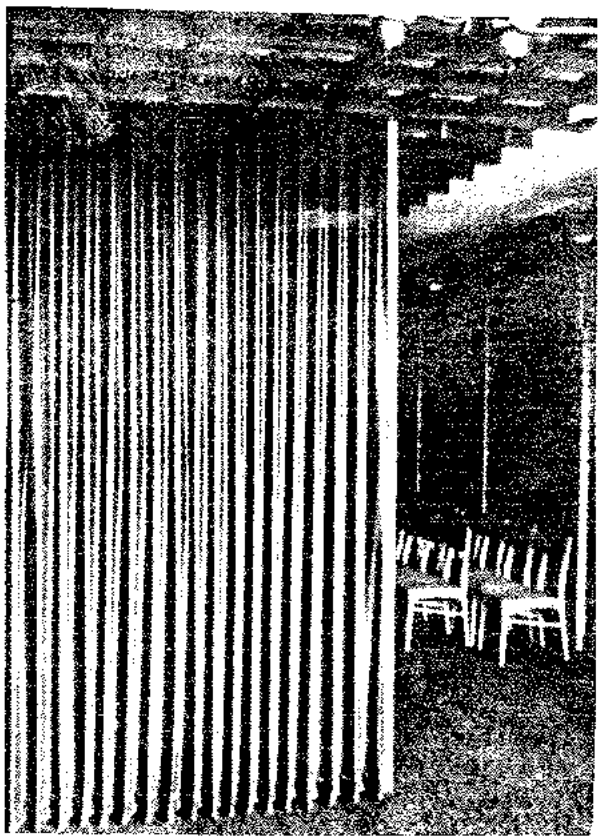
FOLDING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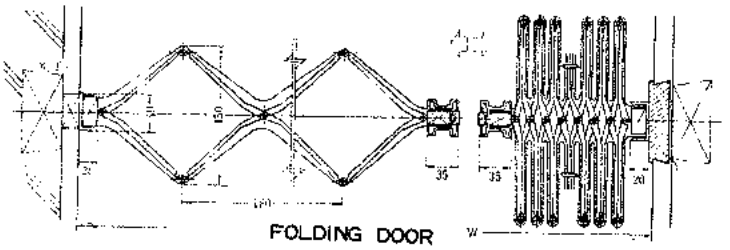
2 in 1 의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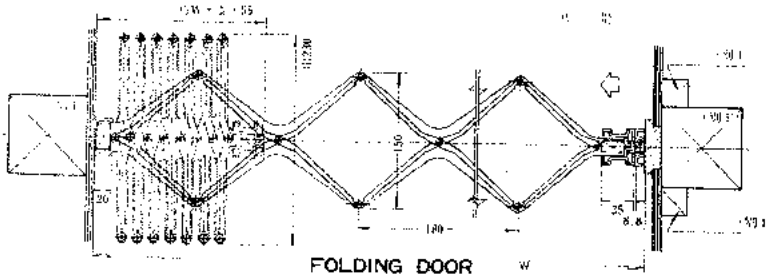
-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 大와 小를 兼하는 移動하는 칸막이
- 스므—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영일 홀딩도아 (一名 하모니도아)

日本タチカワアコデオンガテン会社輸出規格品임







홀딩도아
專門메이카

永一홀딩도아商社

事務室 서울市中区学洞2街46－8
工 場 永登浦区新道林洞1103－6

技術 · 日本タチカワアコデオンガテン会社
指導 · 日本아코디온도아会社

事務室 ☎ 26－0873－1658
工 場 69－6110